

청소년활동의 기초

개 관

본 장에서는 청소년활동의 이론적 기초를 고찰하고자 한다.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범주들을 상술하고 청소년활동의 목표와 과제에 대해서 다룬다. 또한 청소년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물음에 응답하기 위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특성을 주로 신체적인 변화와 발달의 측면에서 알아보고 끝으로 청소년활동의 교육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주제어

청소년,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의 범주, 발달과업, 청소년활동의 영역, 청소년활동의 목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일반적 발달 특성, 신체적 발달, 청소년활동의 교육적 의의

* 조용하, 동아대학교 교수

1.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목표, 발달과업

1)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목표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 사이의 중간적 존재이며 과도기적 특성을 보이며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예비적 단계이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은 심리적 변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숙을 포함한 다양한 변화와 발달의 양상을 나타내며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인격과 성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1904년 미국의 심리학자 G. S. Hall의 저서 ‘Adolescence’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여기서 Hall이 청소년기에 대해서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서술한 이래로 일반화되어졌다. Hall에 따르면 개인의 성장발달은 종족발생의 단축된 반복이다. 이 시기에 개성의 탄생이 이루어지며(E. Spranger, 1958) 전통의 반복 대신에 새로운 시작이 모색된다. 이것은 다분히 발생론적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 영향력의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은 성장하는 인간들의 세계 안으로, 직업의 사회적 형식 안으로 성장해 들어가는 특징으로 나타난다(R. Benedict, 1969).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시작, 기간, 경과는 사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청소년은 특별한 사회적 신분이다. 원시적 사회에서는 ‘청소년’이 없다. 소위 청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원시사회에서 배우는 가치들, 규범들, 그리고 행동양식들은 동시에 사회 일반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다. 가정이 동형적인 사회에서는 아동기가 끝나면 성인식을 거쳐서 즉시 성인의 신분으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은 나이 든 아동이 성인의 역할을 가정 외부에서 준비하기 위해 격리되는 것에서 비로소 가능한 존재양식이다. 가정 안에서 가능한 사회화를 철

신 넘어서는 사회화의 필연성이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청소년의 위치와 역할은 그 사회 안에서 역시 두드러져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를 H. Schelsky는 “두번째 사회적 지평”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그러기에 청소년기를 보편타당하게 규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사회변동과 보다 확대된 사회화의 폭에 의해 점점 더 길어진다 는 사실이다.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사회의 변동과 더불어 생각할 때 좀더 이해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새로운 세대’, ‘젊음의 반항’, ‘문제청소년’ 등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는 화제이다.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을 강조하는 부모들의 생활방식대로 따르지 않고, 철부지 같은 언동으로 사회의 기존질서에 맹렬히 도전하는 젊은이들은 사회의 주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집단이 출현하게 된 것은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부, 연장된 교육기간,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수명의 연장, 복잡하게 되는 사회적 구조 등으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회변동 속에서 청소년들은 반항할 수 밖에 없다. 청소년의 불안과 저항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기성인들과 같은 능력수행을 현사회로부터 거부받는데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정우식, 1986).

새로운 인생의 한 단계로서 청소년들의 삶이 변동하는 사회문화적 여건하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심리학적 발달이론에 대한 탐사와 연구가 요구된다. 인간발달과정에서 생의 각 주기는 결코 인간의 생리학적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오히려 아동발달의 모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생리적 측면에서의 성숙 정도를 포함하는 신체구조상의 유전적인 특성과 변화하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경제와 정치적 여건들과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생성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다(Litz, 1968). 어떤 사회적·문화적 환경들은 발달을 자극시키고 빠르게 하며 어떤 여건들은 이의 성장을 둔

화시키고 마비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발달의 지체는 청소년의 새로운 삶을 포함하여 변화하는 사회나 경제 그리고 문화적 조건들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인간완성의 단계에 있다기 보다는 변화의 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가운데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로서 주변적 특성이 강하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급격한 사회변동의 구조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에 거는 기대수준과 현실간의 괴리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은 그들의 인성발달과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준다.

우리의 미래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청소년들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활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청소년을 바르게 지도하는 노력은 결코 오늘에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일로 연결되고 또한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사회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와 토의는 청소년지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활동에 대한 연구와 학문적 접근이 미흡한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대응할 청소년의 지도력 개발은 한계가 있었다.

오랫동안 학교교육이 중시되어왔던 우리 나라에 있어서 청소년활동은 근로청소년이나 직업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의 보급형태나 여가선용의 장으로 이해되어 온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활동은 단순히 학교교육의 보충이나 여가대체적인 활동에 머물지 않고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생활환경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바뀌고 현상적으로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이 등한시되는 가운데 유연한 교육구조를 가지는 청소년활동은 '제3의 교육기회'로서 청소년의 보다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는 인간의 형성이나 자기정체감 확립에 공헌하는 장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선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알아보면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활동의 목표나 과제는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른 과업에 관련되어야 한다는 발상에 기초한 개념이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활동으로, 여기서 청소년들의 발달과 성장에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고유영역 활동과 임의영역 활동을 제외한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것은 1986년에 이르러 가능했다. 그 이전에는 사회복지나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부문에서 부분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었고 불우청소년에 대한 자선적 시혜나 비행청소년의 교화사업을 지원하는데 그친 감이 없지 않았다. 더욱이 이러한 추이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전체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한 인격체로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데는 체계적이지 못하였고 미흡한 실정이었다.

1990년 5월에 제정된 청소년헌장에 따르면 “청소년은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구성원이며” 청소년은 개인적으로 자아실현과 사회적으로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이라는 성장과정에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나아가서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well-being)을 추구하는데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청소년활동이란 학교교육에서 공식적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제외한 조직적 교육활동을 총칭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9세부터 24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을 활동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활동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한국청소년기본계획, 1990). 청소년기본법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첫째, 고유활동 영역으

로 학교, 직장, 복무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업, 근로, 복무를 말하며, 둘째, 임의활동 영역으로 가정이나 거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면, 식사, 통학, 신변잡일을 일컬으며, 셋째, 수련활동 영역으로 일반사회의 생활권이나 자연권에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 영역으로 심신단련, 자질향상, 취미개발, 정서함양, 사회봉사 등이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청소년활동 부문의 예산은 9,675억원으로 공공부문 5,317억원, 민간부문 4,358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활동이라 하면 청소년기의 전기에 해당되는 국민학교·중학생의 연령층에서 청소년기의 후기에 해당되는 고등학교·대학교의 연령층에 있는 모든 청소년을 포함하고 처한 상황이나 발달과업은 다양하다.

청소년활동은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존중하는 측면은 같으나 활동의 내용이나 방법은 다르다. 청소년활동의 범주는 활동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비교적 지도자의 교육적 의도가 크게 간여하는 청소년활동에서부터 청소년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에 의한 자주활동까지 또한 학교에서의 수업과 유사한 교실이나 강좌와 같이 클래스를 중심으로(학급활동)한 것에서 레크레이션과 스포츠는 물론 청소년의 여가활동으로서 그룹활동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범주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활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진다. 청소년활동의 목적은 크게 2가지의 연령층에 따라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전기의 주안점은 청소년의 신체적 활동에의 관심이나 모험심, 그리고 탐구심을 높이고 자발성과 자주성에 기초한 다면적 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집단활동을 통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학습체험을 가짐으로써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데 두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 후기의 주안점은 청소년이 그 개성신장의 능력에 따라 자신이 지향하는 각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통해서 주체적인 태도와 행동을 조장하고 특히 현실에 있어서 집단활동에 참가

하고 사회적 경험을 가짐에 따라 그 사회성의 발달을 도모하는데 두어야 한다. 특히 재학청소년(학생청소년)의 경우에는 자발성의 육성이나 주체성의 함양을 통한 사회적 태도의 형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각 개인의 생활에 관계되는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시민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사회의 건설에 참가하는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아를 확립해 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활동에서는(청소년활동의 목표는) 청소년이 자기 자신의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자기 생활에 관계되는 것이나 배워보고 싶은 것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집단 내에서의 토의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정신적인 성장을 촉진시켜 사회적 태도나 실천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청소년활동 시설에서의 주된 활동내용은 독서활동, 회화, 공작, 음악 등의 문화·예술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을 포함한 스포츠 활동, 소집단을 통한 집단유희, 영화시사회, 연극관람 등이 행해지고 있다. 또한 주요시설에서의 청소년활동은 아래와 같은 교육과정의 목표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복잡한 사회생활에 적응력을 키우고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키우기 위한 활동

둘째, 문화적 활동과 정서순화를 위한 프로그램, 취미활동, 신체적 단련을 위한 스포츠 활동, 사회봉사 활동

셋째, 창조적인 자기개발과 사고력 개발을 위한 활동(프로그램),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삶의 자리에서 상황과 여건을 근거로 해서 성장과 발전을 논의해야만 한다. 또한 청소년의 자발성에 입각해서 연령이 다른 집단에의 역할분담, 협동의식, 생활훈련, 자연 속에서의 놀이와 단련 그리고 흥미와 관심의 지속적 추구에 입각해서 전개된다.

일본 청소년활동의 전용시설인 청년의 집이나 소년자연학습의 집의 경우, 청소년활동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교훈이나 지혜를 배우게 한다.

둘째, 스포츠, 근로, 생산활동을 통한 신체적인 발달과 경험을 쌓게 한다.

셋째, 문화예술활동에 참가시킨다.

넷째, 연령이 다른 집단에서 역할분담이나 협동심에 입각한 생활훈련을 체험시킨다.

다섯째, 흥미나 관심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창조적 능력을 개발시킨다.

2)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인간은 생활을 하는 가운데 발달단계에 따른 특유의 발달과업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있어서 개인 이전에 사회인으로 성장해가기 위해 발달과업을 충족시켜 가는 것의 의미는 크다.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은 집단 속에서 청소년들의 흥미나 관심을 돋우면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자립성이나 자발성을 발전시키고, 건강한 신체단련과 풍부한 지식을 통해서 실천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청소년활동에 있어서 발달과업은 청소년활동의 프로그램 작성과 전개에 근원적인 준거가 된다. 청소년들은 신체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것이 청소년활동의 발달과업적 욕구이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발달의 생물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측면과 발달과업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전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Havighurst(1963)는 발달과업이란 개인의 생애중 어떤 특수한 시기에 나타나는 과업으로서 그 과업을 훌륭히 성취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후일에 겪게 될 다른 과업도 잘 치러나가게 된다. 그러나 만일 이에 실패하면 개인적으로 불행을 초래하고 사회적 인정도 못받고 후

일에 겪게 될 다른 과업도 잘 치를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결국 발달과업이란 개념은 교육이론에 있어서 상반된 두 이론 즉 아동을 가능한 한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야 가장 잘 발달한다는 자유론과 아동을 그 사회에서 과하는 제약을 통해서 가치있고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제약론 사이의 중용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발달과업은 개인적인 필요와 사회적 요청 사이의 중도라 규정하였다. 그 외에 Pikunas(1969), Bernard(1970) 등 발달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발달과업에 관한 개념을 종합해 보면 발달과업은 인간발달단계의 특정시기에 나타나는 과업, 과업의 연속성, 사회 문화적 적응 등이 주요한 구성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활동의 목표와 과제는 소위 발달과업이라는 형식으로 제시되는데 다음은 사회심리학자인 Robert Havighurst가 제시한 청소년기의 단계별 발달과업이다.

- ① 같은 연령의 새롭고 보다 세련된 관계를 배워야 한다.
- ② 남성으로서 또는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배워야 한다.
- ③ 자신의 신체구조를 이해하고 신체를 유용하게 다루어야 한다.
- ④ 부모나 다른 성인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 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일에 자신을 가져야 한다.
- ⑥ 직업선택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 ⑦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 ⑧ 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적인 기능과 지식을 발달시킨다.
- ⑨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지향하며 또 습득해야 한다.
- ⑩ 행동지침으로서의 가치나 윤리체계를 배운다.

김종서 외 3인은 Robert Havighurst의 기본전제에 따라 우리 나라 사람들의 발달과업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들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내용을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사회적 영역, 신체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단계별로 구분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전기

가. 지적 영역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기
- 자연과 사회환경의 여러 원리를 배우고 생활과 관련짓기
-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보존,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 갖기
- 외국문화 및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 넓히기
-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기
- 신체구조와 생리현상 및 성에 대해 이해하기
- 매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 갖기
-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기르기
- 자기의 능력과 적성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기

나. 정의적 영역

- 바람직한 이성교제에 대한 바른 태도를 발전시키기
-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기
- 성적 충동이나 감정을 통제하기
- 문학 및 예술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 여가를 건전하게 보내기
-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하기
- 일생을 살아갈 지침이 될 가치를 획득하기

다. 사회적 영역

-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을 책임있게 수행하기
- 건전한 국가관 확립하기
- 사회질서를 지키고 공익을 존중하기
- 동료집단과 잘 어울리기
- 존경하는 인물 본받기
- 웃어른에 대한 존경하는 태도를 기르기
-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수행하기

- 인권을 존중하기
- 좋은 친구를 선택하여 우정을 두터이 하기
- 규칙적인 생활습관 기르기

라. 신체적 영역

- 체력과 체능을 증진시키기
- 자신의 신체적 구조나 생리적 변화에 대해 적응하기
- 균형있는 체격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과 자세 취하기
- 충분한 영양과 적절한 휴식 취하기
-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는 위생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 건강에 좋은 습관 기르기

(2) 청소년 후기

가. 지적 영역

-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해 준비하기
-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식 습득하기
-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익히기
- 국가 현실이나 국제관계에 대한 바른 지식 배우기
-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각종의 최신 정보 알기
- 상식과 전문을 넓히기
- 합리적인 준거에 비추어 판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갖추기

나. 정의적 영역

-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태도와 자신감 갖기
- 여가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 건전한 생활관 확립하기
- 전통적인 가치관을 생활에 조화시키기
- 높은 수준의 도덕적 판단 능력과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태도 기르기

다. 사회적 영역

- 적절한 결혼대상을 찾고 원만하게 교제하기
- 자기 가정문화와 다른 가정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기
-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을 책임있게 수행하기
-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 원만한 대인관계 맺기

라. 신체적 영역

- 체력과 체능을 증진시키기
- 공해와 오염의 해독을 알고 이를 막아내는 생활하기
- 의약품을 바로 알고 남용하지 않기
- 건강을 위한 규칙적인 생활하기
- 음주·흡연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기
- 성에 대한 바른 태도 가지기

위에서 살펴본대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은 삶의 각 영역별로 해결해야만 하는 과업이 연속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은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과업과 사회적·정의적 측면의 과업이기에 사회가 다르고 변화함에 따라 그 사회가 요구하는 발달과업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마디로 자아정체감의 확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일반적 발달특성(함병수, 1991)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신체적인 면에서 급격한 성장과 변화가 나타난다. 신체의 빠른 성장으로 외형적인 면에서 성인과 대등한 신체를 갖게 된다. 그러나 급격한 신체적 변화는 근력의 증가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활동성을 증가시키며 신체발달과 정신적 성숙간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이에 따라 심리적인 긴장상태를 형성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신체활동의 욕구와 더불어 휴식(여가)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상반된 경향을 동시에 갖게

된다.

② 정신적인 면에서 지능의 발달로 추상적 사고능력과 논리적 추리 능력이 신장되며 상상력의 발달로 인하여 문학이나 예술에 대한 흥미와 동경을 하게 된다. 또한 철학적인 사고가 싹트게 되므로 선악의 인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가치기준에 대해 탐구하게 된다. 그리고 추상적인 경향의 확대로 말미암아 현실에 대해 모순을 느끼고 이상을 추구하며 타인의 욕구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시기로 취미생활의 욕구, 창조의 욕구, 지적인 욕구를 갖는다.

③ 사회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을 형성하여 그 안에 소속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고 집단의 가치와 행동양식을 동일시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봉사의 욕구, 우애·협동의 욕구, 남에게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다.

이상과 같은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은 발달단계에 따라 청소년 전기(국민학교와 중학교 정도)와 청소년 후기(고등학교와 대학교 정도)로 나누어 각 단계에 적합한 발달과업을 모색할 수 있다.

2.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특성, 교육적 의의

1)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특성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은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발달로 인한 심리적 혼란과 정신적 불안정감을 극복하고 자아정체감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우선 청소년기의 급속한 신체변화의 과정을 청소년 스스로가 인지하면서 당황하기도 하고 고민에 빠지기도 하는 영역은 여성의 경우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나 최초의 월경 등을 들 수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몽정현상이나 음모발생을 포함하는 성적 성숙과 발달에 있다. 이러한 성적 발달의 변화와 충격으로 청소년들의 관심이 자기자신의 흥미와 내면적 관심으로 향하게 되고 인간관계에

주저하게 된다. 신체적 변화나 발달 중에서도 자신의 용모에 강한 호기심과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청소년들이 급격한 신체적 발달로 인한 역기능을 해소시키고 승화시킬 수 있는 활동이 절실히 요청됨을 알 수 있다. 신체적 발달과 성장이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각종 문제를 야기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신체적 변화와 발달에 따른 교육적이며 사회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가령 청소년에 있어서 신장과 근육을 비롯한 외모의 양적 발달이 또래집단이나 지역 사회로부터 높게 평가받는 운동기능의 성숙을 자극하게 된다. 그러나 신체 각 부위의 성장은 인체의 조화로운 발달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어색해 하고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인의 지위를 얻고 싶어하는’ 체험을 갖게 한다.

둘째, 급격한 신체적 발달의 역기능으로서 자기도취적 욕구를 해소하려 한다.

셋째, 성에 대한 역할학습의 계기가 마련된다.

넷째, 인체의 부분별 발달이 가치의 양면성을 불러 일으킨다. 특히 또래집단의 지지나 수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가치의 양면성을 동반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청소년 자신이 그들 스스로 신체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변화의 의미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역할학습, 정체감 구축의 기회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활동은 이를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활동의 참여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인성적 측면에 있어서 안정된 태도와 행동을 보이며 이웃에 대해

서도 수용적이다. 특히 지도성이 뛰어난 청소년들은 이러한 경향이 농후하며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달과 변화의 경험은 청소년들에게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발달경험의 이행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확립과 신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된다. 청소년활동은 이들의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체적 활동에 의한 지도원리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활동은 그들의 자아인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자연스런 가치부여가 제공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일찍이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자연과의 접촉이나 또래 집단에서의 놀이, 자발적 활동, 근로체험, 지역행사 등의 참가경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역할학습을 익혀왔다. 그렇지만 최근의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가속화는 청소년의 생활에서 자연환경을 빼앗고 정신적, 문화적 측면을 포함한 총체적인 지역환경의 파괴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연접촉이나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 현상은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변질시키거나 저하시켜서 청소년들의 의식이나 가치관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생활권이 좁고 행동양식도 수동적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가정생활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는 청소년들의 발달을 혼란으로 이끌고 있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는 성숙해도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자유스러운 반면 자기가 의지할 곳을 가지지 못하는 중간적 존재(marginal person)로서 위치 지워진다. 그러한 현상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점차로 장기화하는가 하면 다양화하는 가치관 가운데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의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

청소년활동은 이런 상황하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집단활동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청소년기의 최대과제인 자아확립의 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청소년활동은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청소년의 발달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활동은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기대에 직면하면서 정체성의 혼미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결과 그들은 스스로의 인격적 실존의 의미, 즉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과 같은 심각한 물음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한 결정적 응답을 얻지 못할 때 그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구조나 조직을 설정할 수 없고 그들에게 직면해 오는 사건이나 경험들에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청소년활동들은 그들에게 성장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급변하고 다양한 사회여건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잘못하면 자율성을 상실한 채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복잡한 사회현상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견지하면서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이고 자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나 선택을 신속하면서도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은 자력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선택해 보는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변화와 다양화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사회에서 가치의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치화의 과정을 학습시키는 방편으로 청소년활동은 가치관 형성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활동의 특성에는 참가의 임의성, 자발적 흥미나 관심, 직접경험, 집단성, 유연성, 다양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우선 임의성 및 자발적 흥미와 관심, 직접경험, 집단성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자발적인 학습에의 흥미나 관심은 항상 활동의 에너지이고 임

의적인 참가를 할 때 더욱 도야성이 높아진다. 청소년의 즐거움이나 흥미를 추구하는 관심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활동의 특성은 learning by doing이다. 학교에서의 정규교육과정과는 달리 청소년활동은 참가자의 직접경험이 중시된다. 과학적인 인식이나 객관적인 학습은 그 자체가 청소년들에게는 중요한 발달과제이지만 그것이 진실로 청소년들에 의해 생겨난 자생적인 힘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성의 발달이 우선적이다. 주체성의 발달에 따라 중요한 것은 풍부한 직접체험과 새로운 발견이다. 청소년활동은 모험심, 탐구심, 교우관계, 자연접촉, 근로체험 등의 직접경험을 통해 학습이나 사고를 보다 내면화하고 태도나 행동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셋째,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 의해 집단은 그 자체로 교육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지지함과 동시에 규범의 준수와 청소년 자신의 의지와 책임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지만 그것에 의해 청소년들의 연대와 협조, 협력과 신뢰, 책임과 의무감의 감각이 형성된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자치적 활동을 통해 자아정체감의 확립과 사회성의 함양에 기여한다.

2) 청소년활동의 교육적 의의

오늘날 청소년은 학교에서의 과도한 지식이나 이론 중심의 교육이 지배하며 가정에서 부모와의 접촉이 불충분하고 핵가족화하는 현상에 따른 가정교육의 기능이 저하되며 또한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부재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 그러한 상황들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은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을 보완하고 가정교육의 기능과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촉진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정이나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체험을 통해 배워 익혀야 할 능력이나 태도가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은 청소년이 성장

해 나가기 위한 기초적인 힘이 된다. 다음은 그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활동의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三浦清一郎, 1987).

(1) 공동생활의 태도와 기술을 학습한다.

청소년들은 이질적인 구성원과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태도와 기술을 배운다.

학교교육은 인간의 지성과 덕성, 그리고 신체의 조화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식위주 교육의 편중성이 다른 분야를 압도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위주 교육을 위한 학급편성이란 동일자적자, 같은 수준의 대상자를 갖추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의무교육에서는 같은 연령집단으로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영향력이 증대한 만큼 청소년들 속의 같은 연령집단의 영향이 커지고 다른 연령집단에서 생활하는 기회나 시간은 적어진다. 최근 학교시간이 증대하여 그만큼 청소년들과 노는 시간은 적어지고 지역사회에서의 자연발생적인 다른 연령집단은 거의 없어져 버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방과후 집단에서의 자유스런 놀이가 적어짐은 물론이고 연령이 다른 청소년들과 노는 것도 거의 없어져 버렸다.

공동생활 가운데 청소년들은 서로 배우려는 노력과 대등해지려고 노력하는 기회를 갖는다. 그 속에서는 경험이나 능력, 사고가 다른 동료와의 공동생활이 필요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의 '예행연습'을 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청소년 집단을 체험하지 않는 것은 사회생활의 예행연습을 통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가진 이질적 부분을 전제로 하여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일을 진행시켜 가는 것은 사회성 중에서 가장 고도의 적응능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자발적 활동체험을 한다.

현대 청소년에 있어서 무기력은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과 더불어 사무주의(四無主義)로 불리우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나라 청소년활동의 체험에 있어서 다수의 청소년들이 그러한 경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신의 자발성이나 자

주성이 인정된 적이 드물고 그와 관련된 훈련이나 학습의 기회도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가정에서 청소년 문제는 ‘과보호’와 ‘무관심’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있다. 그러기에 자발성이나 자주성도 취약점을 지니고 사회규범의 자발적 실천이나 기본적 생활습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사회규범이나 생활습관을 가르칠 때에는 청소년의 삶을 영위하는 사회의 입장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 생활의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야기되는 문제를 확실히 가르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힘을 배우고 자주성이나 자발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살아보는 장면이 필요하고 스스로 해보는 경험이 필수적이다.

(3) 사회적 적응력을 향상시킨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이 서로 협력해서 만드는 공동체이며 사람들은 서로 반응하여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전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존중되어야 할 개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동시에 다른 모든 인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이 중요하다.

일을 결정할 때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지장이 없으나 반드시 자신의 생각대로는 안된다는 것, 또는 자신의 견해를 가질 권리는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청소년들 스스로 배우는 것이다.

등근 용기에 울퉁불퉁한 바위조각을 몇 개 정도 넣고 잠시 흔들어 주면 마지막에는 그 바위조각의 각과 각이 꼭 물리게 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다.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이기주의적이며 자만심이 강한 청소년도 건전한 환경 속에서 사귀판단을 잘 하는 어른의 우정이 충만된 손에 의해서, 비뚤어진 상태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되어 울퉁불퉁한 각이 없어져서 사회적으로 적응력이 향상된 청소년이 될 수 있다.

(4) 원만한 인간관계를 배운다.

먼저 청소년들은 소집단 활동에 의해 연대나 단결이 깊어진다. 인간의 직접적 접촉에는 한계가 있다. 이 점에서 교류의 밀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집단이 가장 적합하다. 소집단 경쟁이란 경쟁원리에 유대하는 재미나 열중을 초래함과 동시에 집단 내의 협력이나 도움을 불가결한 요소로 하여 단결이나 연대를 촉진시킬 수 있다.

청소년들끼리의 싸움이나 그것을 둘러싼 반응, 그 해결방법 등에서 그들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배운다. 자아를 주장하고 자신의 욕구가 확대되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게다가 청소년들은 대립하는 감정이나 의견의 조정이 아직 미숙하다. 싸움은 충돌하는 자기주장을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법이다.

소집단의 통합과 함께 그것이 배타적이지 않고 구성원 전원의 통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소집단의 상호교류를 잘 배려하면 청소년들의 인간관계는 확대된다. 소집단 관계의 심화와 확대는 청소년활동을 보다 이상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다.

(5) 행동내성(行動耐性)이 향상된다.

현대 청소년들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아 나가는 힘이 결여되어 있어 학교나 가정에서 어려운 상황이나 괴로워도 헤쳐 나가야 하는 장면이 적기 때문이다. 집단생활의 기본적 규칙(rule)으로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전체 생활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철저히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행동내성이 자란다.

행동내성이란 어떤 행동을 반복하여 경험함으로써 처음에는 괴롭거나 어렵던 것이라도 몸의 적응력이나 익숙함이 향상되어 차차 할 수 있게 된 경우에 나타나는 신체적 적응력이나 익숙함을 말한다. 일상생활에서는 체력이나 강한 인내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것은 청소년활동의 지도자들이 격려해 줌으로써 보다 유효해진다. 청소년들은 괴로움을 통해서 사물의 고마움을 안다.

문명의 소중함을 배우기 위해서는 비문명의 빈곤함이나 고통을 체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슬픔이나 괴로움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체험을 극복했을 때에, 진정한 기쁨과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의 고마움을 비로소 절실히 느낄 수 있다.

본문 요약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 사이의 중간적 존재이며 과도기적 특성을 보이며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예비적 단계이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은 심리적 변화와 사회적 성숙을 포함한 다양한 변화와 발달을 통해서 그들의 인격과 성격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청소년활동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활동으로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는 조직적 활동의 총칭이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개개인의 생활에 관계되는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시민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사회 건설에 참가하는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아를 확립해 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은 삶의 각 영역별로 해결해야만 하는 과업이 연속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은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과업과 사회적·정의적 측면의 과업이기에 사회가 다르고 변화함에 따라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발달과업이 달라질 수 있다.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마디로 자아정체감의 확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의 참여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인성적 측면에 있어서 안정된 태도와 행동을 보이며 이웃에 대해서도 수용적이다. 특히 지도성이 뛰어난 청소년들은 이러한 경향이 농후하다.

청소년활동의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① 공동생활의 태도와 기술을 학습한다.
- ② 자발적 활동체험을 한다.

- ③ 사회적 적응력을 향상시킨다.
- ④ 원만한 인간관계를 배운다.
- ⑤ 행동내성이 향상된다.

연구과제

- 1. 청소년활동의 교육적 의의를 설명하시오.
- 2.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은 무엇인가?
- 3. 청소년활동의 특성은 무엇인가?
- 4. 청소년활동의 기능과 역기능을 알아보시오.
- 5.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참고문헌

- 김종서 외(1982), 한국에서의 평생교육 체제 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조용하(1990), 청소년 교육의 동향, 서울 : 교육과학사
- 체육청소년부(1991), 청소년백서
- 함병수 외(1991), “청소년 전용시설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제2권 제2호, 한국청소년연구원
- 岡本包治(1987), 靑少年の 學習 : 活動と 指導, 東京 : きょうせい
- 瀬沼克彰(1984), 地域活動と 靑少年, 東京 : 大明堂
- 福留強(1986), グループ活動と 靑少年, 東京 : 學文社
- Havighurst, Robert J. (1952), *Development Tasks and Education*, N. Y. : Longman
- Toffler. A. (1981), *The Third Wave*, N.Y. : Bantam Books

청소년활동의 관리와 운영

개 관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체험 중심의 학습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지도나 청소년교육과 성격을 달리한다. 청소년활동이 제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을 지도자 중심에서 청소년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시각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청소년 활동에 적합한 지도력의 개발과 청소년과 지도자가 만나지는 활동의 장인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형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집단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의 기획과 조직, 운영과 관리,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활동 지도자의 모습과 역할, 그리고 프로그램의 모델에 관해 알아본다.

주제어

청소년활동, 경험을 통한 학습, 체험중심 활동, 참여, 자발성, 집단 활동, 자원봉사자, 지도감독, 집단의 크기, 만남, 참가자 중심, 과정중심, 감추어진 지도자, 프로그램, 즐거움, 총괄평가, 형성평가

* 전국재,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 소장

1. 청소년활동의 기획과 조직

청소년활동의 기획을 논하기에 앞서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범주에 관해 간단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에 대해 김정명은 “청소년활동이란 실생활에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반 체험중심 활동”(김정명, 1991 : 28)이라고 간략하게 정의하였다. 강대근은 교육자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지식 전달을 하는 청소년교육과 구별하여 청소년활동(youth activity)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생활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그중 사고·언어·행동의 차원에서 청소년의 삶을 파악해야 할 것이고 현대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청소년활동은 인간주의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결국 청소년활동의 목표는 인간적 자존 위에서 사회구조적 존재를 확인시키고 청소년이 살아갈 미래의 사회를 설계하도록 도와주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강대근, 1981 : 13).

청소년활동은 학교, 가정, 그리고 사회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중심의 활동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집단사회사업가인 Trecker는 그룹활동이 최고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① 인간중심이며 특정의 욕구에 대응하는 것, ② 집단구성원의 관심과 욕구에서 나온 것, ③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프로그램 활동과 계획에 개입시킨 것, ④ 전문가를 제공자로서가 아니라 조연자로서 이용하는 것이라야만 한다고 하였다(남세진, 1986 : 117).

이상에서 청소년활동에는 청소년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 당사자인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실생활에서 청소년이 가지는 체험, 이 세 가지 공통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여기에 청소년활동 전문지도자, 연속성, 집단활동의 요소들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이 이들

의 삶의 현장에서 청소년활동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들이 주체가 되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반 체험중심의 집단활동이다.”

청소년활동에서의 지도력은 지금까지 청소년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져 왔던 지도력과 구별되어야 한다.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교육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주입하는 것만을 교육으로 착각하는 그릇된 사고의 틀을 깨지 않고서는 청소년을 만날 수 없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에서 교육에 우선하는 것은 이들과의 만남이다. 청소년을 자율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정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이들과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을 가르침을 받는 단순한 교육의 대상(for)으로서가 아니라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진 인격체로 보는 인간 신뢰의 바탕에서 이들과 함께(with) 뛰어 나가는 자세가 청소년활동에서 요구된다. 청소년활동은 교육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틀,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글에서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이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청소년활동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들이 주체가 되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반 체험중심의 집단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즉 청소년활동을 구성하는 6가지 구성요소는 청소년, 지도자, 자발성, 연속성, 체험중심, 집단활동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에서의 집단활동의 범주에는 각종 청소년단체나 종교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갖가지 다양한 집단활동, 학교내에서 청소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되어지는 학생회 활동, 학내 클럽활동, 그리고 학교 또는 단체에서 인정하는 지도자의 도움을 받는 동아리활동도 포함한다.

1) 청소년활동의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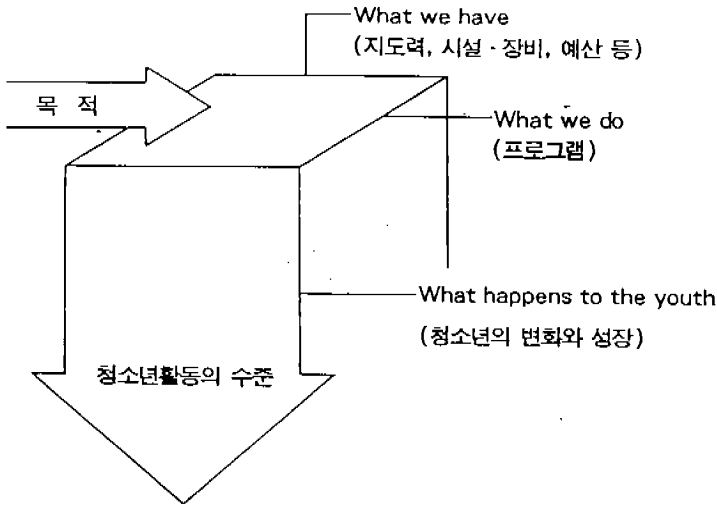
(1) 청소년활동의 목표

청소년활동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활동에 우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실제 청소년활동의 현장에서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그들이 프로그램을 “왜 하는가?”(why?) 하는 물음에 명쾌한 해답과 신념이 없이 그저 한다는데 있다. 청소년들은 무슨 일이든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기를 원하지만 지도자의 원만한 개입에 의한 지도감독이 없이는 무의미한 장난에 그치기 쉽다. 강대근은 청소년활동의 목표를 청소년활동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사회화를 통하여 사회구조적인 존재로 성장하게 함과 미래지향적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고 동시에 그러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강대근, 1981 : 13)고 하였다.

활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진지하고 냉정한 토론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일단 결정된 목표는 성원간에 확실한 공동의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활동의 목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즉 국가와 사회의 기대, 소속 단체 또는 클럽의 목적을 종합·검토하는 동시에 성원인 청소년의 욕구와 흥미, 조사를 양면적인 시각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도자는 이들의 목표가 명료화, 구체화되도록 늘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청소년활동에서 관리와 운영과 프로그램이 사람(청소년)과 관련하여 어떤 위치에 있으며, 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점을 다음 도표로 설명하여 본다(Doty, 1960 : 26).

〈그림 1〉은 청소년활동에서 사람(청소년)이 관리 및 운영, 그리고 프로그램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에서 조직과 행정, 시설과 장비, 예산, 프로그램들, 그리고 지도력을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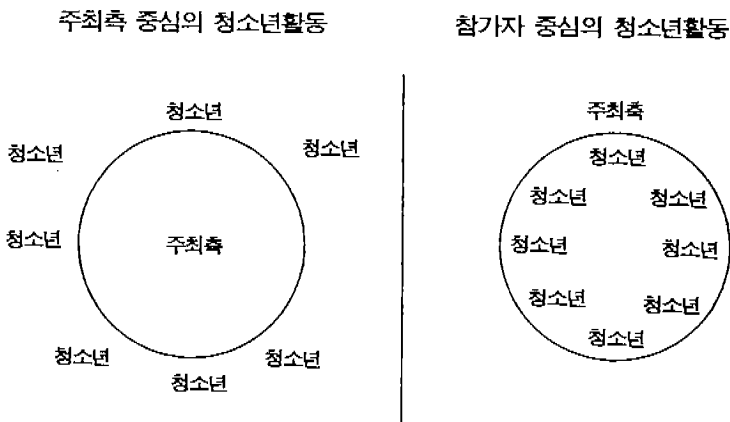
〈그림 1〉

함한 모든 것들은 청소년을 위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코 생명(청소년)에 우선할 수 없다는 말이다. 관리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본연적인 임무는 청소년이 활동을 통하여 의미있고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바람직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온전한 인간(wholistic person)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데 있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 역시 청소년들이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이 질적인 면에서 어떤 수준의 것인가를 측정하는데 있으며, 또한 이러한 경험이 이들에게 어떤 변화와 성숙을 주었는가 하는데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2) 집단활동의 종류

〈그림 2〉는 주최측 중심(sponsor-centered)의 집단활동과 참가자 중심(youth-centered)의 집단활동을 설명한 것이다(Powell, 1974 : 10). 주최측 중심의 집단활동은 지도자가 주체가 되어 활동의 기획에

서부터 정리·평가하는 전과정을 책임지는 형태이므로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가 극도로 제한을 받게 되고 활동과정에서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주최측 중심의 집단활동은 청소년의 흥미와 욕구를 존중하기 보다는 주최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을 참가자들에게 주입시키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조상 참가자의 의사가 무시되어지기 쉽다. 따라서 주최측 중심의 집단활동은 청소년활동에 적합하지 않으며, 청소년활동이라고 보다는 청소년지도 또는 청소년교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그림 2〉

참가자 중심의 집단활동은 말 그대로 집단 구성원이 주체가 되고 주최측(성인 지도자)은 표면상 객체가 되는 집단활동을 의미한다. 참가자 중심의 집단활동에서는 프로그램의 기획에서부터 정리·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구성원인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총괄운영하고 지도자는 이들의 후견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집단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의사결정은 구성원의 욕구와 흥미에 기초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주최자 중심의 활동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3) 프로그램의 형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경험중심의 활동이 가능한 환경과 이에 맞는 프로그램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청소년활동의 형태는 크게 집중식 프로그램과 분산식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진다. 집중식 프로그램은 주최측(sponsor) 또는 성인이 중심이 되어서 주로 강의식으로 대그룹 활동으로 진행되어지며, 분산식 프로그램은 참가자(participants)들이 주축이 되어 소그룹을 통한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다음의 <표 1>은 집중식 프로그램과 분산식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전국재, 1990 : 25-34).

집중식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프로그램 형태로서 주최자 중심의 집단활동에서 채택하고 있다. 분산식 프로그램은 그 성격상 참가자 중심의 집단활동에 적합한 형태이다. 청소년 활동의 틀로서는 분산식 프로그램이 유익한 것이 당연하지만 이에 맞는 지도력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산식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오히려 교육의 공동화 현상이라는 역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하겠다. 청소년활동에서 분산식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유능한 지도력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집중식 프로그램과 분산식 프로그램을 절충한 소위 절충식 프로그램(eclectic program)이 있다. 두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을 잘 고려하여 보충한 프로그램이다. 절충식 프로그램은 두 가지의 접근방법이 있는데 집중식 프로그램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여기에 분산식 프로그램의 장점들을 보충하는 방법과, 반대로 분산식 프로그램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집중식 프로그램의 요소를 절충한 방법이다.

〈표 1〉

프로그램의 형태

형태 구분	집중식 프로그램 (centralized program)	분산식 프로그램 (decentralized program)
특 정	집회 중심(meeting-centered) 강사 중심(speaker-centered)	활동 중심(activity-centered) 지도자 중심(counselor-centered)
그룹형태	대그룹 중심	소그룹 중심
강 조 점	주최기관이 목표하는 내용을 참가자들에게 주입(주최측 중 심)	참가자의 욕구와 흥미에 입각 하여 이들의 의사를 반영(참가 자 중심)
프로그램 진 행	○일정 시간에 한가지 프로그 램을 진행하며 주로 강의식 ○공식적	○일정시간에 여러가지 프로그 램을 다양하게 진행 ○비공식적
시 설	대그룹 중심이므로 대규모 시 설이 요구됨	소그룹 중심이므로 여러개의 소규모 시설이 필요함
지 도 력	소수의 전문 지도력	다수의 자원지도자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전문지도자
장 점	1. 우수한 강사인 경우에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주최기관이 교육목표를 효율 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3.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4. 관리, 운영이 용이하다. 5. 지도력 개발이 용이하다.	1. 참가자들의 자율성과 자발적 인 참여가 가능하다. 2. 프로그램 진행이 융통성이 있다. 3. 성원과 지도자, 성원 상호간 에 관계형성이 수월하다. 4. 소그룹으로 진행되므로 그룹 지도를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지도할 수 있다. 5. 참가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단 점	1. 일반적으로 한사람이 대그룹 을 진행하므로 인간관계 형 성이 어렵다. 2. 참가자의 의사가 무시되기 쉽고,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 워진다. 3. 주로 강의식 진행이므로 교 과 방법이 제한을 받는다. 4. 성원 개개인의 경험이 제한 받는다.	1. 다수의 지도자가 참여하므로 소그룹별로 동일한 수준의 지도자를 배치하고 동일한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2. 소그룹 단위로 진행되므로 효과적인 통제가 어려워진 다. 3.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어렵 다. 4. 시설 지원이 미흡할 경우에 는 운영에 문제가 있다. 5. 지도자 훈련에 어려움이 있 다.

2) 청소년활동의 조직

(1) 집단의 크기

집단활동에 있어서 집단의 크기(인원수)를 어떻게 잡는가는 중요한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대그룹 활동에 익숙해 있다. 집단이 크면 클수록 그룹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는 공식적이 되고 결국 인간소외현상은 더욱 심화되기 마련이다. 청소년활동의 목적이 개개인의 인간완성에 있다면 당연히 집단 내에서 지도자와 구성원, 구성원과 구성원간의 공식,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집단의 규모를 적정선으로 축소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인 것이다. 그러면 청소년활동에서의 집단의 규모를 어느 선에서 정해야 하는가.

학자들 간에는 그룹을 소그룹과 대그룹으로 나누는 데에 있어서 그 수자 규정에 있어서 의견이 매우 다양하다. Martha M. Leypoldt는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소그룹과 대그룹으로 정의하였으며, Michael Wieber는 소그룹의 크기는 2명에서 8명을 가장 적정한 인원수로 보고 12명까지도 가능하나 실제적으로 8명 이상이 되면 성원 전체의 충분한 참여가 불가능해지므로 소그룹이 갖는 몇 가지 이점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였다. 예일(Yale)대학과 일리노이(Illinois)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Hackman과 Vidmar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은 인간관계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분위기가 편안하며 효과적이기 위해 가장 적정한 인원수는 5명이라는 연구보고가 있다. 그런가 하면 M. P. Anderson은 소그룹을 2명부터 15명 많게는 20명까지로 보아 인원수의 폭을 넓게 잡고 있다. B. Aubrey Fisher는 소그룹은 적어도 3명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룹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그 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모호하면서도 합리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전요섭, 1986 : 36-37).

이처럼 학자들에 따라 집단에 대한 정의와 소그룹과 대그룹에 대한 견해가 다양한데 클럽활동에 적정한 인원수를 결정하는 것은 입장을

달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그룹의 성격, 기능, 그리고 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클럽활동은 그룹 성원간에 야기되는 갈등을 최소화 하려는데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갈등을 교육의 기회로 보는 적극적인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하여 야외교육자인 Kenneth R. Kalisch는 색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는 야외교육에서 단위그룹의 적정인원을 10-12명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6-8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에는 그룹 성원간에 갈등의 기회가 적어지게 되고, 결국 교육의 기회는 그만큼 축소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성원간의 갈등을 축소하기 보다는 이를 당연한 자연현상으로 보고 갈등 그 자체를 경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인 것이다(Kalisch, 1978).

필자는 성원간의 다양한 갈등, 이로 야기되는 불평등을 회피하기 보다는 이를 교육의 기회와 환경으로 삼아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에 동의한다. 그리고 청소년 집단활동은 집단사회사업과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집단의 크기를 정함에 있어서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 청소년 집단활동의 집단을 치료집단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청소년 집단활동의 현장에서 실무지도자로 활동해온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집단활동의 적정 인원수는 20명을 크게 넘지 않는 선에서 20명 내외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 이는 YMCA의 중학·고교Y클럽이 적정인원을 20명 내외로 보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대한YMCA연맹, 1960: 8).

(2) 자원봉사자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고 동참시키는 것은 청소년활동에 지극히 중요한 과제이다. H. B. Trecker는 “자원봉사자란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관여하는 사회기관에서 무보수로 자발적인 조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문인숙, 1988: 36). 여기서는 자원봉사자를 청소년 단체(학교)에서 기관의 목적에 동의하고 청소년활동에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청소년활동의 현장(학교, 청소년단체 등)에는 일반적으로 전문 지도력이 절대부족한 상태이다. 청소년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능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이들을 활용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청소년활동에서 자원봉사자의 개발은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입장에서 청소년활동 그 자체와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마땅하다.

청소년활동에서 자원봉사자가 이처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원지도자의 한계성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개인적으로는 전문성 결여, 비연속성, 무책임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적, 제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이해와 지원이 미흡한 현재의 사회여건상 자원봉사자의 발굴이 지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를 들어보자. 독일에서는 자치단체 혹은 청소년동맹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인정증이 교부되고, 인정증을 소지한 사람은 소속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기간 중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그 기간 중 12일 간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가 있다(조용하, 1990 : 97). 자원봉사자에 대한 개인적인 한계성은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과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겠으나 법적, 제도적 지원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자는 청소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자로서 정기적으로 봉사가 가능한 사람들 중에서 발굴해 낼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있고 정식 교사가 수업 외의 시간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면 자원봉사자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목은 앞에서 열거한 한계성을 극복해 나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으며, 전문지도자와 자원봉사자간의 관계를 역할 분담을 통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인식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에는 주체자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들을 도

와 줄 청소년활동 지도자, 학교장, 소속 단체장, 학부모, 그리고 이들의 부모와 지역사회유지 가운데서 후견인이 되어줄 고문 등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의 부모와 이들이 속한 학교, 지역사회의 공통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관심 없이 청소년활동 지도자 만이 청소년들을 만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청소년 활동에서 근본적인 지도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활동의 운영과 관리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활동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체험중심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는 바 실제로 지도자(성인)의 역량은 청소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강대근은 청소년활동에서 지도자의 위상에 대해 “청소년은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의 기대, 즉 사회적 가치규범에 대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실험과 저항 그리고 조정 등을 통하여 주체적인 학습과 내면화의 과정을 밟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보다 바람직한 생활양식과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인 성인층의 지도가 요구된다”(강대근, 1981 : 214)고 하였다. 이는 전문지도자의 도움 없는 청소년활동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도자가 청소년과 함께 뛰어나가는 과정에서 지도자는 어떠한 모습의 지도력을 발휘하는가에 있다고 하겠다. ‘청소년활동의 운영과 관리’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이들에 의해 진행되는 활동의 과정에서 지도자가 어떻게 개입하고 지도감독하는가 하는 지도력과 연관하여 알아 보도록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의 관리는 지도감독의 의미로 이해하고자 한다.

1) 청소년활동의 운영

(1) 청소년중심의 청소년집단

‘청소년활동의 기획과 조직’에서 주최측 중심의 집단활동과 참가자 중심의 집단활동(youth-centered youth group)에 관해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 운영과 관리를 논하기 전에 우선 참가자(청소년) 중심의 집단활동에 대해 주최자 중심의 집단활동과 비교하면서 보다 상세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주최자 중심의 집단활동은 청소년활동이라기 보다는 청소년지도 또는 청소년 교육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듯하다. 주최자 중심의 집단활동에서는 계획에서 진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의 과정이 지도자(성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주제를 결정하고, 프로그램 방법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모두 지도자의 권한인 것이다. 이 경우에 교육은 주로 강의 형태로 진행되어지며 슬라이드, 영화, VTR 등과 같은 시청각 매체가 사용되어진다. 여기에서는 활동의 목적이 주최측이 설정한 교육목표를 참가자들에게 전달하는데 있으므로 참가자는 교육을 받는 대상일 뿐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참가자들의 흥미와 욕구가 무시되기 쉽다.

반면에 참가자 중심의 집단활동은 참가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활동 초기에는 지도력이 손상을 받는 듯이 보인다. 또한 청소년에 의해 진행되어지므로 프로그램의 수준이 낮다. 그러나 참가자 중심의 집단활동에서는 과정을 결과 이상으로 중요시하므로 프로그램을 훈련의 장소(the program becomes a training center)로 보는 것이 주최자 중심의 집단활동과 현저하게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참가자 중심의 집단활동에서는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되므로 참가자 개개인의 재능과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참가자 중심의 집단활동은 일반적으로 소그룹에서 진행되므로 집단구성원 상호간에 보다 성숙한 인간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다(Powell, 1974 : 11-12).

이상에서 주취자 중심의 집단활동보다는 참가자 중심의 집단활동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참가자 중심의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체험 중심의 활동을 가능케하는 접근방법이다. 부언하여 청소년활동의 장으로서 참가자 중심의 집단활동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집단내에서의 인간관계는 공식적이고 비인간화되어지기 때문이다.

(2) 청소년활동의 원칙

청소년활동의 운영에는 다음의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모든 청소년활동은 구성원의 욕구와 흥미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청소년활동에서 과정은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청소년활동의 제반 과정은 청소년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의 전제조건은 그 내용상 일맥상통하고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집단활동에서 지도자는 집단의 목적을 성취하는 동시에 구성원 개개인의 욕구도 아울러 충족시키기 위해 이들 사이를 오가며 적절히 조절하는 숨은 주체자인 것이다.

청소년활동에서 청소년을 환자(client)로 보고 이들이 소속한 집단을 환자집단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또한 몇몇 청소년단체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을 단순히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고객(customer)으로 취급하여 비인간화하고 상업화 되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청소년활동에서 청소년과 지도자는 한 가족(family)인 것이다(YMCA, 1984 : 21). 청소년활동에서 청소년과 지도자의 관계성과 역할분담도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집단사회사업에서 대표적으로 인용되어지고 있는 Konopka의 집단사회사업의 14가지 원칙은 매우 유익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 역시 의식·무의식적으로 청소년을 환자로 보는 시각은 여전하다.

다음은 필자가 Konopka의 집단사회사업의 14가지 원칙(남세진,

1986 : 104-109)을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해 이루어지는 체험중심의 활동에서 동반자인 지도자와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에 맞도록 수정해 놓은 것이다.

① 구성원 개개인은 고유한 특성을 가진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집단 구성원의 개별화).

② 집단은 각각 목적, 구성원의 수준 및 성격, 응집력,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지도력 등 집단 내의 상이한 여러 요인들에 의해 고유한 특성을 이룬 유기체임을 인정하고 집단별 특성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한다(집단의 개별화).

③ 구성원은 각각 고유한 장점과 단점을 가진 인격체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이를 청소년활동 지도자의 가치체계에 입각하여 사정·평가한다.

④ 개인의 변화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므로 지도자는 구성원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도움자의 관계를 맺는다.

⑤ 집단활동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구성원과 지도자와의 관계 이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지도자는 집단 내에서 구성원과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돕는다.

⑥ 지도자는 집단과정에 개입하여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수정을 한다.

⑦ 집단의 모든 구성원은 각각 자기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활동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한 사람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의 참여폭이 넓어지고 자발적이 되도록 한다.

⑧ 지도자는 청소년활동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된다.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집단의 목표를 성취하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⑨ 집단과정 속에서 구성원들 간에 연속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갈등을 토론과 협의를 통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다.

⑩ 구성원들이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성숙한 대인관계를 성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⑪ 집단활동에서 각 개인과 전체적 상황에 대한 진단적 사정·평가에 의해 합의된 규칙과 제한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⑫ 모든 집단활동은 구성원의 욕구와 흥미가 존중되고 이를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집단의 목적, 진단, 평가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⑬ 구성원 개개인의 욕구와 흥미, 집단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집단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도감독은 계속적인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평가는 지도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도자와 집단 구성원들이 상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상적이다.

⑭ 청소년활동에서 지도자 자신은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지도자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이상에 열거한 원칙들이 그의 성품에 내재되어 있고 완성되어져 나갈 때에 그에게 속한 청소년 집단활동은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Konopka는 이 원칙들의 전제로 집단지도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성품 다섯가지 즉 고도의 감정이입능력, 융통성, 개인과 극도의 복잡한 상황을 분석·사정할 수 있는 통찰력과 이성, 원만한 인간관계, 창의성을 지적하였다(남세진, 1986 : 109).

(3) 정기 집회의 운영

① 매 집회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청소년들이 기획 단계에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하는 물음에 충분하고도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목표들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정하고, 프로그램 방법들을 정한다. 매 집회마다 행동지침을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불우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목표들을 세웠다고 가정해 보자. 즉 첫째, 모든 사람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둘째, 청소년은 주변의

불우이웃을 돌보아야 한다. 셋째, 청소년 개개인은 불우이웃을 찾아가서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첫번째 목표는 매우 적법한 주장이지만 지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두번째 것은 너무 일반적이고 모호한 반면에, 세번째 목표는 보다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것이다. 청소년 활동에서는 행위를 통해 실현가능한 목표(doing objective)를 세우도록 한다.

② 프로그램은 사전에 작성해 두어야 한다. 청소년활동이라고 하여 모든 활동이 청소년에 의해 준비되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지도자가 준비한 프로그램일지라도 그것이 청소년의 욕구와 관심에 적합한 프로그램일 경우에 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들에 의해 진행되어지는 훌륭한 청소년활동이 되는 것이다.

③ 모든 집회는 청소년의 욕구와 흥미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모임의 주제와 프로그램의 종류를 결정하도록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④ 모든 집회는 인간 중심(person-oriented)이어야 한다. 참가자의 관심·욕구·흥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에 이를 인간 중심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은 언제나 인간중심이어야 한다.

⑤ 모든 집회는 경험중심(experience-oriented)이어야 한다. 청소년은 무엇이든 스스로 해보기를 원한다. 강의나 설교로 진행되는 주입식 교육으로는 청소년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청소년이 직접 보고, 느끼고, 해봄으로써 체험하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⑥ 모든 집회는 사전에 항상 홍보되어야 한다. 홍보의 의의는 청소년에게 집회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것 외에, 학부모·소속학교 또는 단체·지역사회·후원자들에게 청소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의미를 나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⑦ 집회는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모임의 주제·분위기·진행 등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늘 새로운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집회에 대한 평가는 활동의 전과정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지도자의 개입과 지도감독

(1) 청소년활동 지도자

청소년활동과 청소년활동 지도자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소년활동도 청소년활동 지도자(youth worker)와 청소년이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며, 동시에 청소년활동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은 절대적이지만 지도자와 청소년이 어떠한 모습으로 만남과 관계를 이루는가 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에 있어서 청소년 지도에 우선하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청소년과 지도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들에 의해 지도자의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지도감독은 커녕 개입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활동 지도자는 청소년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 아울러 선배로서의 권위와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YMCA가 조직캠핑(organized camping)을 통해 탄생한 이러한 지도자를 소위 ‘맏형(big brother)’이라고 부른다(전국재, 131-132). 맏형과 같은 지도력이란 형님 같이 자상하고 따스하면서도 형님으로서의 엄격함과 권위를 겸비한 지도자를 의미하는 말이다.

청소년활동 지도자는 어떤 경우에서든 자신의 주장이 청소년들보다 앞서서는 안된다. 테니스 코우치가 자기가 지도하는 선수가 실패하지 않다고 하여 그를 대신하여 코트에 나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합은 선수가 하는 것이다. 청소년활동 지도자는 테니스 선수가 시합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훈련을 시키는 코우치이듯이 청소년활동 지도자는 2선에 서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Powell, 1974 : 12).

이처럼 활동 지도자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어지는 활동의

과정에서 청소년들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므로 성숙한 인격과 섬세한 전문기술이 요구되어지는 전문분야인 것이다. 또한 청소년활동은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의 준비·진행과정 뿐만 아니라 마무리도 청소년들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활동의 숨겨져 있는 실질적인 주체자는 다름 아닌 지도자라고 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지도력을 갖춘 인물을 필자는 감추어진 지도자(hidden leader)라고 표현하였다(전국재, 132). 즉, 청소년을 교육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자율성과 창의성을 소유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이들과 동반자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로부터도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는 지도자, 지도력을 가까이 청소년에게 이전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지도자,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뚜렷한 소신과 철학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방법을 요구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도움자의 역할을 하는 청소년들 안에 감추어진 지도자가 청소년활동 지도자의 모습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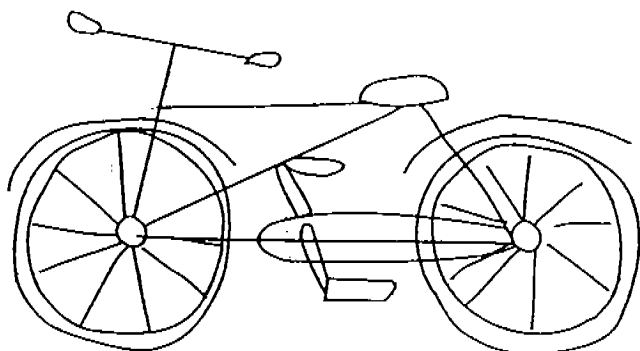
이러한 개방된 지도자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항상 열려져 있는 소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지도자가 교육하는 현장이 곧 학습의 현장이 된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에 의해 이들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적 활동과정은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재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때로는 자신이 확신하고 있던 가치관과 철학에 변화를 주고 성숙하게 되는 극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만나게 되는 지도자와 청소년과의 사이는 단순히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이분법적인 상하관계를 넘어서서 역할을 달리 하지만 동일한 가치창조를 위해 함께 매진하는 동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청소년활동 지도자가 청소년과의 원만한 만남을 이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은 교육을 위한 기초가 되고 기회를 제공할 뿐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지도자가 교육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고

권위에 대한 상호이해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에 관해 필자는 지도자와 청소년과의 관계성을 자전거에 비유하여 설명하여 보겠다(그림 3). 지도자가 자전거의 앞바퀴이라면 청소년은 뒷바퀴인 셈이다. 즉 두 바퀴는 어느 한 바퀴만 돌아서는 전진할 수가 없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바퀴가 모두 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두 바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중지하면 그 자전거는 쓰러지고 만다. 그러나 두 바퀴가 마냥 굴러가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전거가 예정된 목표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손잡이가 달린 앞 바퀴가 방향을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 자전거의 비유는 청소년활동에서의 감추어진 지도력과 지도자와 청소년과의 관계성을 훌륭히 시사하고 있다. 첫째, 지도자와 청소년은 모두 독립적인 개체이다. 둘째, 둘 사이는 상호 의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달려가야 하는 동반관계이다. 셋째, 둘 사이는 공동의 목적지를 가진 공동생명체이다. 넷째, 예정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인도와 도움이 필수적이다. 청소년활동 지도자와 청소년과의 만남과 관계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활동 지도자

청소년

〈그림 3〉

이러한 시각에서 강대근이 지적인 바람직한 청소년활동 지도자상이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자세, 즉 청소년과 자신에 대한 인간적 신뢰와 지도철학에 확신을 가진 전문가(professional), 격려자(encourager), 대화자(counselor), 촉진자(facilitator), 전달자(messenger)(강대근, 18-20)에다가, 이를 보다 세분화하는 의미에서 필자는 여기에 경청자(good listener), 도움자(helper), 통역자(translater) 이 세 가지를 첨가하고자 한다. 이는 지도자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2) 개입과 지도감독

청소년활동 지도자가 집단활동에 개입할 때에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들을 정리해 본다.

① 우선 지도자 자신이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터 진행·마감·평가하는 전과정에 참가하도록 한다. 청소년들의 눈에 지도자가 이들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dictator)로 보이거나, 그렇다고 이방인(outsider)이라는 느낌을 주어서도 안된다. 지도자는 청소년들로부터 이들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동반자라는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에 이들이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지도자의 주장이 청소년들보다 앞서서는 안된다. 개입시에 지도자는 아이디어를 하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하는 식으로 우회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③ 지도자는 개입 시에 반드시 문제점에 대한 정답을 제시해 주고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이러한 부담감도 떨쳐버려야 한다. 또한 자신의 주장과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 역시 금물이다. 원칙상 청소년활동에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④ 지도자는 활동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범하는 시행착오를 실패가 아니라 경험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이

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집단활동은 완벽한 공연을 준비하는 공연집단과는 성격을 달리해야 한다.

⑤ 청소년활동 지도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계속함으로써 전문적인 자문에 응하고 자료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지도자는 학부모, 소속 학교 또는 단체, 지역사회 등에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알려줌으로써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증진시키고 이들의 관심과 도움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지도자는 청소년활동의 전과정을 기록·보관해 둌으로써 이를 평가의 기초자료로 삼는다.

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1)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란 집단이 합의한 목적에 따라 이의 실현을 위해 순서를 짜고 예정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는 과정이다. 집단 내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성된 집단의 힘(group energy)을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단이 프로그램인 것이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집단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갖는다. 그것은 첫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개개인의 감정적 욕구(expressive functions)를 충족시키는 일이며, 둘째, 집단의 목적 달성의 수단(instrumental functions)이라고 볼 수 있다(유네스코, 227). 즉 집단 구성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와 흥미들(복수), 그리고 이들이 공동으로 수립한 목표(단수)를 동시에 충족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프로그램에 부여된 과제인 것이다.

프로그램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로그램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다만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며 과정일 뿐이라는 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복수)로 구성된 집단이 합의한 목표를 목적지(단수)에까지 그 내용을 실어 나르는 운반선(도구)과 항로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룹의 이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집단의 구성원들이 결집되어 발생되어진 집단의 힘을 목적하는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며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결속력이 더욱 강화되고, 만족감이 더해가고, 의욕이 고조되며, 판단력이 정확해지며, 목표가 뚜렷해지면서 결국 그룹의 목적을 성취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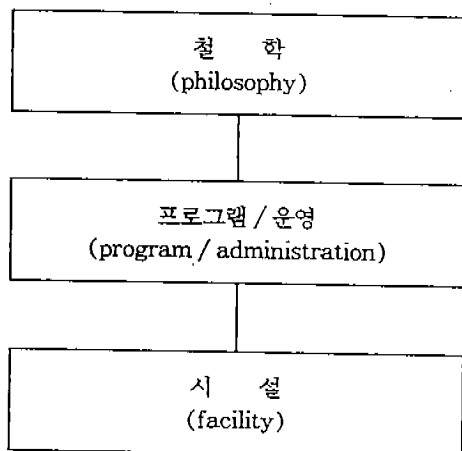
이처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집단이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위상은 단순히 목적을 실어나르는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1차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것을 알게 된다. 즉 프로그램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성원들 간의 인간관계, 상호작용, 경험 등 공식·비공식적인 모든 행위와 방법들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상적인 프로그램은 이미 단순한 매개수단을 넘어서서 내용상 목표와 일치한다는 역설적인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청소년활동에서 프로그램의 과정과 프로그램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구성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공식, 비공식적인 관계가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욕구와 흥미가 집단의 목적과 상충된다면 프로그램은 그 궤도를 이탈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욕구와 흥미, 그리고 집단의 목적달성 이 두 영역은 피차 영역을 침해할 수도 없고 일방적으로 추월해서도 안된다. 두 영역의 일치가 이루어져서 함께 성취되어질 때 비로소 프로그램의 소임을 다 했다고 하겠다. 청소년활동에서 과정을 더욱 중요시하는 이유가 여기

에 있다. 목적 달성만을 위해 그룹 구성원들이 소외당하거나 이들의 의견이 무시된다면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한 프로그램이다. 청소년활동에서 프로그램의 목적은 완성도가 높은 우수한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과정 그 자체가 경험의 장이며 교육의 기회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에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기준도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 개개인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웠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마땅하다 하겠다.

(2) 프로그램 작성의 기본 원리

미국의 대표적 캠프지도자 중 한 사람인 Dick Angelo는 서울에서 개최된 캠프세미나(1993년 5월)에서 “철학은 프로그램/운업을 지배하고, 프로그램과 운영은 시설을 지배한다”(philosophy directs program &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directs facility)고 하였다. <그림 4>는 철학(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포함함), 프로그램, 운영, 시설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즉 철학이 프로그램에 우선하고,



<그림 4>

시설은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이전의 단계, 달리 말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첫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왜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해답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하겠다.

안타깝게도 청소년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순서가 반대로 진행됨으로써 받는 손실이 엄청난 것이 사실이다.

우리 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시설들이 불합리하고 쓸모없는 공간이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다.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시설이 설계되어지는 것이 순서인데, 정반대로 시설물을 지어 놓고나서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수는 “왜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소홀히 한데에 있는 것이다.

일단 시설물이 지어지고 나면 프로그램은 시설물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프로그램 진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하나의 예로 환경교육단체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면 자연환경보전의 의미를 인간과 연계하여 생각하여 보고 환경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일 것이다. 그런 다음 설정된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이의 효과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시설물을 설계하고 배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이러한 순서가 지켜지는 경우에는 시공과정에서부터 땅을 마구 파헤치고 자연물을 훼손함으로써 스스로 심각한 모순을 범하는 따위의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철학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설계된 시설은 시설 그 자체에서 교육적인 메시지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3) 프로그램 작성시 고려사항

① 즐거움(fun) - 모든 프로그램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 즐거움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fun makes the other objectives

possible)라는 말이 있듯이 즐거움은 참가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원동력이다. 또한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즐거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청소년활동에서 즐거움의 요소를 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청소년활동은 그 자체가 즐거워야 하며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즐거움 그 자체가 훌륭한 목적이 된다(Turner, Jr. : 52).

② 경험 중심의 활동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완벽한 프로그램 수행과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가자(청소년)가 어떤 경험을 하였으며 어떻게 성장하였는가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청소년이 겪는 시행착오를 실패로 생각하기 보다는 경험의 기회를 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③ 융통성(flexibility) - 프로그램은 항상 예정된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여건과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④ 종합성 - 프로그램 작성에 필요한 각각의 기본요소는 한 분야에 지나지 않지만 일단 한 가지 요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종합적인 사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4) 프로그램 작성

가. 프로그램 기획과정

프로그램 기획은 설정한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욕구와 흥미, 집단의 크기와 구성원의 수준(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 장소, 시간, 지도력, 시설 및 장비, 재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프로그램 기획은 프로그램의 3요소인 프로그램의 목적, 집단 구성원, 지도자를 조화롭게 설계하는 과정인 것이다.

프로그램 기획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①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그 목표가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인지 윤리적으로 합당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한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② 클럽 구성원들의 욕구와 흥미를 조사하고 이를 존중하여 프로그램에 성실히 반영한다.

③ 프로그램의 목표와 구성원들의 욕구와 흥미가 서로 일치하고, 이들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결정한다.

④ 프로그램의 종류를 결정할 때 다음의 사항(지도력, 클럽 구성원의 자질과 수준, 조직, 시설, 장비, 예산, 시간 등)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무리 명분이 있고 훌륭해 보이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위의 고려사항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프로그램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⑤ 구성원의 경험과 역량을 검토하여 이에 맞는 수준의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⑥ 지도력, 구성원들의 자질과 수준, 조직, 시설, 장비, 예산,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프로그램의 종류를 결정한 다음에는 각 사항별로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⑦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프로그램의 형태를 결정한다.

⑧ 클럽 구성원들 간에 이를 수행할 담당자와 역할분담(job discription)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⑨ 프로그램 일정표와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⑩ 이상의 모든 과정은 반드시 문서화 해두고 담당 지도자의 결재를 받도록 한다.

청소년활동 지도자는 프로그램 기획과정에서부터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준비한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다. 청소년활동 지도자는 청소년들이 범하는 시행착오는 실패가 아

나라, 새로운 경험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교육의 기회로 삼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청소년활동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는 청소년들이 “왜 하는가?” 하는 질문을 자주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핵심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진취적 정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고나 행동이 언제나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모든 여건이 다 충족되어지는 경우도 드물거니와, 필요충분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청소년들이 창의성, 모험심, 그리고 진취적 기상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야 할 일은 한다는 진취적인 자세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풀어 나간다’는 젊은이다운 배짱을 갖추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합리적 사고는 오히려 이러한 난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다.

나. 프로그램 작성시 고려사항

- ① 무엇을 해야 하는가? (What) - 프로그램의 종류, 제목, 순서
- ② 왜 하는가? (Why) - 목적, 주제, 주안점
- ③ 언제 하는가? (When) - 예정 일시, 기간, 연중계획표와의 연계
- ④ 어디서 하는가? (Where) - 제1후보지, 장소 물색, 우천시나 급변한 상황을 대비한 제2후보지 물색
- ⑤ 누가 하는가? (Who) - 주최, 주관, 후원, 준비위원 구성, 책임자 및 임원 구성
- ⑥ 누구를 위해 하는가? (For Whom) - 참가자들의 대상, 성격, 수준, 참가인원
- ⑦ 어떻게 진행하는가? (How) - 역할 분담(부서, 조직, 업무 분담), 예산수립, 홍보방법,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등 (UNESCO, 233-235)

(5) 프로그램 실시과정

기독교청소년 지도자인 Terry Powell은 “청소년들은 방관자(spec-

tator)이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하는 일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활동에 참여하면서 성장한다. 그들은 지도(instruction)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표현(expression)할 필요가 있다”(Powell, 10)며 청소년활동에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였다.

청소년활동에서 완성도 높은 우수한 프로그램과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활동의 의의는 활동의 결과 보다는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할 것이다. 필자의 경험상 청소년활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저질러지는 실수는 지도자의 과욕 때문에 발생한다. 즉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다그치는 경우이다. 이런 지도자는 대부분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렴하기 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곤 한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참가자 전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참가자들 사이에 의견교환과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도록 한다.

⑤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하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위해 개인별 특징과 장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시킴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한다.

⑥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활동에 필요한 제반 준비물에 대한 점검을 마쳐둔다.

⑦ 계획했던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아무리 잘된 프로그램이라도 정해진 제한 시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면 그것은 실패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서 시간엄수는 절제의 덕을 익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평가

프로그램 평가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의 여부와 목적 수행으로서의 진행과정이 효율적인가를 사정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평가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작업이 되기 쉬우나, 특히 청소년활동에서의 평가는 프로그램 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청소년활동에서 평가과정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거나 또는 장애가 되는 요인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명해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평가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들이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어질 때에 비로소 평가의 소임을 다했다고 하겠다.

(1) 평가의 목적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은 수준 높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집단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은 좋은 결과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이를 위해 다른 것들이 희생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성원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들이 다양하고 유익한 경험들을 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면, 평가의 목적과 기준도 청소년들이 무엇을 느끼고, 어떤 종류의 경험을 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이 마땅하다.

(2) 평가 시기

평가시기는 프로그램 전과정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평가는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프로그램의 성패요인을 종합·검토하는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와 프로그램 실시 과정에서 계속적인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개선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한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로 나누어지며 청소년활동에서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진다.

총괄평가는 이미 발생, 종료된 일에 대한 사후 평가이므로 평가내용이 차후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는 될 수 있으나 진행과정에서 수정, 보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해당 프로그램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과정 평가라고 할 수 있는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평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평가를 통해 발견되어진 문제점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방향을 개선, 수정, 보완하는 데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Fitz-Gibbon & Morris : 12-14).

(3) 평가자

청소년활동에서 평가를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으로 여기고 청소년을 평가대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프로그램 평가 역시 지도자의 지도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도자는 활동의 주체인 청소년이 프로그램 과정상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방향을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돕는 자세가 요구된다. 청소년활동에서의 평가는 지도자가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사항을 청소년에게 하달하는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4) 평가 단계

평가는 지도자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수시로 청소년들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는 방법과 프로그램의 전과정을 문서로 작성하여 문서화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문서작성을 하는 목적은 기록을 보관한다는 것 외에, 문서 기록을 한다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진행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지도자 모두에게 평가의 기본자료를 제공해 준다는데 있다.

정기집회, 특별프로그램 진행 등 집단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는 사전에 지도자의 결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결재를 받는다는 것

은 행사진행 여부를 허락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재과정을 통하여 지도자가 지도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됨으로써 청소년들과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치는 기회가 된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결재는 집단활동의 프로그램을 공식화하는 과정이며 내부, 외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본문 요약

이 글에서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이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청소년활동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들이 주체가 되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반 체험중심의 집단활동으로 정의하였다.

관리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본연적인 임무는 청소년이 활동을 통하여 의미있고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바람직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온전한 인간(wholistic person)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데 있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의 종류는 크게 주최측 중심의 집단활동과 참가자 중심의 집단활동으로 나뉜다. 주최측 중심의 집단활동은 지도자가 주체가 되어 활동의 기획에서부터 정리·평가하는 전과정을 책임지는 형태이므로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가 극도로 제한을 받게되고 활동과정에서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참가자 중심의 집단활동은 말 그대로 집단 구성원이 주체가 되고 주최측(성인 지도자)은 표면상 객체가 되는 집단활동을 의미한다. 참가자 중심의 집단활동에서는 프로그램의 기획에서부터 정리·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구성원인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총괄·운영하고 지도자는 이들의 후견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집단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의사결정은 구성원의 욕구와 흥미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주최자 중심의 활동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경험중심의 활동이 가능한

환경과 이에 맞는 프로그램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청소년활동의 형태는 크게 집중식 프로그램과 분산식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진다. 집중식 프로그램은 주최측(sponsor) 또는 성인이 중심이 되어 주로 강의식으로 대그룹활동으로 진행되며, 분산식 프로그램은 참가자(participants)들이 주축이 되어 소그룹을 통하여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집중식 프로그램과 분산식 프로그램을 절충한 소위 절충식 프로그램(eclectic program)이 있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활동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체험중심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는 바 실제로 지도자(성인)의 역량은 청소년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도자가 청소년과 함께 뛰어나가는 과정에서 지도자는 어떠한 모습의 지도력을 발휘하는가에 있다고 하겠다. ‘청소년활동의 운영과 관리’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이들에 의해 진행되는 활동의 과정에서 지도자가 어떻게 개입하고 지도감독(supervision)하는가 하는 지도력과 연관하여 알아본다.

청소년활동의 운영에는 다음의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모든 청소년활동은 구성원의 욕구(needs)와 흥미(interests)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청소년활동에서 과정(process)은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청소년활동의 제반 과정은 청소년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활동 지도자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활동의 과정에서 청소년들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므로 성숙한 인격과 섬세한 전문기술이 요구되어지는 전문분야인 것이다. 자전거에 비유하면 앞바퀴인 지도자와 뒷바퀴인 청소년이 함께 굴러가야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집단이 합의한 목적에 따라 이의 실현을 위해 순서를 짜고 예정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는 과정이다. 프로그램의 기본원리는 철학이 프로그램과 운영을 지배하고, 프로그램과 운영은 시설을 지배

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즐거움, 경험중심의 활동, 융통성, 종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은 기획과 작성과정, 실시과정에서 유의할 점이 많다. 청소년활동의 평가는 평가의 목적, 시기, 평가자, 평가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

연구과제

1. 각자가 생각하는 청소년활동의 범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본다.
2. 주최측 중심의 집단활동과 참가자 중심의 집단활동을 비교한다.
3. 한국의 청소년수련활동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4. 청소년 야외수련활동에서 지도자와 청소년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제시한다.
5. 자신이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청소년활동중 한 사례를 선택하여 개발과 평가의 전과정을 연구한다.

참고문헌

- 강대근(1981), “바람직한 청소년활동 지도자상,” 청년연구 4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강대근, 전성민(1992), “청소년지도활동의 모형과 실제,” 청소년지도론, 한국청소년연구원
- 김정명 외(1991), 청소년활동 동기부여 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
- 남세진(1986), 집단지도방법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대한YMCA연맹(1960), 하이·소녀-Y 클럽지도서
- 문인숙(1988), 집단사회사업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박종삼(1988), “집단활동 이론의 중요개념,” 청소년집단활동의 지도, 한국청소년연맹

- 유네스코청년원, 씨어클 활동을 위한 일반이론, '81연수교재
- 유네스코청년원, 씨어클의 관리, 운영과 활동지침, '81연수교재
-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85), 청소년과 함께
- 전국재(1989), 캠핑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엠마오
- 전국재(1990), *Strategy of Camping Ministry in Korea*, Camp Forest Springs
- 전요섭(1986), 그룹지도방법, 백함출판사
- 조용하(1990), 청소년교육의 동향, 교육과학사
- Boyle, Patrick G.(1981), *Planning Better Programs*, McGraw-Hill Book Company
- Doty, Richard S.(1960), *The Character Dimension of Camping*, Association Press
- Fitz-Gibbon, C. T. & Morris, L. L.(1978), *How to Design a Program Evaluation*, SAGE Publications
- Kalisch, Kenneth R.(1979), *The Role of the Instructor*, HRC
- Powell, Terry(1974), *Making Youth Programs Go*, Victor Books
- Richards, Sawrence O.(1973), *You and Youth*, Moody Press
- Turner, Jr., Eugene A.(1985), *100 years of YMCA Camping*, YMCA of the USA
- Stone, J. David & Miller, R. M.(1985), *Volunteer Youth Workers*, Group Books
- YMCA of the USA, *Y-Basics*

청소년활동의 영역과 실제

청소년활동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영역화 시키기가 어려우며 몇 가지 분류의 준거나 기준에 따라 활동의 성격이 구분되거 분류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청소년활동을 활동목표, 활동주체, 활동형태, 활동방법, 활동내용 등에 따라 분류하여 관련활동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활동목표별 분류	활동주체별 분류	활동형태별 분류	활동방법별 분류	활동내용별 분류
• 건강증진 활동 • 정서함양 활동 • 용기배양 활동 • 협동심배양 활동 • 도덕성배양 활동 • 창의성함양 활동 • 사회성함양 활동 • 자질계발활동 등	• 지도자 중심 활동 • 참여 청소년 중심활동	• 특별활동 등 • 단체활동 • 임의여가 활동 • 동아리활동 등	• 집단활동 • 개별활동 등	• 스포츠활동 • 문화활동 • 봉사활동 • 야외활동 • 인간관계수련활동 • 전통문화 활동 • 예절활동 • 과학탐구 활동 •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등

표에서 제시된 다양한 분류의 방식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의 내용과 실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활동내용별 분류에 따라 활동을 영역화 시켜서 그 구체적인 성격을 파악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제3부에서는 활동내용별 분류기준에 따른 대표적인 유형의 활동들을 선정하여 각 개별적인 활동의 개념, 원리, 현황들을 개관하고 각 활동을 재분류하여 개별 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대표적인 활동프로그램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지도자나 청소년들이 각 활동들을 직접 실시하고 경험해 보고자 할 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활동의 실시기관이나 관련 자료들이 보다 상세하게 소개될 것이다.

3.1

스포츠활동

개 관

스포츠 및 이와 유사한 용어들인 체육, 놀이, 게임, 여가, 레크리에이션 등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본 후 스포츠가 갖고 있는 가치 및 기능을 각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가치와 사회정서적, 사회화, 사회통합, 사회이동, 문화주입 기능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스포츠를 참여자의 심리적 태도에 의해 분류한 Caillios의 유형과 스포츠를 우월성 추구를 위한 욕구에 따라 분류한 McIntosh의 유형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외에도 스포츠를 참가자의 수, 활동내용 및 장소, 미래스포츠의 관점, 기타 등으로 영역화하여 각 영역별 스포츠유형 및 종목 그리고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스포츠 활동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통해 앞으로 청소년스포츠가 나아갈 발전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주 제 어

스포츠, 체육, 놀이, 게임, 여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의 가치와 기능, 경쟁스포츠, 확률스포츠, 의태스포츠, 모험스포츠, 기능스포츠, 투쟁스포츠, 극복스포츠, 기술스포츠, 자연스포츠, 청소년 스포츠활동의 활성화

* 구창모,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1. 스포츠활동의 특성 및 의의

1) 스포츠 및 그 유사 개념

최근 들어 스포츠에 대한 용어는 우리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채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되었다. 그러나 자주 사용되어지는 것과는 달리 그 개념 및 의미는 사용하는 사람마다, 혹은 쓰이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스포츠와 유사한 체육, 놀이, 게임, 여가, 레크리에이션 등의 용어들과 혼용되어 함께 사용됨으로써 정확한 의미 전달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스포츠 및 그 유사한 용어의 개념 정립을 통해, 앞으로 보다 폭넓게 언급될 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체육 : 일반적으로 체육이란 신체활동을 중요한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교육의 한 영역이다.

(2) 놀이 : 놀이란 임의의 공간적, 시간적 한계 내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의 역할, 관심사 및 영향을 벗어나 분리된, 또한 놀이 그 자체의 한계 내에서 요구되어지는 것 이상의 진지하고 의도적이며, 현실과 분리된 개별활동(Edwards, 1973)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놀이란 허구적이고 비생산적이며, 자유롭게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활동이다.

(3) 게임 : 게임이란 단순 혹은 복합적인 신체기능, 기술, 확률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지워지는 놀이 형태의 경쟁(Loy, 1969)으로서 양측 또는 그 이상의 상대방 사이에 미리 정한 승부의 결정 기준에 의한 조직적이고 경쟁적인 신체운동적 놀이(Ibrahim, 1975)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게임은 허구적이고 비생산적이며, 현실 생활과 분리된 비현실의 세계이고,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며, 규칙에 의하여 통제되고, 결과는 신체기능, 확률 또는 기술적 사고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쟁적인 인

간의 활동이다.

(4) 여가: 여가란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시간으로서 참가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발전을 위해 행해지는 자발적인 활동(위성식, 1991)이다.

(5)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이란 각자가 선택한 활동에 스스로 참가하여 직접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자기표현의 기회를 발견하고, 쉬고, 즐기며, 기쁨을 얻으며, 새로운 생활 영위에 보탬이 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여가선용의 활동(이준수 외, 1987)이다.

(6) 스포츠: 스포츠는 비록 놀이나 게임이 가지는 특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하여도 그것과는 다른 별개의 영역으로, 항상 신체적 활동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Lawther (1972)는 스포츠란 쾌감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활동 그 자체를 추구하거나 또는 보편적으로 일정한 전통적인 형태 혹은 일련의 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확실한 신체활동이라 하였으며, Kenyon(1974)은 스포츠란 놀이나 게임보다 더 체계화되고 고도의 조직성을 띤 경쟁적인 활동으로서 특히 신체의 일부분만을 구사하는 동작이나 운동에 그치는 활동이 아닌 인간의 전행위가 동원된 신체활동이라고 하였다. 즉 스포츠란 허구적이고 비생산적이며, 현실생활과 분리된 세계이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규칙에 의해서 통제되며, 전술과 결합된 신체기능과 신체기량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경쟁적인 인간의 표현활동(임번장, 1979)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스포츠활동의 가치와 기능

스포츠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얻어지는 경험에 대하여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Levy(1952)는 아동기의 경쟁적 스포츠 참가는 사회구조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 Lever(1976)와 Duquin(1977)

은 아동기의 스포츠 경험은 대인경쟁, 리더쉽, 집단생활 및 전략적 사고 등과 같은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직기능을 학습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는 스포츠의 가치 및 기능을 각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가치와 사회정서적, 사회화, 사회통합, 사회이동, 문화주입 기능으로 분류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스포츠의 가치

가. 심리적 가치

스포츠활동은 유희적 및 오락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정서적 휴식이나 창조성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에 중요하며 모든 청소년은 어떤 형태이든 신체활동에 참가할 필요가 있으며, 신체활동에서 학습되는 경험은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 스포츠의 심리적 가치에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태도의 형성, 사회적응력 배양, 감각지각과 반응의 향상, 정신건강의 향상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나. 사회적 가치

스포츠는 페어플레이의 가치와 민주적 과정의 가치를 예시해 주며, 집단활동을 통해 스포츠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집단목표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가 속한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 집단의 기본적인 가치관에 관계없이 나는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등을 느끼게 된다. 또한 스포츠는 국민정신을 표출하는 수단인 동시에 서로 이질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나라간의 차이점을 신체적 의사소통을 통해 동질화시키며 국가결속을 유지하는 상징적 의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는 인격형성, 국민정신 함양, 건전한 경쟁심 함양, 충성심 및 인내심 배양 등을 들 수 있다.

다. 문화적 가치

스포츠 활동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합법적으로 표출시키는 수단이

므로 스포츠 참여의 기회는 투쟁 본능의 충족을 위한 욕구에 대해 건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회가 된다. Greetz(1972)는 스포츠가 사회학적으로 중요시되는 문화적 가치, 신분체제 및 기타 문화적 제 측면을 조망해 줄 수 있는 매체를 제공해 준다고 강조함으로써 스포츠가 전체 사회구성원에게 사회·문화적 가치를 전달해 주는 중요한 사회체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 활동, 여가추구를 용의주도하게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추는데 활용된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세뇌하거나 권위에 대한 복종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국가가 의도하는 목적에 동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임번장, 1986). 이러한 의미에서 스포츠의 문화적 가치는 사회통합 및 자기 통제능력 배양 등을 들 수 있다.

라. 신체적 가치

인간은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정신적 신체활동이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기에는 이의 활동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즉,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육의 속도가 빠르며, 신체적 활동의 욕구가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때문에 마음껏 뛰고 활동하려는 충동에 예민하며 자기표현이나 자아의 실현으로서 활동의 요구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신체활동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중요한 것이며, 이의 가장 바람직한 활동은 스포츠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신체적, 생리적 형태 및 기능의 발달적인 면은 물론 왕성한 체력의 유지·증진 및 건강향상이라는 본원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스포츠의 신체적 가치로 설명할 수 있겠다.

(2) 스포츠의 기능

가. 사회정서적 기능

사회정서적 기능이란 개인의 사회심리적 안정 즉 사회적, 심리적인 적응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안정된 기능은 그가 심리적, 사회적으로 잘 적응된 상태에 있는

가와 관계가 깊으며, 개인은 그가 속한 사회 안에서 규범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행동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의 사회정서적 기능으로는 긴장과 갈등의 조절, 연대감 및 동질감 창출, 축제성(ritualism) 등을 들 수 있다(Stevenson and Nixon, 1976).

나. 사회화 기능

사회화란 개인이 사회집단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적 제도·지식, 규범 등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취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사회체계로서의 스포츠를 전체 사회에 대해 의미있는 소우주(microcosm)로 이해한다면(Kenyon and McPherson, 1981), 스포츠 사회화는 사회화의 일반적인 개념과 같이 스포츠라는 소사회에서 스포츠를 통해 특정 집단의 가치, 신념, 태도 등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학습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유형지우고 자신의 위치에 상응하는 많은 역할을 지니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의 사회화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는 관습과 신념의 반영, 강화와 모형의 역할, 사회화 주관자로서의 기능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다. 사회통합 기능

Luschen(1967)에 의하면 스포츠는 실제로 참가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 제도내에 있는 구성원 모두에게 통합의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회통합 기능이란 각기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사회구성원을 집단 속으로 조화롭게 흡수하고 그 집단성으로서 개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스포츠 활동의 참가에 있어 한 팀의 구성원이 되거나 클럽의 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을 그 팀이나 클럽속으로 통합하기에 충분한 대인 결속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집단은 팀이나 클럽의 형태를 취할 뿐만 아니라 학교, 도시, 지역사회 심지어 국가의 형태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참가자는 이들 집단과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면 이보다 큰 집단속으로 통합된다.

라. 사회이동 기능

사회이동이란 계급간의 움직임을 말하며, 스포츠의 바람직한 기능중

의 하나로 상승적 사회이동을 들 수 있다. 상승적 사회이동이란 한 개인이 새로운 사회부류에 속하게 되는 것으로 개인이 사회적 위계서열에서 전보다 높은 지위를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임번장, 1986).

여러 나라에서 스포츠가 보다 적은 혜택 속에 있는 사회구성원 즉 가난하고 인종적, 민족적으로 열세한 집단에서 사회이동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Loy, 1969). 그러나 스포츠를 통한 사회이동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으며, 어느 사회가 전적으로 귀속적이라면 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스포츠를 통해 이동의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 대부분의 현대 산업국가가 본질적으로 성취지향적이지만 아직도 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다. 가장 성취지향적인 사회에서도 그 주민중 어느 집단은 사회 이동에 접근할 수 없거나 또는 적어도 동등하게 접근할 수 없다(Harris, 1970).

마. 문화주입 기능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스포츠 활동 특히, 놀이와 게임에 참가하여 얻는 경험은 일반 사회생활의 경험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며, 이 점에 의해 특정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화를 구체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스포츠의 문화주입 기능은 개인적으로 심신의 성장, 발달을 촉진시키며, 여러 가지 인간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사회적으로 사회활동에 필요한 행동의 규율과 양식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문화주입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스포츠는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일반 성취사회의 지배적 가치이념을 제공하는 문화주입에 기여함으로써 성인기에 성취사회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장차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훈련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Roberts & Sutton-Smith, 1962).

2. 스포츠활동의 분류

스포츠활동에 대한 유형은 학자의 견해에 따라 혹은 활동 참여자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류된다. 이러한 스포츠의 분류는 Caillois(1961)나 McIntosh(1976)의 분류를 예로 들 수 있겠으며, 혹은 참가자의 수나 활동내용 및 장소, 그리고 미래스포츠의 관점 등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1) Caillois의 분류

(1) 경쟁스포츠(agon) : 경쟁의 대상은 스피드, 지구력, 근력, 기술, 정확성 등의 기능이며,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려는 욕구가 주 원동력으로서 개인이나 집단이 경쟁의 형태를 취하는 스포츠를 의미한다.

(2) 확률스포츠(alea) : 운이나 우연에 결과를 맡기는 확률적인 놀이로서 경쟁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평등한 규칙에 의하나 경쟁스포츠가 오로지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여 승리를 추구하는데 비해 확률스포츠는 자신의 능력을 무시한 채 운이나 우연성에 모두를 맡기는 유형을 말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스포츠의 영역에 포함시키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3) 의태스포츠(mimicry) : 의태스포츠는 모방 또는 가장놀이로서 자신의 인격을 일시적으로 망각하고 위장해서 타인이 되어 느끼는 해방의 기쁨이 활동의 근원이 되는 스포츠유형이나 이 역시 스포츠로 분류하기엔 어렵다고 보여진다.

(4) 모험스포츠(ilinx) : 모험스포츠는 감각이나 지각의 안정을 파괴하고 의식상태를 혼란에 빠뜨려 어지러움이나 짜릿한 현기를 추구하는 놀이로서, 일시적으로 현실과 자신과의 관계를 통제하고 가벼운 공포를 즐기는 스포츠를 의미한다.

2) McIntosh의 분류

(1) 기능스포츠(skill) : 사전에 동의한 상황내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팀이 상대방이나 상대팀에게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나 자신의 팀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동원하여 경쟁을 겨루는 스포츠를 말한다.

(2) 투쟁스포츠(combat) : 투쟁스포츠는 손이나 발 혹은 신체를 통한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검 또는 봉을 통한 간접적인 접촉이 투쟁스포츠가 독자적인 영역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투쟁스포츠에 있어서는 자신과 상대가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기술의 단위는 이 양자의 활동 전체가 포함된다.

(3) 극복스포츠(conquest) : 극복스포츠에서의 극복의 대상은 상대방이나 집단에 의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등산과 같은 자연에의 도전을 의미하는 모든 스포츠를 포함한다.

3) 참가자 수에 의한 분류

(1) 개인스포츠 : 개인스포츠란 팀스포츠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특정한 상대방과의 우열을 가리기 보다는 자신의 기록이나 기능에 의해 다른 참가자와 승부를 결정짓는 스포츠 유형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스포츠에는 수영, 스키, 골프, 보울링, 승마, 빙상, 사격, 양궁 등의 여러 종목이 있다. 그러나 개인스포츠의 경우에도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종합된 점수나 기록에 의해 평가될 경우에는 팀스포츠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2) 대인스포츠 : 대인스포츠는 개인스포츠와 같이 혼자서 참가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나 특정한 경쟁 상대와 우열을 가린다는 것이 구별되는 점이다. 이러한 대인스포츠에는 테니스, 탁구, 펜싱, 배드민턴, 유도, 레슬링, 권투, 씨름 등의 종목이 있다. 그러나 대인스포츠의 경우에도 단식 혹은 복식의 제도나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팀스포츠의

특성을 갖는 경우도 있다.

(3) 팀스포츠 : 팀스포츠는 개인 및 대인스포츠와는 달리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2명 이상이 팀을 이루어 참가하게 되는 스포츠를 말한다. 이러한 팀스포츠에는 축구, 농구, 배구, 야구, 핸드볼, 수구, 필드하키 등의 종목이 해당된다.

4) 활동내용 및 장소에 의한 분류

(1) 구기스포츠 : 구기스포츠란 여러 가지의 볼을 이용한 종목을 일컫는 것으로 이에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야구, 하키,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크리켓 등이 있다.

(2) 격기스포츠 : 격기스포츠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도구를 이용한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승부를 겨루는 종목으로 투기스포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격기스포츠에는 유도, 태권도, 씨름, 레슬링, 복싱, 펜싱, 검도 등의 종목들이 있다.

(3) 산악스포츠 : 산악스포츠란 산이나 언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등산, 암벽등반, 스키, 하이킹, 오리엔티어링 등을 들 수 있다.

(4) 수상스포츠 : 수상스포츠란 바다, 강, 계곡, 실내풀장 등 물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이에 수영, 윈영, 요트, 세일보드, 조정, 카누, 단정, 고무보트, 스킨스쿠바 다이빙, 수상스키 등을 들 수 있다.

(5) 항공스포츠 : 항공스포츠란 지면을 떠나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글라이더,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열기구, 모형항공기, 스카이다이빙 등을 들 수 있다.

5) 미래스포츠의 분류

(1) 기술스포츠(technosport) : 테크노스포츠란 기술발전에 근거를 둔 스포츠 형태로서 미래의 기술발전은 선수들의 초인적인 힘과 인내

력을 개발할 수 있는 화학적, 기계적인 방법을 고안·보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간의 신체는 기계적으로 운동수행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될 것이며, 신경계에 연결된 휴대용 충전점질팩은 타박상에 의한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므로써 운동상해가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발휘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의 미래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이는 기술과 스포츠의 결합은 선수나 관중에게 스포츠 경험의 결정적인 부분을 파괴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술스포츠는 완전한 운동수행력을 위해 선수의 창조력이나 잠재력과 같은 인간적인 요소를 제거시키거나 감소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스포츠 관중의 근본적인 관심은 자신이 보고 있는 선수가 본인과 얼마나 유사한가에 있을 뿐 아니라 선수가 관중에게 비인간적인 모습을 비칠 때 스포츠는 그 상업적인 가치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테크노스포츠의 발전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자연스포츠(ecosport) : 에코스포츠란 비조직적이고 자연적인 놀이로서 유흥적 행동이 중심이 되어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히 개방적인 스포츠 형태를 의미한다. 즉 즉흥적인 행동을 강조하며 행동의 구조는 규칙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기 보다는 돌발적이고, 스포츠활동의 목적은 참여와 협동에 있는 것이지 어떤 경쟁이나 영광 및 보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자연스포츠는 현대인들이 인위적인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산, 바다, 강, 호수, 하늘 등의 자연을 찾고 싶어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는 하이킹, 오리엔티어링, 암벽등반, 스쿠바다이빙,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등의 종목들이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스포츠활동의 개인적인 참여를 즐기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의 능력이나 운동수행 수준에 대해 자신과 비교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적 가치가 수반되지 않는 자연스포츠를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6) 기타 분류

(1) 레저스포츠 : 레저스포츠란 여가시간을 통해 쉽게 즐길 수 있는 즉 여가활동으로서의 의미가 강한 스포츠종목으로, 각 개인의 여가기능 및 취미 그리고 활동 여건에 따라 다양한 활동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레저스포츠라 할 때는 당구, 족구, 탁구, 수영, 등산, 테니스, 낚시 등의 종목들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청소년들에게 볼링, 스키, 행글라이딩, 수상스키, 윈드서핑 등과 같은 고급스포츠 종목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2) 계절스포츠 : 계절스포츠란 다른 종목에 비해 계절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활동으로 이에 는 수영, 수상스키, 보트, 카누, 스킨스쿠바 다이빙 등의 여름용 스포츠와 빙상, 스키 등의 겨울스포츠가 있다. 그러나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 및 현대인들의 여가관의 변화로 계절스포츠 본래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3. 청소년 스포츠활동의 활성화 방안

이상에서 스포츠 및 그 유사 용어에 대한 개념과 스포츠가 갖고 있는 가치 및 기능,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와 분류별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스포츠활동을 청소년과 관련지어 그에 따른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1) 문제점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성장과정 속에서 자신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생활을 개척해 나가기 보다는 부모 및 학교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작되어진 발달과정의 틀에 구속된 채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청소년기

를 인정해 주고, 생활의 폭을 넓혀주며, 활동경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스포츠 등의 여가활동을 보장해 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리 희망적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현대사회의 도시화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연적 놀이공간의 상대적인 축소와 성인들의 위락시설 급증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의 증가는 학교 밖의 청소년 여가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과정의 연장시간 만큼 여가시간이 감소되어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구창모, 1993). 이러한 청소년 스포츠활동의 제약은 참여시간의 부족 외에도 스포츠 프로그램의 다양성 결여 및 운영의 경직성, 체육시설의 양적·질적 수준의 미흡, 체육지도자 활용상의 문제점,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클럽의 부재 및 상업성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 활성화 방안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이 관련된 다차원적인 사항으로써 특정 분야에 대한 해결만으로는 그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 스포츠활동의 활성화 방안은 다각적인 관점에서 중·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구분·병행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 요구되나 여기서는 한정된 지면 관계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스포츠활동에 대한 재인식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청소년 스포츠활동의 성패는 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활동내용 및 방법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결국 스포츠활동에 대한 홍보와 직결되는데, 효과적인 홍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포츠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주의를 끌게하여 욕구를 불러 일으키게 하고 끝내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둘째, 다양한 스포츠활동의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포츠활동의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면서도 단순한 욕구의 발산에 그치지 않고, 평생에 걸쳐 자기발전의 전부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전인교육적인 차원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상황적 요소와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적, 심리적 발달 단계에 적합한 내용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청소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지, 어느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인의 요구와 흥미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관람용이나 일방적인 강의식 전달 프로그램보다는 청소년 자신의 직접 체험을 통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스포츠시설 및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단계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스포츠시설은 청소년의 스포츠활동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활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적 측면에서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시설확충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시설 및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일차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 시설의 관리, 유지, 보수를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 있는 학교, 종교단체시설, 공공기관시설, 올림픽 관련시설 등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시설의 경직된 관리운영 제도의 개선, 이용률 제고를 위한 능동적 대처, 수지율 개선을 위한 자체 수익사업 개발의 추진, 시설관리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스포츠활동에의 참여를 위한 기회 및 시간을 확대·보장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소년 스포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제도적으로 활동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현행 입시제도 및 학업위주의 교육풍토를 고려해 볼 때 사실상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학교제도 내에서의 활동이외에 방과후 과외자유활동이나 스포츠클럽을 이용한 단체활동 등을 적극 권장할 것이 요구된다.

본문 요약

스포츠는 비록 놀이나 게임이 가지는 특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하여도 그것과는 다른 별개의 영역으로, 항상 신체적 활동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스포츠란 허구적이고 비생산적이며, 현실생활과 분리된 세계이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규칙에 의해서 통제되며, 전술과 결합된 신체기능 및 신체기량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경쟁적인 인간의 표현활동이다. 이러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므로써 청소년들은 사회적응력 배양, 정신건강의 향상 등 심리적인 면 뿐만 아니라 인격형성, 국민정신 및 건전한 경쟁심 함양 등의 사회적 가치를 배우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육의 속도가 빠르며, 신체적 활동의 욕구가 가장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마음껏 뛰고 활동하려는 충동에 예민하며, 자기표현이나 자아의 실현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신체활동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중요한 것이며, 이의 가장 바람직한 활동은 스포츠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스포츠는 사회정서적 기능, 사회화 기능, 사회통합 기능, 사회이동 기능, 문화주입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어, 스포츠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생활필수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스포츠는 Caillois가 참여자의 심리적 태도에 따라 경쟁스포츠, 확률스포츠, 의태스포츠, 모험스포츠로 분류하였으며, McIntosh는 우월성 추구를 위한 욕구에 따라 기능스포츠, 투쟁스포츠, 극복스포츠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외에도 참가자의 수에 따라 개인스포츠, 대인스

포츠, 팀스포츠로 나눌 수 있으며, 활동내용 및 장소에 의해 구기스포츠, 격기스포츠, 산악스포츠, 수상스포츠, 항공스포츠로 구분되기도 한다. 또한 미래스포츠의 관점에서 기술스포츠와 자연스포츠로 그 밖에 레저스포츠, 계절스포츠 등 분류하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끝으로 스포츠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보다 폭넓게 확대되기 위해선 스포츠에 대한 재인식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의 개발, 스포츠시설 및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단계적 확충 그리고 스포츠활동 참여를 위한 기회 및 시간보장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스포츠지도자의 양성 및 처우개선, 스포츠클럽간의 연계체제 확립 및 국가적인 지원책의 마련 등 스포츠활동과 관련된 주변 여건 및 환경이 장단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과제

1. 스포츠와 그 유사 개념 즉 체육, 놀이, 게임, 여가, 레크리에이션 등에 대해 정의 및 특성을 비교·설명한다.
2. 스포츠의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3. 스포츠의 기능에 대해 논의한다.
4. 스포츠 분류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과 연구결과를 조사한다.
5. 청소년 스포츠활동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참고문헌

- 구창모(1993), 청소년의 수련활동 활성화 방안, 청소년육성세미나 발표논문, 문화체육부
- 위성식(1991), 사회체육개론, 교학연구사
- 이준수 외(1987), 레크리에이션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임번장(1979), 스포츠 및 그 유사 개념의 정의와 분류에 관한 고찰, 스포츠사회학 강의노트

- 임번장(1986), “청소년비행과 스포츠,” 청소년과 사회체육, 한국사회체육진흥회
- Caillois, R.(1961), *Man, Play, and Games*, Translated by Meyer Barash, New York : The Free Press
- Duquin, M.(1977), Differential sexrole socialization toward amplitude appropriation, *Research Quarterly*, 48
- Edwards, H.(1973), *Sociology of Sport*, Homewood, Illinois : The Dorsey Press
- Greetz, C.(1972), *Deep Play: Notes on the Balinese Cockfight*, Deadelus
- Ibrahim, H.(1975), *Sport and Society*, Long Beach, Cal : Hwong Publishing Company, Inc
- Kenyon, G. S.(1974), A Sociology of Sport : On Becoming A Sub-Discipline, In *Sport and American Society*, 2nd Ed., edited by Geroge H. Sage, Reading, Massachusetts :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Kenyon, G. S., and McPherson, B. D.(1981), Becoming involved in physical activity and sport : A process of socialization, In J. W. Loy and B. D. Kenyon(Eds.), *Sport, Culture and Society*, Philadelphia
- Lawther, J. D.(1972), *Sport Psychology*, Englwood Cliffs, N.J. : Prentice-Hall, Inc
- Lever, J.(1976), Sex differences in the games children play, *Social Problems*, 23
- Levy, M. J.(1952), *The Structure of Societ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oy, J. W.(1969), The Nature of Sport, In *Sport, Culture, and Society*, eds, by John W. Loy, and Gerald S. Kenyon, New

-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Luschen, G.(1967), The Interdependence of Sport and Cultur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AAHPER Meeting
- McIntosh, P. C.(1976), Theories of How and Why, in *Sport in the Sociocultural Process*, 2nd Ed, edited by Marie Hart, Du-
buque, Iowa : Wm.C. Brown Co, Publishers
- Roberts, J., and Sutton-Smith, B.(1962), Child Training and game
involvement, *Ethnology*, (1)

[자 료]

스포츠활동 관련 문헌

- 고영복 외(1980), 청소년의 여가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국무총리 기
획조정실
- 구창모(1985), 사회계층에 따른 스포츠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창모(1991), “청소년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방향”, 체육과
학, 제37호
- 구창모(1992), 청소년 여가의 활성화 방안, 청소년육성세미나 발표논문
- 구창모(1993), 청소년의 수련활동 활성화 방안, 청소년육성세미나 발
표논문
- 김경철(1987),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보경문화사
- 김동진(1988), 스포츠 태도의 형성 요인에 대한 분석, 한양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명 외(1991), 청소년전용 놀이마당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
청소년연구원
- 김종선(1986), 한국에 있어서 청소년 스포츠의 중요성, '86 서울 아시
안 게임 스포츠과학 학술대회

- 김종선(1986), “청소년의 여가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청소년과 사회체육, 한국사회체육진흥회
- 박명운 외(1991), 청소년 수련거리 실태조사 및 개발방향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박원임(1990), “놀이문화 발달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제 연구보고서, 제8집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1984), 여가교육,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 오영석(1981), 고등학교 학생들의 운동에 대한 태도 조사분석,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성식 외(1991), 사회체육활동의 구성 방법론, 한국학술자료사
- 유창하(1987), 현대사회체육, 나남출판사
- 이종영(1992),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지도자의 양성과 활용방안, 제11회 국민체육진흥세미나
- 이종각(1988), 현대사회와 레크리에이션, 보경문화사
- 이준수 외(1987), 레크리에이션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준수 외(1990), “사관학교 생도의 여가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29권
- 임변장(1981), “스포츠 및 그 유사개념의 정의와 분류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제19집
- 임변장(1987), '88올림픽 이후 사회체육의 발전방향, 제6회 국민체육진흥세미나
- 임변장(1989), 스포츠사회학 강의노트, 미간행물
- 임변장(1990), 21세기 한국체육/스포츠의 전망 : 사회학적 관점, 경북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제1차 체육과학 학술발표회
- 임변장(1991), “생활체육의 의의 및 필요성”,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과학, 제35호
- 임변장(1992), 미래사회와 생활체육, 제11회 국민체육진흥세미나
- 장주호(1985), Sport for all 운동의 발전배경과 원리, 한양대 학술세

미나

장주호(1988), 평생교육 실천을 위한 사회체육의 활성화 방안, 제3회

국민체육진흥세미나

체육청소년부(1986), 국민체육진흥장기기본계획, 서울대학교 체육연

구소

체육청소년부(1987), 각국의 생활체육, 체육청소년부

체육청소년부(1988),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체육청소년부(1989), 국민경기종목개발연구,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한상덕(1989), “청소년 선도를 위한 사회체육의 활성화 방안”, 한국

체육학회지, 제28권

한성일 외(1987), 사회체육, 동화문화사

한양순(1987), “사회체육과 청소년정책”, 이화체육논집, 제1권

한양순(1989), 여가선용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한 시설, 제3회 청

소년상 심포지움, YMCA

한양순 외(1991), 사회체육개론, 교학연구사

홍석표(1991),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인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2

문화활동

개 관

문화활동으로써 음악, 무용, 연극, 문학 등이 청소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활동의 범위는 무엇이고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청소년들 보다도 그 지도자가 먼저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문화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개인의 특질에 따라 인간의 잠재능력을 개발시키고 창조적 통찰력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통합적 인격을 형성할 수 있고 또한 사회와 자신간의 유기적인 통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문화활동은 창작이나 감상 등을 가르치는 일, 즉 좁은 의미의 예술교육에 국한되기 보다는 예술적 정신이나 문화의 모든 분야와 관련된 포괄적인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지도자는 예술의 어떤 영역에 대한 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나 분야별로 전문가와 함께 일해야 하고 청소년의 환경을 바람직한 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제어

예술교육, 음악지도 단계, 대중가요, 가라오케, 노가바, 자기가 만든 악기, 춤과 탄하, 디스코텍, 브레이크 댄스, 교육연극, 드라마와 연극, 청소년 전용극장, 문학교육

* 임광진, 서울 YMCA 기획행정국장

1. 음 악

청소년의 문화활동 중에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음악활동이라 하겠다. 그러나 음악은 교육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배우고 즐기며 또는 연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음악활동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터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노래를 듣고 즐기며 흥얼거리고 따라하며 리듬에 맞추어 몸짓까지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음악과 관련된 환경이나 기성세대의 태도가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음악활동을 오히려 막고 있다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들려 주고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고는 있지만, 그 목적이 개성적이고 창조적으로 사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들의 취미나 능력을 개발해 주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청소년들은 상업적이고 대중문화적인 음악환경에 그냥 방치되어 있거나 가라오케와 같은 전자기계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언제, 어느 때든지 아무 곳에서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음악에 관한 한 어떠한 성인들로부터 교육이나 안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활동이야 말로 지도하기가 쉬워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아주 어려운 영역이라고 하겠다.

음악활동은 크게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 크게 넷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여기에 국악을 별도로 추가해서 생각할 수 있다.

1) 가 창

가창이란 혼자서 노래하는 독창과 함께 부르는 중창, 돌림노래, 합창을 말하는데 가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음악은 가창

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음악활동 중에서도 가창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스스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서 노래를 더 잘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먼저, 노래는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남의 노래를 흉내내서 부르거나 틀에 박힌 것도 기계적으로 조작되는 전자매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짜여진 영상과 자막, 반주를 따라 그냥 불러져서는 더욱 안된다.

노래 부르는 것 역시 음악지도 단계에 따라서 노래에 대한 강한 내재적 동기를 갖게 하고 노래의 분위기, 가사내용, 작곡동기, 다른 이들이 부른 것 들어보기와 같은 도입의 단계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는 노래 자체에 대한 리듬, 박자, 음정, 화음 등이나 노래를 부르기 위한 발성, 호흡, 발음 등 기초기능을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악보 읽는 법과 청기력의 지도, 관련 음악용어나 박자에 대한 공부, 이에 따라 노래하는 법 가르치기.(물론 여기에도 리듬읽기 및 치기, 리듬붙여 가사 읽기, 리듬과 가락에 맞춰 가사로 노래부르기 등의 단계가 있음) 등의 가락 익히기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곡의 느낌을 살펴보고 노래가사의 표현방법을 연구하며, 새로운 창법으로 노래하게 하거나 남의 노래를 듣고 분석하게 하며, 노래로서 자기 느낌을 남에게 전달하고 몸 전체로 느낌을 노래하게 하는 등 노래의 즉흥표현이나 노래의 감정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부르게 하는 창조적 표현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은 내면화하는 단계로서 가사의 전달, 악곡의 클라이막스나 악상 등 그 표현을 심화하고 외어 부르기, 몸짓으로 부르기, 밝은 표정과 바른자세로 부르기, 정확한 낱말과 발성법으로 부르기, 남과 함께 부르기 등 종합적인 표현을 하게 한다.

가창에서 노래를 틀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라오케라는 것은 아마도 노래를 정확하게 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창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계적 조작에 의한 화음이나 리듬을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표현과 내면화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노래는 욕구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욕구를 승화시켜 주고 창의적인 표현을 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즐거운 삶이 되도록 하여 주기 때문이다.

가창에서 또 다른 문제는 주위의 음악환경이 청소년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대중가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뽕짝은 일본에서 나온 것이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팝송은 서양문화 종속의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대부분의 한국 가곡이 표준적 조성의 노래, 무개성적인 노래, 상투적인 노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업적 유통구조에 의해 문화왜곡이 심하고 소모품적인 성격을 띄는 이런 노래들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 삶의 정황, 희망과 미래를 주기 보다는 퇴폐적이고 오락적이며 공허한 망상이나 허위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안거리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다함께 부를 수 있고 불러야 하는 노래는 정선되어지고 또한 선별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좋은 노래를 고르는 일이 가창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여기서 청소년을 위한 선곡의 기준은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는 곡, 호소력이 있는 가사, 리듬이나 화성적으로 어렵지 않은 곡, 느리고 빠름의 대조가 확실한 곡, 밝고 발랄하고 쉽고 재미있는 곡, 몸짓이나 율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곡 등이라 하겠다.

청소년의 노래로는 우리 가곡이나 동요, 서양의 명곡은 물론 건전한 대중가요나 팝송이 있으며 이 밖에도 즐거운 돌림노래, 여러 나라의 캠프송, 게임을 위한 노래, 율동을 위한 노래가 있다.

가창의 형태는 독창, 중창 (동성이나 혼성의 경우 모두 2중창, 3중창, 4중창이 있음), 합창(제창이나 4부합창)이 있으며 이 밖에 돌림노래(round song)와 카논(canon: 선행구절을 뒤따르는 후행구절이 새롭게 모방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

년이 다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노래는 꼭 합창곡이 아니어도 가벼운 곡이면 좋고, 제창 형태로 부르기를 좋아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무조건 노래를 좋아하지만, 지도자들은 음악의 기본이 되는 조표, 임시표, 음표, 박자, 빠르기말, 나타냄말, 악상표시, 주법, 음정, 음계, 조, 화음, 악곡의 구조 등에 대한 상식을 갖게 하고 노래하는 자세, 호흡, 공명, 발성, 발음 등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훈련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80년대 중반에 민족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문화운동이 떠오르기 시작하였을 때 커다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 노래 운동이었다. 그 당시 대중가요나 팝송 등 대중음악 뿐 아니라 소위 고급음악 혹은 순수음악 내부의 실상과 허상이 신랄하게 비판되었다. 노래 운동파들은 노래는 누구나 부름으로써 그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예술이라고 하면서 삶을 지향하는 노래를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노래운동을 통해서 보았듯이 노래는 대중적 기반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현실적 효과를 지닌 기제로써 다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때부터 노가바(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가 유행하기 시작한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가창을 포함한 음악활동은 음악지도 단계에 충실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변용이나 기용의 경우 보다는 원칙에 따라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계를 충실히 따를 때에 노가바와 같은 프로그램의 영향력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노가바를 통해서 재미를 줄 뿐 아니라 새로운 의식을 고취시키려 하는 것은 기존 노래나 사회의 문제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공감을 갖게 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청소년들이 노가바의 재미에 빠지기 전에 가창지도의 단계에 따라 본래 가사의 의미, 작곡의 취지와 배경, 노래의 분위기, 음악적 표현 양식, 노래로 표현하기 등에 대해 바르게 가르쳐 주기만 한다면 한 때 흥미로 노가바를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2) 기 악

기악이란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을 교습받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기악은 쉬운 리듬악기를 우선 칠 수 있게 하고, 이미 배운 노래에 맞춰 박자나 리듬을 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가장 기본적인 리듬을 악보와 관련지어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주변의 물건을 악기화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기악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흥미와 창조의 기쁨을 더해 줄 수 있는 것은 악기의 본질과 소리의 본질에 아무런 벽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자기가 만든 악기를 연주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물 컵: 컵에 물을 담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율은 끝내고 수저 등으로 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컵의 두께와 모양, 두드리는 것의 종류에 따라 음색과 음질이 달라진다.

호 스: 버려진 호스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피치를 맞추고 이를 병에 넣어 몇 개의 다른 길이의 호스를 번갈아 붙면 마치 팬 파이프와 같은 악기가 된다. 이 때 호스의 한 쪽은 무엇으로 막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무자: 나무로 만든 자를 테이블이나 책상의 가장자리에 놓고 한 쪽 손으로 누르고 한 쪽 손으로 튕기면 악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튕겨지는 부분의 길이를 계속 조정하면 골고루 원하는 음의 높이를 낼 수 있다.

아파치 바이올린: 이것은 옛 인디언이 쓰던 수공악기의 원리인데 바가지나 플라스틱 그릇, 아니면 상자나 깡통도 좋다. 이런 울림통에다 쇠줄이나 나일론줄 등을 이어서 튕기든지 아니면 팔로 연주해서 악기 효과를 낸다.

이 밖에도 목탁, 윷, 빨래판, 방울, 손가락, 바구니, 나무판자나 솔 등을 타악기로 이용할 수도 있다. 즉 손가락(두개)치기, 수저를 넣은 병 흔들기, 쇠조각을 넣어서 실로폰 바구니를 만들어 연주하기 등이

있다.

청소년기에는 누구든지 변성기로 인해 노래를 잘 부를 수 없는 시기를 겪게 된다. 그 뿐 아니라 음악은 좋아하지만 가창에는 자신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간단한 악기를 배우는 것이 좋다. 악기 연주 역시 가창만큼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겠다. 처음에는 리듬 악기로써 북이나 트라이앵글, 캐스터 네츠, 실로폰 등을 치거나 기타나 크로마하프를 치면서 노래할 수도 있겠고 나중에는 가락 악기 중에서 리코더, 펜 플루트, 하모니카 중에 하나를 익혀서 연주할 수도 있다.

기악 역시 청소년기에는 악기에 따른 주법, 호흡법, 운지법, 예비운동, 자세 등의 기본적인 훈련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고 악보가 지시하는 대로만 연주하는 것이 익숙해진 다음에는 자신의 감정을 포함시켜서 연주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3) 감상

감상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감각을 길러주고 느낌을 갖게 하며 또한 음악을 통해 폭 넓은 경험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런데 감상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음악의 종류, 연주의 형태, 악기 편성, 악곡의 형식, 간단한 음악사 등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음악감상이 지나치게 곡목 위주나 작곡자 위주 혹은 연주자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균형있는 음악의 이해가 용이하지 못하였다.

감상을 하는 방법으로는 연령별·계층별 접근, 인문주의적 접근, 주제별 접근, 시대별 접근, 작곡가별 접근, 연주가별 접근, 장르별 접근, 포괄적 접근이 있다.

연령별·계층별 접근을 예로 들면, 청소년 전기 (국민학교 5, 6, 중 1, 2학년), 청소년 중기 (중 3, 고 1, 2학년), 청소년 후기 (고 3, 대

학교 1, 2학년)로 나누고 여기에 근로청소년과 비행·범죄청소년을 구분·첨가해서 음악감상 시간의 길이와 종류를 정할 수 있겠다.

음악에서 가장 쉽고 편히 학습할 수 있는 것이 감상이기에 선곡을 잘해서 교육적이고 좋은 음악을 계속 듣게 하여야 한다. 특별히 자연스럽게 감상하도록 하고 해설서나 해설자와 함께 감상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어릴 때부터 질이 좋은 음악을 들어야 음악적 감수성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4) 작 곡

창작이란 작곡의 영역을 유도해 내기 위한 것이다. 악보지도 또는 독보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이나 음악이론 공부의 부속물이 작곡은 아니다. 작곡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얻고 그것을 써서 나타내려는 즉 음악적 통찰력의 발달과 그 표현의지라 하겠다.

창작활동에 있어서 모방이라는 것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창조를 변형된 모방이라고 하듯이 모방은 창조의 의욕을 자극하는 첫 단계로 활용된다. 또한, 모방과 함께 즉흥적 표현을 해 보도록 하는데 이것은 창조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인스피레이션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표현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이다. 즉흥적 표현은 음악을 듣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감정을 즉시 표현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음악적 감각을 스스로 활용하게 되고 부담없이 창작에 임하게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스스로 만들어 보게 하기 위해서는 악보적기(기보법)연습, 여러 박자의 리듬을 찾아보고 유사한 리듬을 지어보게 하기, 지은 리듬을 악기로 쳐 보기, 음표의 머리만 오선을 적고 제이름으로 불러보기, 음표에 리듬 붙여보기, 짧은 말에 가락을 붙여 노래하기, 단순한 리듬과 음정을 만들어 자유롭게 노래하기, 좋은 시에 곡을 붙여 보기, 만들어진 노래 손질하기 등을 재미로 시간이 날 때마다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작곡 의욕은 상당히 크지만 작곡이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값이 비싼 생선의 맛보다도 자기 손으로 잡아 직접 요리해서 먹은 이름조차 모르는 물고기 한 마리의 맛이 더 기억에 남고 의미가 있으며 우리를 즐겁게 한다. 비록 직접 잡은 것은 아니지만 사 온 생선이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칼을 들고 재료를 손질하여 양념을 하거나 굽거나 찌서 요리를 직접해 먹을 때의 기쁨이란 비록 그것이 그리 잘 되지 못한 요리라 하더라도 괜찮은 것이다. 내 스스로 내 노래를 만들도록 격려하고 자극하는 것이 그 기법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2. 무 용

무용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운동으로 표현하는 예술인데 시간, 공간, 운동의 3요소를 지닌 종합예술이다. 무용의 기원이 모태 내 태아의 꼬물거리는 움직임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듯이 춤의 기초가 우리 인체에다 토대를 둔 몸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부정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에 따라 근육을 움직여서 표현하였다고 하여 전부가 무용은 아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본능에서 우러 나오는 동작이기 때문에 무용이 되기까지는 다른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즉 인간의 사상과 감정, 의사 또는 정경이나 상황 등을 표현해야 하고 미화된 동작을 장단에 맞춰 형식화하고 율동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싶어하고, 그 움직임의 욕구로부터 무용은 태어났다. 일생에 있어서 청소년기가 가장 신체적 활동이 왕성한 시기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움직이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 하다. 그리고 춤을 추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춤을 제대로 출줄 아는 청소년은 그리 많지 않다. 춤이란 말이 산스크리트의 탄하(Tanha), 즉 생의 욕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 것처럼 춤

은 곧 움직이고 행위하며 기뻐하고 살아가는 욕망 그 자체인데 특히 청소년에게 더욱 그러하다.

청소년에게 무용이 필요한 이유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언급하였듯이 ‘무용은 신체적 형태의 리듬으로 성격과 정서와 행위를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춤이란 일정한 리듬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고 감정을 나타내며 잉여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춤은 근본적으로 남을 모방하거나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것이거나 외워서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1) 춤 추기

춤을 배우고 싶어하는 청소년에게 춤을 가르쳐야 한다. 무용을 통해 청소년들은 인간형성을 위한 신체적 가치를 추구하고 리듬감을 발달시키며 즉흥능력이나 풍부한 표현 능력을 기르고 정서를 순화하여 창의력을 기른다는 구체적인 교육적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에게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나오는 몸익히기, 리듬훈련, 옮겨가기, 나타내기, 춤추기, 이론 감상 등의 단계를 학년별로 지도하는 내용에 따라서 교육시킨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춤을 가르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무용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 청소년들에게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본훈련을 시키기도 어렵다.

청소년 무용활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제로 춤을 추게 하는 일이다. 원래 원시시대의 춤은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는 것이었고 하나의 사치가 아니라 생명영위의 활동이었으며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용이 원시신앙이나 종교와 멀어지고 민중의 오락이 되면서 추는 무용과 감상하는 무용으로 분화해 갔다. 이제 청소년들이 직접 춤을 출 수 있게 그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정부에서 청소년단체에게 그 운영을 권장하는 청소년 디스코 텍이아

말로 청소년들이 춤을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장소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러나 몇 군데 되지 않고 운영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2) 춤 가르치기

둘째로는 쉬운 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유쾌하고 즐거운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한 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외국에는 그 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함께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어느 특정한 춤이 잘 보급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국민무용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청소년을 위한 춤은 원시무용처럼 단조롭고 일정한 형으로 짜여져 있으며 간단한 악기로 반주를 할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하겠다. 그리고 어느 지방의 생활감정과 풍속, 정서 등을 나타내고 남녀노소 다함께 출 수 있는 민속무용이나 향토무용 또는 서양의 궁중무용 등을 가르치는 것도 좋겠다. 특별히 힘들고 긴장된 생활에서 벗어나 기분을 전환하고 즐겁고 경쾌한 느낌을 갖기 위해 보통 사람들이 즐긴 민속무용은 대체로 쉽고도 재미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적당하다 하겠다.

3) 유행하는 춤을 통한 춤 이해

셋째로 그때 그때 유행하는 춤을 가르쳐 주도록 해야겠다. 몇 년 전 브레이크 댄스라는 영화가 나오고 어느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공연 때마다 이 춤을 춤으로써 이 춤에 대한 열기가 높았던 적이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브레이크 댄스를 배우고 싶어서 여기 저기 찾아 다녔으나 가르쳐 주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일 때에 트윙스트, 탭댄스, 맘보, 차차차, 림보 등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들은 디스코, 고고, 브레이크 댄스, 람바다, 허슬, 일렉트릭 부기 등을 즐기고 있다.

이와 같은 춤들이 자기 스스로를 개발하고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서로 조종하도록 하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도록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기쁨과 즐거움 등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내부적 욕구를 분출하게 할 수는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로버트춤이나 마네킨춤과 같이 한 때 유행하는 춤들은 청소년들에게 저절적이고 관능적인 쾌감을 주고 있거나 천한 교태나 선정적인 움직임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춤이 비록 천박하거나 불건전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춤이 유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춤에 청소년들이 몰입한다고 야단치기 보다는 오히려 이런 춤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춤이 태어나게 된 시대적, 역사적 상황이나 전체 무용사에 있어서의 위치, 또는 동작의 특성, 음악과의 관계, 미학적인 문제, 유명한 춤꾼이나 안무가 소개 등 다양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춤에 관한 예절이나 교양·상식 등도 함께 소개할 뿐 아니라 춤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이런 춤이 잘못 갖기 쉬운 음란하고 퇴행적이며 저속한 점들을 배제시킬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무용이 갖고 있는 교육적 목표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4) 무용 감상

끝으로 무용 감상의 기회를 청소년에게 보다 많이 제공하여야 하겠다.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서 무용을 감상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인 비디오 테이프나 레이저 디스크를 통해서 무용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무용 감상은 무용이 주는 모든 아름다움, 역동적 이미지, 내적 삶의 표현, 창의성, 타문화 수용, 시대적 배경 이해 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3. 연극

연극은 원시시대 집단생활을 하던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에 사용되던 몸짓, 손짓이 그 시초이고 원시인들의 다양한 춤이 발전하여 그 형태를 이루게 되었으며 인류역사와 함께 하면서 인간본성의 복합적 표현과 사회적 생활요소의 여러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에게 연극이 필요한 이유는 연극의 특징 그 자체가 청소년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연극은 무엇보다도 혼자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하는 공동의 작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집단 내에서의 인간관계가 중요시되고 성실한 협동을 필요로 하며 민주주의적인 절차가 절대적으로 기본이 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자기를 주장하거나 또는 책임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면 연극은 망치게 된다. 청소년교육의 목표가 민주시민의 양성과 협동이라면 연극이야말로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연극은 자연스러우면서 동시에 재미를 느끼게 하는 학습수단이 된다. ‘인생은 연극’이라는 말은 청소년들이 연극의 관람이나 공연준비의 체험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깊이하고 인생을 보다 참되게 볼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으며 세상을 알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연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주입식 방법이 아닌 자발적인 모방을 함으로써 스스로 즐거움을 갖고 사회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 특별히 이론중심의 교육에 싫증을 느끼고 정서적 성장의 불균형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연극은 필요한 것이다.

연극의 현재성과 생동감이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극이 종합예술이면서도 바로 현장에서 전개되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술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친밀감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한 이를 통해서 모두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연극의 이와 같은 현

장감과 입체감은 사람들의 흥미를 촉발하고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감동을 체험하게 된다.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 이후 지금까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민들을 위해 국가적인 사업으로 연극을 교육적 도구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연극을 통해 이민들의 문화수용을 도와 줌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는데 즐겁게 가르칠 수 있었다고 한다. 스웨덴의 경우 연극, 음악, 미술전시를 담당하는 3개의 국가기관이 있어 전국 학교의 요청에 응해 주고 있는데 연극은 해마다 전체의 1/4 정도되는 학교에서 공연된다고 한다.

독일은 청소년 연극 뿐 아니라 연극 전반이 경비의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고 있고 청소년 연극을 공연하는 극장이 1948년에 이미 문을 열었으며, 1970년부터 청소년 연극 진흥을 위해 청소년극장 개설, 청소년 연극 작가상 제정, 전용 앙상블 고용 등에 특별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청소년의 연극활동을 중요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성세대에 대한 그들의 거부를 연극을 통해 수렴할 수 있고 연극의 경험을 통해 소비적이고 상업적인 문화와 기술관료에 의해 조정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을 그대로 본받지 않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1) 연극활동과 전인교육

지금 우리 주위에는 연극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연극 그 자체보다도 TV탈렌트나 연예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연극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도 없지 않다.

그런데 청소년 연극활동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성세대가 연극에 대한 청소년들의 순수한 열정을 싹틔우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청소년들의 연극에 대한 관심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거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

다. 더욱이 기성세대가 청소년활동으로써 연극이 왜 필요하고 그것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지쳐있는 청소년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며 그 활동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된 이론이나 정확한 지침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 더 큰 문제라 하겠다.

그동안 청소년의 연극활동이 예술적 숙달이라는 미명하에 연기 기술에만 치중해 왔고 근본적으로 기성세대의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중고등학교의 특별활동이나 특별행사들이 잘 정리된 원칙을 갖고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극활동이 잡다한 학교행사의 하나에 지나지 않거나 반대로 전문적인 영역안에 가둬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연극활동은 전문연극과는 구별되는 학교교육용 연극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조병진, 1992)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극인들 보다도 일반 교육인들이 연극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육자들이 연극을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극은 어떤 상상적 역할이나 인물, 허구적 상황 등의 조건 속에서의 육체와 소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사고력을 개발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자아표현력 개발, 자아의식 개발, 자기신뢰, 상상력과 감수성 고취 등의 교육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훈련과정 즉 교육대학 과정에 교육연극이 개설되어야 하고 연극과목 개설운동은 전문연극 보다는 전인교육을 위한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관객이나 제작자가 있어야 되고 연출과정을 통한 무대적 성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는 연극(theater) 보다는 드라마가 청소년에게 더 중요하다. 드라마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본질적 내용은 개척 내지는 개발의 과정이고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참여자 자신과 관계되는 자아개발의 작업과정이며, 자유로운 공간으로써 제작자 (direc-

tor)가 아닌 지도자 (leader)에 의해 유도되고 가이드(guide)되는 과정이고 평가나 비평은 없으며 모든 참여자가 자유로이 안심하고 자신들의 잠재적 창의력을 내 놓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전체 청소년을 위한 연극활동

청소년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전문 연극기술의 직접 사용은 중등교육 효과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육에 목적이 있는 교육연극이 적합하다. 이 교육연극은 그 자체보다는 매체로서의 가치에 그 본질을 찾아야 한다.

청소년의 연극활동을 위해서 기획에서부터 연출, 연기, 분장, 장치, 조명, 효과와 음악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편의 연극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만들고 조직의 역할과 임무를 정하여 극본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로 상연준비를 해야 한다. 연출을 위해서는 연습 일정표, 배역표, 필요한 장치, 조명, 효과, 소품 일람표, 시간표 등을 만들어야 하고 대본 혼자 읽기와 맞춰읽기, 선연습, 발음과 발성연습, 개별연습과 전체연습, 총연습과 무대연습 등이 있어야 한다. 연기에 대해서는 극본의 연구, 배역의 연구, 연기의 요령습득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 밖에도 작품의 상연을 위해 분장, 의상, 가면, 화장, 장치, 무대만들기, 조명, 효과, 음악 등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상식을 익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연극활동에서는 분장, 의상, 연출, 장치, 조명 등보다도 마음의 준비와 표현해 보기의 단계, 즉 관찰력과 상상력을 갖고 극중인물이 되어 보고 감정표현을 말과 몸짓을 해 보는 등 즐겁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청소년 연극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들에게 교육연극을 소개하는 것이 어떤가. 교육연극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교육연극: 배우와 교사의 자격을 동시에 갖춘 지도자에 의해서 사회 문제나 교과상의 내용을 생각하게 하는데 주의를 집중하도록 재미있게 구성하고 예비 워크숍이나 공연 후 후속 작업의 과정을 갖는다.

교육 드라마: 과목의 문제들을 가르치기 위한 드라마로써 문제를 자신들의 상황에 투명하고 더 깊이 이해하게 하여 그 상황 속의 인물이 되게 한다. 토론 과정이 많으며 영국에서 특히 발달하였다.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참여자가 창의성과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줄거리에 따라 극을 전개시키되 어떤 부분에 대해 특별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행해지고 장치와 의상은 사용되지 않고 간단한 소도구만 사용되며 고교생을 위해 많이 활용된다.

이 밖에도 어린이 관심을 위해 어른들이 공연하는 연극으로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어 극중인물과 동일시하므로써 대리경험을 체험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게 하며 연극의 예술성을 이해시키는 어린이 연극이 있고 유아를 위한 드라마 플레이(dramatic play), 즉흥연기가 주가 되는 플레이 메이킹 (play making), 치료와 관련된 롤 플레이 (role playing), 관객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참여연극 (participation theatre) 등이 있다.

3) 연극 감상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연극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는가?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 중 일년에 한 차례도 연극관람을 하지 않는 사람이 88.2%나 된다고 한다. 영화에 비해 연극관람이 대중화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청소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극 관람율은 증가한다. 실제로 예술행사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 연극이 가장 높지만 연극 관람율이 이렇게 낮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즉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영화만큼 재미도 없으며 정해진 시간에 공연장까지 직접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전용 극장까지 마련되어 있는 구라과와 비교할 때 우리의 현

실은 너무 열악하다 하겠다. 청소년들에게 연극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마련하여야 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는 공연 예절이나 감상에 관한 기본예절이나 상식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4. 문 학

요즈음 청소년에게 문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지금의 시대를 영상의 시대라고 한다. 청소년들은 위인전이나 고전문학 작품을 읽는 것 보다는 영화나 비디오 보기를 더 좋아한다. 그리고 어쩌면 구태여 명작을 찾아 읽을 필요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웬만한 걸작들은 이미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 많이 있어서 영화나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읽지 않고 시청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어느 기관이 1992년에 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같은 내용의 소설과 비디오가 있으면 비디오를 보겠다는 응답이 50%이었고 나이가 적을수록 영상매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한다(1993. 8. 22일자 경향신문).

최근 국내에서 좋은 배경 장면과 음악을 함께 넣어 만든 시낭송 비디오 테이프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불란서 같은 나라에서는 꼭 소설을 읽고 싶으면 비디오 텍스트를 통해서 화면을 따라 읽으면 된다고 한다. 신촌의 어느 만화가게는 만화책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고 화면을 넘기면서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처럼 이제는 만화에서부터 고전명작에 이르기까지 문학을 영상을 통해서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글을 쓰고 글을 읽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성인잡지도 그렇지만 잘 팔리는 청소년용 도서들은 읽는 책이 아니라 보는 책이고 감성으로 느끼게 하는 책이라고 한다. 또한 책이 먼저 베스트셀러가 되어 영화화되는 것 보다는 영화나 TV 드라마 등으로 성공한 작품의 원작이 나중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이런 시대와 출판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문학의 존재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과거에는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편지 쓰는 법을 알아야 했고 여행을 다니면서 기행문을 썼다. 그러나 이제는 편지 대신에 전화로, 여행기록은 사진필름이나 캠코더 같은 소형 녹화기로 비디오 테이프에 남기는 것이 생생한 소리와 장면을 전할 수도 있고 오래 간직할 수도 있게 한다. 누구든지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기술이 없어도 단순한 기계조작으로 편리하고도 쉽게 기록을 만들고 보존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개발된 컴퓨터는 음성을 인식해서 기록으로 남겨주고 대답해 주며 때로는 통역도 해주고 다른 이들과 의사소통도 하게 해준다고 한다.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말만 해주면 기계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니 글 쓸 필요는 더욱 없어지게 될 것 같다.

이처럼 활자미디어는 약해져 가고 있고, 영상전자 매체는 점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문학의 필요성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문화와 문명이 활자미디어에 의존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으며 영상전자 매체 역시 활자매체를 기본으로 하여 존립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해야 한다.

청소년활동으로서의 문학은 창작, 감상, 문학이론 공부의 영역을 갖고 있다. 그러면 먼저 글쓰기에 대해서 언급해 보기로 한다.

1) 문 예 창 작

청소년들은 글을 쓰는데 대해 일종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글은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글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일생을 통해서 수 없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글은 방향제시를 받고 안내와 지도에 따라 배우고 연습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잘 쓸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남과 같은 글을 쓰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청소년들은 각자 자기의 글을 쓰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쓰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경험을 근거로 한 것인지, 어떤 형태로 표현하려고 하는지, 남과 다른 시각이나 주장은 무엇이고 남과 함께 공유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자기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드러나는 글을 쓰게 할 수 있다.

글을 전혀 써 본 일이 없는 청소년들이 자신들 안에 내재해 있는 글을 쓰고 싶어 하는 동기를 갖도록 하고 글을 쓰려는 열정에 불을 붙여 주며 글을 쓰는 과정에 직면하게 되는 장애들을 피하거나 극복하게 해 주는 일이 청소년 문학활동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글을 통해서 스스로 위안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정리하고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며 자기 주장을 펴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을 모을 수 있으며 나아가 지식이나 즐거움을 남에게 전달하거나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교내의 문예창작반이나 문학클럽, 독서클럽 등에 꼭 소속이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수는 꽤 많다. 이들에게 시나 소설 또는 수필이나 희곡 등 어떤 문학의 영역에 대해 종류, 구성, 영역, 특성 등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년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깊은 일기, 편지(서간문), 기행문, 동시나 동화 등이나 청소년들이 평소에 관심이 많은 신문이나 잡지, 독자 투고용 기사, 영화나 연극, TV 드라마 대본, 공상과학 소설이나 추리소설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상식을 갖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의 문예창작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서적은 많이 있기 때문에 창작의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을 고취시키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

2) 독 서 감 상

감상은 창작의 대응개념으로 감동과 감명이라는 수용을 본질로 한다. 그런데 문학감상의 전통적 방법은 역시 독서라 하겠다. 문학감상

의 방법은 장르에 따라 다르지만 그 기본은 읽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받아들여 삶과 고리짓는 하나의 정신작용임에는 틀림없다.

정신적 산물로서의 독서의 세계는 독서에 관한 다양한 지적활동을 통해서, 즉 독서에 관련한 의미(meaning)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책을 읽게 하고 독후감을 쓰게 하는 활동에서,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에 관한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행위를 통해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러 가지 강연회나 캠페인을 통해서, 헌책 교환을 통해서, 도서관 견학을 통해서, 그리고 독서클럽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을 독서의 세계로 안내할 수 있다.

이처럼 그 안내의 방법이나 안내하는 활동 역시 다양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억지로 책을 가까이 하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만들어 내는 독서의 세계를 인정해야 하고 그 세계를 보다 깊고 넓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일반적인 독서 프로그램으로는 강의, 강연식 공개토론, 시청각교육, 게시 및 전시, 토론, 역할극 및 극화, 관찰과 현지답사, 워크숍 등이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이 개발한 독서 프로그램 모델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독서의 세계란: 철학적 배경, 방법론, 구성내용, 대상과 활동지침
- 책의 세계로: 삶이 숨쉬는 곳, 나를 키우는 자양분, 공공도서관 방문, 책과 인생, 내집 책장엔 몇 권의 책이, 내가 원하는 책
- 책과 만남을: 신중한 선택, 넓게 다양하게, 불량서적 모의재판, 작가의 생애와 작품, 영상으로 보는 명작소설
- 책을 가까이: 몸과 마음을 바르게, 그릇 모양에 따라 다르게, 작가와의 대화, 마지막 책장을 덮으며, 토론의 열기
- 책과 생활을: 생활문고, 매일을 책과 함께, 일년후에 나의 모습, 읽고 싶은 책을 나누며, 함께 하는 독서교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원작을 읽지 않고 다이제스트판을 읽는 경우가 많다. 원작을 읽는다는 것이 어렵고 개작판이나 다이제스트판을 접하기가 쉽기는 하지만 가능한 한 원작을 읽음으로써 그 체험의 질과 감

동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원본을 읽어야 한다고 해서 꼭 고전만 고집해서는 안된다. 당대에 유행하는 문학작품에 대해서도 읽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또한 비평을 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락물화 되어가는 문학: 즉 하이틴 문고나 순정소설 등의 단행본이나 주간지나 월간지의 연재물들에 청소년들이 빠져들지 않도록 독서지도를 해야 한다. 현실적인 불만과 불안을 잊기 위해 그리고 말초적인 즐거움을 탐닉하기 위해 불건전하고 음란 퇴폐적인 출판물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문학작품을 소개 함으로써 승화되고 고양된 즐거움을 맛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학활동을 위해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도움을 주도록 한다. 비디오 테이프나 영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문학의 세계를 소개할 때 청소년들은 보다 쉽게 고전에 접근할 수 있고 작가와 그 작품이 탄생되던 시대와 그 역사적 지리적 현장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작품의 줄거리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간접경험을 하게 하고 명작에 대한 거리감을 없앨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다.

본문 요약

청소년의 문화활동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청소년들과 친숙한 음악, 무용, 연극, 문학 등의 4개 분야를 선정해서 바람직한 활동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각 분야별로 청소년활동으로서의 의미와 청소년들과 관련된 현재 상황 또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제로 할 수 있는 활동의 내용을 모색해 보려 하였다.

먼저 청소년 문화활동과 예술교육의 다른 점과 청소년지도자의 자세에 대해 언급하였다. 음악활동은 먼저 청소년과 음악의 관계성을 언급하였고 그 활동내용을 가창, 기악, 창작, 감상으로 나누어 보았다. 가창에서는 음악지도 단계의 내용과 그 단계에 따라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와 좋은 노래를 골라야 하는 까닭, 노래 운동과의 관계, 가창의 형

태, 선곡의 기준, 기본 훈련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기악에서는 주변의 물건을 악기화하는 방법과 악기를 익히는 단계 등에 대해서, 감상에서는 감상의 형태와 선곡의 중요성에 대해서, 작곡에서는 작곡의 의욕과 표현의 의지를 길러 주어야 하는 까닭과 작곡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 등을 소개하였다.

무용활동에서는 춤과 인류의 관계를 살펴 본 뒤에 청소년에게 춤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와 어떤 춤을 가르칠 것인지,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와 무용 감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훑어 보았다.

연극활동에서는 연극의 특성과 청소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청소년 연극을 중요시 하고 있는 나라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전문연극과 교육연극의 차이, 연극과 드라마의 구분, 전체 청소년을 위한 연극활동의 범위와 내용, 교육연극의 종류와 내용, 연극 감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문학활동에서는 영상시대를 사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문학활동의 필요성을 설명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문예창작으로서의 글짓기와 감상으로서의 독서가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보려 하였다.

연구과제

1. 청소년 활동으로서의 문화활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은 그 개념이나 용어에 있어서 무엇이 다르고 어떤 점이 공통인지 살펴보자.
2. 청소년에게 대중가요가 얼마나 밀접한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펴보고 청소년을 위한 노래운동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3.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춤의 종류를 조사해 보고 그런 춤을 통해서 춤을 이해시키는 방안을 정리해 보자. 또한 청소년들이 표현해 보고 싶어하는 여러 감정이나 느낌, 그리고 생활의 단면들을 실제로 음악에 맞춰 몸짓으로 해보게 한다.

4. 다른 나라에서 청소년의 연극활동을 중요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 보고 청소년의 입장에서 전문연극과 교육연극의 차이를 정리해 본다. 또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무언극이나 일인극, 또는 역할극 등에 대한 강의와 실습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본다.
5.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감명을 받은 좋은 글들을 모아서 스크랩을 하고 교지나 회지 등의 간행물에 투고하기 위해 자기 글을 써 보도록 한다.
6. 음악, 무용, 연극, 문학 이외에도 미술, 영화, 비디오 등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해서도 청소년과의 관련성, 그 실태와 문제점, 활동의 종류와 범위, 청소년을 위해 가능한 프로그램 제시 등을 해 보도록 한다.
7. 다음의 책들을 읽고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위한 보다 세밀한 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

〈작 곡〉

이병욱, 백거풍(1989), 3번만 읽으면 누구나 작곡할 수 있다, 작은 우리

〈가 창〉

이요섭(1985), 슈퍼 싱얼롱 — 정선된 노래마다 해설 붙임, 세광음악 출판사

세광음악 출판사(1984), 학생애창 500곡

남의천(1989), 합창, 다함께 부르기 : 청소년 문예 프로그램(5), 행림 출판

〈음악감상〉

정훈상, 박준용(1992), 편안하게 들읍시다, 포도원

김성국(1991), 학생음악 감상입문, 삼호 출판사

백대웅(1992), 인간과 음악, 어울리

이원숙, 정명근(1992), 쉽고 재미있는 음악이야기, 김영사

〈춤 추 기〉

신문출판사(1992), 브레이크 댄스

김옥진, 정송희, 최청자 공저(1989), 무용이론과 춤추기: 청소년문예 프로그램 (2), 행림출판

〈연극해보기〉

학교극 청소년극 연구회(1993), 학교극 청소년극, 성문각

김정자(1983), 학교연극, 동국대학교 출판사

한국청소년연구원(1992), 역사연극활동: 청소년 수련거리(7)

고성주(1987), 어린이와 지도교사를 위한 어린이 동극집, 대원출판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7), 연극 대본집: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뱅크(7)

〈글 짓 기〉

유경환(1992), 글짓기의 첫걸음, 대원사

〈독서활동〉

한국청소년연구원(1992),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한국청소년연구원(1992), 독서교실활동: 청소년 수련거리(4)

참 고 문 헌

김공선(1988), 음악교육소고,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창남 외(1986), 노래운동론, 공동체

이영희 외(1983), 공동체 문화, 공동체

남의천(1989), 합창, 다함께 노래부르기: 청소년 문예 프로그램(5),
행림출판

- 김순미(1987), 음악 프로그램 : 문화축매 운동 프로그램 지침서(1), 정음사
- 김옥진, 정승희, 최청자 공저(1989), 무용이론과 춤추기 : 청소년 문예 프로그램(2), 행림출판
- 육원순, 이희선 공저(1992), 무용교육과정, 금광
- 최동혁 번역 로에릭 랑게 지음(1900), 춤의 본질 : 인류학적 관점에서, 신아
- 김연자 외 8명(1900), 새 무용교육, 학문사
- 조동희(1987), 아동연극개론, 범우사
- 학교극 청소년극 연구회(1991), 학교극 청소년극, 성문각
- 한국청소년연구원(1992), 역사연극 활동 : 청소년 수련거리(7)
- 심상옥 번역 이스벨레 지글 원작(1990), 창작입문, 학문사
- 최운식 외(1986), 문학교육론, 집문당
- 구인환 외(1988), 문학교육론, 삼지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88), 예술교육 : 문화예술 총서(9)

3.3

봉사활동

개 관

봉사활동은 대가를 구하지 않는 자기희생과 무상성을 큰 특징으로 하는데, 흔히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봉사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감을 고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은 일정기간 전문적 훈련을 받거나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혹은 두 가지가 결합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도 있다.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모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봉사활동을 조직·관리하는 단체는 자원봉사자의 모집에서 시작하여 면접, 교육, 활동소개, 봉사활동, 그리고 평가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이 흔히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활동의 장소, 대상, 내용을 고려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주제어

봉사활동, 에딘버러 포상계획,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봉사,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소득사업, 교육사업, 보건의업, 상담사업, 환경보전사업

* 이용교,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1. 봉사활동의 특성과 의의

청소년활동을 실생활에서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반 체험중심 활동(김정명 외, 1991 : 28)이라고 할 때 봉사활동은 청소년활동의 중심에 있다. 청소년의 봉사활동은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모든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봉사활동은 대가를 구하지 않는 자기희생과 무상성을 큰 특징으로 하는데, 흔히 자원봉사활동(voluntary action)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자원봉사자(volunteer)라고 부른다(박태영, 최경익, 1993 : 21).

청소년활동에서 봉사활동의 중요성은 에딘버러 공작 기념사업의 청소년활동 포상 계획(the Duke of Edinburgh's Award Scheme)에 관한 프로그램 지침서(Manual of Programmes)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김정명 외, 1991 : 209-330). 이 지침서는 청소년활동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그중 첫번째인 봉사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봉사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감을 고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은 일정기간 전문적 훈련을 받거나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혹은 두 가지가 결합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봉사활동의 최소한의 요구조건은 첫째, 대개의 청소년들에게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능력을 겨루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 둘째는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성취해낼 수 있는 범위안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3가지 단계에 의해서 기획될 수 있는데 초급단계, 중급단계, 그리고 고급단계이다.

초급단계는 일정기간에 평균 15시간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다. 또는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을 마친후 약 3개월간 현장활동을 한다. 중급단계는 15-30시간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다. 혹은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마친 후 6개월간 현장활동을 한다. 고급단계는 50시간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9-12개월간 현장활동을 한다. 이러한 전문적인 훈련이나 현장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여러 사람들과 접하면서 그들 스스로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김정명 외, 1991 : 218-219).

청소년의 봉사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봉사활동 대상의 욕구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봉사활동의 장소는 시설인가 재가인가, 재가보호라면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중에서 어떤 서비스를 바라는지 접수해야 한다.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모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봉사활동을 조직·관리하는 단체는 자원봉사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관리는 봉사자의 모집에서 시작하여 면접, 교육, 활동소개, 봉사활동, 그리고 평가까지이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접수하고 접수된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한다. 자원봉사의 경험이 없는 봉사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자원봉사의 의의, 봉사내용, 활동시 주의사항, 자원봉사자의 사례소개, 기관소개 등을 내용으로 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2. 봉사활동의 분류

1) 봉사활동의 분류틀

봉사활동은 사회적 욕구나 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의 하나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의 종류는 삶의 영역의 다양성 만큼이나 많다. 찌찌이 노리꼬는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을 위기개입상담, 장애·노령·이별, 범죄·갱생, 교육·건강육성, 재해구원·자연보호, 보건·의료, 체육·레크레이션, 문화, 국제평화 등 아홉가지로 나눈 바 있다(박태영, 최경

익, 1993 : 23).

봉사활동의 영역은 정해져 있지 않고 시각에 따라서 범주화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 활동이 봉사활동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다소 제한적이고, 그 종류를 적절히 분류하는 것은 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침이 된다.

에딘버러 공작 기념사업의 청소년활동 포상계획에서는 봉사활동을 15가지로 나누고 있다. 즉 지역사회 봉사활동, 동물보호, 아동보호, 가정간호, 가정안전관리, 위생, 산업안전관리, 도로안전, 환경보호, 오염방지, 응급처치, 소방훈련, 치안봉사, 인명구조, 장애인돕기 등이다. 이 분류는 청소년 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빈약한 한국의 청소년 봉사활동에 많은 것을 시사해 주지만, 분류기준이 혼재되어 있고, 한국 청소년들이 실천하기에 적합성이 낮은 것도 있다. 예컨대 동물보호, 가정간호, 산업안전관리, 소방훈련, 치안봉사 등을 한국 청소년들의 중요한 봉사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던 봉사활동은 국군장병께 편지쓰기, 불우이웃돕기, 환경보호캠페인, 지역사회청소 등이고, 가장 하고 싶은 봉사활동은 위문활동과 농촌봉사, 환경보호캠페인, 교통지도 등이다(박명윤 외, 1991 : 67-77).

청소년프로그램편람에서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환경보호운동, 한글간판 바로잡기, 근로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방문, 농촌봉사활동, 고아원방문, 보육원위문, 일선장병위문, 앞치마 제작 판매활동, 자선바자회 등을 예시한 바 있다(남정걸, 권이종, 1988 : 416-433).

청소년 봉사활동을 적절히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상해 볼 수 있겠다. 봉사활동의 장에 따라서 봉사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지역사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봉사활동의 대상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빈민, 농어민, 외국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봉사활동의 내용에 따라서 소득사업, 교육사업, 보건사업,

상담사업, 환경보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특정의 봉사활동은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범주화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이 흔히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활동의 장소, 대상,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2) 장소별 봉사활동

(1)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시설은 영·육아원, 양로원, 모자원 등 669개 소이고 여기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는 7만 8천여명이다(김범수, 1991 : 553—565).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복지는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담당하고 있지만,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수용자의 최저생활보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봉사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수용자의 말벗이 되거나, 수용자의 학습이나 정서를 지도하며, 복지시설의 바쁜 일손을 돕거나, 위문행사를 하는 것 등이다.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이 더욱 교육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복지시설 수용자는 대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고 사회문제의 피해자이므로 청소년들은 수용자를 볼 땐 여기는 태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회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또한 시설방문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방문이 되어야 한다. 흔히 사회복지시설 방문은 연말 연시나 명절을 전후로 하여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 시설에는 일년내내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방문시 선물을 준비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운영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고,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현금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다.

시설방문은 개인보다는 학급, 동아리, 교회, 청소년단체 등에서 동료들과 함께 갈 때 더욱 지속적인 활동이 된다.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소모임을 구성하고, 이 모임들은 개별 모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단위와 전국단위의 모임활동을 하고 있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활동하는 모임들이 중심이 된 서울경인지역 육아시설활동단체협의회와 전국자원활동단체협의회이다. 또한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 순수 민간단체로 시설문제연구회가 있다.

(2)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봉사활동을 생활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봉사활동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에서 시설 봉사활동과 다른 특징이 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 편모 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계층과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마을청소를 하거나, 등하교시에 통학로의 교통을 정리하는 일, 그리고 동네에서 어린이와 놀아주면서 보호하는 일 등이 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에딘버러 계획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 사이의 연락체계가 잘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자원봉사단체나 지방공공기관 혹은 청소년단체의 전문가는 청소년에게 봉사활동의 방법을 가르쳐야 하고, 현장활동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조직적으로 도와주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의 연합체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단기간 교육시켜서 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회원단체에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현재 144개소가 전국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등의 부설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를 교육훈련시키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업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봉사활동을 중요한 사업으로

하는 청소년적십자사 등이 있고 YMCA, YWCA, 보이с카우트와 걸스카우트 등 청소년단체는 봉사활동을 주요활동의 하나로 하고 있다.

3) 대상별 봉사활동

(1) 아동보호활동

최근 아동이 있는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되고 핵가족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아동보호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어 시설탁아와 가정탁아를 권장하고 있지만, 미취학아동의 탁아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이제는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보호의 문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아동보호는 시설봉사활동과 같이 특별히 하는 행사가 아니라 일상생활속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봉사활동이다. 부모나 보호자가 없을 때 가정과 동네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생활사고에 대해서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주변

아동에게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 청소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안전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생활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가정간호, 약물이나 전열기안전관리, 위생적인 생활양식의 습득은 아동보호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에딘버러 계획은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관련하여 아동보호 뿐만 아니라 가정간호, 가정안전관리, 위생, 산업안전관리, 도로안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미취학아동의 탁아활동을 하는 지역사회단체로는 지역사회탁아소년합회에 소속된 많은 탁아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유아시설(어린이집, 유아원 등)이 있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긴급한 상담과 도움은 시·군·구단위로 있는 보건소나 읍·면·동에 있는 진료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청소년복지활동

한국 청소년들의 고민과 걱정거리인 공부, 진학, 친구문제, 성격, 외모, 이성문제 등의 의논상대로는 친구가 가장 많고 다음은 어머니, 형제 자매, 선배, 학교교사 등의 순이다(문화방송, 1991 : 128—129). 이처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고민과 걱정거리를 선생님이나 전문상담원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친구나 선배의 도움을 받아서 해소하고 있다.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고민상담만이 아니다. 같은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친구가 사고를 당했거나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헌혈이나 모금활동을 하기도 한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청소년들이 학교단위로 자매결연을 맺어 학습자료를 교환하거나 서로 교환방문을 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시도이다(송광성 외, 1992).

청소년들이 학교, 직장, 교회 등에서 클럽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을 하고 여기에서 익힌 특기를 하급생이나 동료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가르

쳐주는 것은 좋은 봉사활동일 수 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가르치는 동안에 배울 수도 있고, 선후배가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청소년 봉사활동중 가장 보편적으로 수행된 것은 주로 학생들에 의한 야학활동과 농촌봉사활동이다. 그중 야학은 일제 하에서는 중고등학생이 농민들에게 문맹퇴치교육을 하였고, 현재는 주로 대학생이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 취학기회의 상승으로 야학의 학생들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이러한 전통은 교과교육에서 컴퓨터교육, 한문과 외국어교육, 악기 연주 등 생활교육 등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3) 장애인복지활동

한국은 정부에서 추계한 장애인이 100만여명이고, 장애인단체가 추계한 400만여명의 장애인이 생활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복지활동의 핵심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다.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시설 혹은 거리에서 장애인을 만났을 때 그들이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단순한 봉사활동에서 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위한 점자나 수화학습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정방문봉사, 외출시 동행하기, 특별행사(바자회, 운동회, 예술제 등)의 기획 등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부름의 전화’는 장애인이 시장보기, 병원입원, 모임참석, 여행 등의 이유로 외출할 때 동행인이 필요하면 전화로 접수받고, 적절한 자원봉사자를 교육훈련시켜 파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청소년이 장애인복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와 연계해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 현재 한국에는 장애인을 수용보호하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 있고, 각종 장애인복지협회가 있다.

4) 내용별 봉사활동

(1) 결연과 후원활동

결연사업은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시설보호노인, 시설보호장애인 등과 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결연이 맺어지면 정기적으로 후원금품이 오가게 되므로 결연과 후원활동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연과 후원사업은 연말연시나 각종 재난시에 신문이나 방송국이 주관하는 모금행사에 금품을 후원을 하는 경우와 사회복지법인이 주관하는 사업을 후원자가 돕는 경우가 있다.

결연과 후원활동은 방문보다는 주로 통신에 의해서 금품이나 서신이 오간다는 점에서 대면적인 서비스가 많은 시설봉사나 지역사회봉사 등과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학업시간의 과중때문에 봉사활동의 시간을 내기에 어려운 청소년들이 참여하기에 비교적 쉬운 봉사활동이다. 결연과 후원활동은 돈이 많은 독지가에 의해서 보다는 대체로 학생, 직장인, 주부 등 보통의 시민들이 소액의 정액을 매달 은행지도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회복지기관은 매달 1구좌에 1000원이나 3000원을 하는 후원금을 후원자가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내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결연과 후원활동은 결연대상에 따라서 창구를 달리 하고 있는데, 한국어린이재단(아동), 한국사회복지협의회(노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애인)에서 주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영육아원, 양로원과 노인요양원, 각종 장애인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법인은 부족한 사업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직접 후원자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소년들은 교회의 십일조나 특별헌금, 사찰의 보시, 연말연시의 자선납비, 적십자회비, 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을 통해서 후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결연과 후원사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품의 제공에서 끝나지 않고 후원금을 받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보이고 정서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영육아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후원금을 보내면서도 생활속에서 고아나 장애인을 차별한다면 진정한 결연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상담봉사활동

상담은 의뢰인의 고민과 걱정거리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과 자원봉사자의 상담으로 이루어진다.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타인과 대면해서 상담하기를 꺼린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법인과 각종 사회단체에서는 면접상담보다는 전화상담을 많이 접수하고 있는데, 상담봉사활동은 대체로 전화상담기관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한국의 전화상담기관은 수백개소가 넘는데 그중 생명의 전화는 한국 최초의(1976) 전화상담기관으로 현재 전국 주요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고, 1981년에 설립된 사랑의 전화는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청소년은 일상적인 고민상담을 이러한 상담기관보다는 동료나 선배와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YMCA 등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상담 교육을 시키고 이들을 청소년상담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또래상담 교육이 학교, 직장, 교회 등에서 활성화된다면 청소년의 고민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청소년단체에서는 대학생 등 연장자에게 상담원교육을 시켜서 하급생을 상담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은 자칫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성인과 상담하기를 꺼려하는 상태에서 한 가지 유의한 대안일 수 있다. 상담봉사활동은 봉사자들이 상담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 삶의 다양성을 배울 수도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환경보전활동

우리가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물, 공기, 흙, 소리, 빛 등은 산업화와 함께 총체적으로 오염되어가고 생물생태계는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다. 환경파괴가 적은 과거에는 오염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파괴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었다. 그 중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빈민 등은 환경오염에 대한 저항력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유엔환경개발회의는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각국의 정부와 민간의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환경파괴는 흔히 청소년의 힘이 미치지 못한 곳에서 이루어지지만, 청소년도 생활환경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일회용품과 합성세제 등의 덜쓰기, 물·전기·종이 등 각종 자원 아껴쓰기, 동식물과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좋은 환경보전활동이다.

에딘버러계획에서는 환경보호를 3단계로 나누어서 환경문제의 진상과 발생원인(초급), 환경보호 방법의 적용에 따른 전문훈련(중급), 환경세미나(고급) 등을 다루고 있다.

서울YMCA 등 환경운동단체는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의 환경보전활동을 위하여 환경실태조사, 자원절감과 재활용, 환경고발전화, 중고물품의 교환, 환경감시단교육, 환경캠프, 녹색기행, 환경정보센터의 설립 등을 시도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환경보전활동은 일상생활속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삶을 지향하고 이웃과 연대하여 지역사회수준에서 환경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국제봉사활동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는 지구촌을 형성해가고 있다. 청소년은 관심의 영역을 지역사회나 한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까지 넓혀야 한다.

자원봉사의 역사중에서도 국제봉사활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1961년에 만든 미국의 평화봉사단(Peace Corps)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봉사단은 개발도상국가에 파견되어 문맹퇴치, 빈곤퇴치, 청소년 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민간차원에서 외교활동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한국의 청년들은 1990년부터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봉사단에 속한 한국의 청년들(20세~35세)은 개발도상국가에 가서 자신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현지인에게 전수하면서 국제협력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활동분야는 기술협력(컴퓨터, 전자, 자동차 정비, 농기계수리 등), 농·축·수산업(농학, 농경제, 식품가공, 병충해방제 등), 교육(한국어교육, 유아교육, 시청각교육 등), 보건의료(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기타(지역사회개발, 중소기업관리 등) 등이다.

국제봉사활동은 평화봉사단이나 한국청년해외봉사단과 같이 대면적인 활동과 함께 결연과 후원처럼 간접적인 활동도 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개발국가의 기아를 위한 사랑의 쌀과 사랑의 빵은 대표적인 국제봉사활동이다.

국제사회에서 다인종과 다민족이 함께 살기 위해서 국제이해활동은 국제봉사활동의 전제조건이다. 특히 단일 민족의 전통으로 외집단을 배척하는 폐습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국 청소년의 국제이해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제청소년광장 등 청소년 국제행사와 한-일 청소년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단체들도 국제교류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6.25전쟁 전후에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최근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제봉사활동을 활발히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청소년들이 국제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도 국제봉사활동은 꾸준히 증가되어야 한다.

3. 청소년봉사활동의 과제

지금까지 청소년활동의 하나로 봉사활동의 의의와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봉사활동은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모든 활동이 포함될 수 있겠으나 이 글에서 어느 정도 구조화된 청소년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봉사활동의 종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시각에 따라서 범주화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봉사활동을 장소별, 대상별, 그리고 활동내용별로 분류한 후에,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아동보호활동, 청소년복지활동, 장애인복지활동, 결연과 후원활동, 상담봉사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봉사활동 등을 예시하였다.

청소년 봉사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봉사활동 대상의 욕구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자원봉사자를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관리는 봉사자의 모집에서 시작하여 면접, 교육, 활동소개, 봉사활동 그리고 평가까지이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정자의 합리적인 역할이 요구되는데 조정자는 자원봉사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봉사활동은 남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과 사회를 이해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는 경험학습의 장이다.

본문 요약

봉사활동은 대가를 구하지 않는 자기희생과 무상성을 큰 특징으로 하는데, 흔히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봉사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감을 고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은 일정기간 전문적 훈련을 받거나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혹은 두 가지가 결합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이 흔히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활동의 장소, 대상, 내용을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봉사활동의 장에 따라서 봉사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지역사회 등으로 나눈다.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수용자의 말벗이 되거나, 수용자의 학습이나 정서를 지도하며, 복지시설의 바쁜 일손을 돕거나, 위문행사를 하는 것 등이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편모 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계층과 지역사회내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봉사활동의 대상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빈민, 농어민, 외국인 등으로 나눈다.

아동보호는 시설봉사활동과 같이 특별히 하는 행사가 아니라 일상생활속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봉사활동이다. 특히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가정간호, 약물이나 전열기안전관리, 위생적인 생활양식의 습득은 아동보호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또래상담, 헌혈이나 모금활동, 청소년야학, 동아리지도 등이 있다.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시설, 혹은 거리에서 장애인을 만났을 때 그들이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단순한 봉사활동에서 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위한 점자나 수화학습,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정방문봉사, 외출시 동행하기, 특별행사(바자회, 운동회, 예술제 등)의 기획 등이 있다.

셋째, 봉사활동의 내용에 따라서 소득, 교육, 보건, 상담,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나눈다.

결연과 후원사업은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시설보호노인, 시설보

호장애인 등과 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결연이 맺어지면 정기적으로 후원금품이 오가게 되므로 결연과 후원활동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상담은 의뢰인의 고민과 걱정거리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과 자원봉사자의 상담으로 이루어진다. 상담봉사활동은 봉사자들이 상담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 삶의 다양성을 배울 수도 있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환경파괴는 흔히 청소년의 힘이 미치지 못한 곳에서 이루어지지만, 청소년도 생활환경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은 환경실태조사, 자원절감과 재활용, 환경고발전화, 중고물품의 교환, 환경감시단교육, 환경캠프, 녹색기행 등을 시도할 수 있다.

한국의 청년들은 1990년부터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다. 저개발국가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쌀과 사랑의 빵은 대표적인 국제봉사활동이다.

청소년 봉사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봉사활동 대상의 욕구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자원봉사자를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관리는 봉사자의 모집에서 시작하여 면접, 교육, 활동소개, 봉사활동 그리고 평가까지이다.

연구 과제

1.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여 보자.
2. 우리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 실천해 보자.
3. 봉사활동단체에 가입해서 특정 분야의 봉사활동을 전담하여 본다.
4. 봉사활동의 경험이 나에게 준 이점을 상호 토론하여 본다.
5. 봉사활동을 하면서 실수하거나 실패한 사례를 서로 이야기한다.
6. 자신의 직업(업무)과 관련된 기술을 봉사활동에 쓸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본다.

참 고 문 헌

〈단행본과 자료집〉

김범수(1992), 재가복지론, 홍익재

김성이(1988), 자원봉사활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영호(1989), 자원복지 이론과 실제, 홍익재

김옥라, 김현자 공역(1989), 자원봉사 : 사랑의 공동체, 희성출판사

김정명 외 5인(1991), 청소년활동 동기부여 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

김한경(1987), 성 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한 Supervision, 대한가족계획협회

박태영, 최경익 공역(1993), 자원봉사활동조정자, 은익

사랑의 전화(1986), 민주사회와 자원봉사, 사랑의 전화 출판부

사랑의 전화(1991), 전화상담원을 위한 카운셀링의 이론과 실제, 사랑의 전화 출판부

이태영, 서석달 공역(1982), 불런티어 활동, 대구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1984), 자원봉사활동의 이론과 실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장옥순 외 3인(1984), 여성자원활동 인력은행사업,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사회복지관협회(1992), 재가봉사센터의 기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학회(1991),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78),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83), 사회복지와 불런티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87), 자원봉사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88), 자원봉사활동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92), 지역복지 봉사의 이론과 실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여성개발원(1987), 자원활동과 사회발전,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1990), 자원봉사의 길잡이,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1988),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청소년지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연맹, 대학생과 자원봉사활동, 한국청소년연맹

현대사회연구소 연구1부(1985), 자원봉사활동 실태 조사연구, 현대사회연구소

〈연구 논문/학위논문〉

강복현(1984), “자원봉사자의 개발을 위한 사회사업가의 역할”, 인간 이해 제6집

김기선(1984), “자원봉사활동의 방향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통권 제83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미숙(1985),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김범수(1988), “자원봉사자의 의식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 통권 제 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상욱(1990),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영호(1991), “자원봉사활동”, 한국사회복지총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노혁(1991), 전화상담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엄미선(1989), 전화상담자원봉사자의 욕구성향과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수영(1990), 전화상담자원봉사자의 지속성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옥환(1987),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상담자원봉사자 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휘일(1990), 한국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 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 특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박사학위논문
- 주영길(1987),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체적인 자원봉사를 다룬 책들〉

- 송광성 외 2인(1992), 도시농촌교환봉사활동, 한국청소년연구원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1992), 탁아자원활동이론,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 한국노인복지회(1988),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주년 보고서, 한국노인복지회

[자 료]

자원봉사 관련 단체

1) 지역복지봉사센터

지역복지봉사센터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의 부설기관으로 한국 최초의 자원봉사자 인력은행이다. 1978년 9월

20일에 사회봉사안내소 자원봉사국으로 시작되었다가 1991년 3월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 센터는 ‘복지전화’를 통해서 전국의 사회복지기관과 단체를 안내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고 받게 하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훈련하여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 배치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빌딩	02-712-481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빌딩	02-713-3361/2
부산직할시 사회복지협의회	부산시 동래구 연산4동 678-7	051-861-0311/3
대구직할시 사회복지협의회	대구시 동구 효목2동 399	053-756-7122
인천직할시 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 남구 송의동 137	032-883-1776
광주직할시 사회복지협의회	광주시 북구 중흥동 645-4 창신빌딩	062-526-2031/2
대전직할시 사회복지협의회	대전시 중구 대흥1동 129-1	042-254-2878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수원시 고등동 42-98	0331-42-9280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춘천시 요선동 208-1	0361-53-1127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청주시 사직2동 12 충북아동회관	0431-63-8700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대전시 중구 대흥1동 129-1	042-257-0854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전주시 경원동3가 86-9	0652-86-0070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	광주시 동구 금남로2가 7-1	062-232-5380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대구시 동구 포정동 75-4	053-424-6665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마산시 상남2동 323-56	0551-42-4613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	제주시 삼도이동 1238-8	064-53-37812)

2) 재가복지봉사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1992년에 전국의 144곳에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편모 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계층과 지역사회내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전국의 사

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등의 부설로 운영되고 있다.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서울 서초구 양재동353-4

전 화 : (02) 573-8939, 전국의 모든 종합사회복지관

3) 여성자원활동육성

여성자원활동육성은 여성 유희인력의 활용과 사회참여의 확대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1984년(설립당시 여성자원활동 인력은행) 한국여성개발원의 부설로 설립했다. 여기서는 자원활동자(봉사자) 모집·교육·배치·사후관리사업, 자원활동자 활용기관 모집, 활동자와 기관간의 연락조정, 활용기관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한다. 즉, 자원활동전반에 관한 자료 및 프로그램개발이 그 주업무이다. 그리고 여기서 여성자원활동센터에 있는 관리자와 중간관리자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문의처 : 한국여성개발원 서울 은평구 불광동1-363

전화 : (02)356-0070

4) 여성자원활동센터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1991년부터 전국의 시청과 구청에 125개소, 14개 지역에 시범센터가 운영되어, 지금 현재 161개소로 확장·운영하고 있다. 사업의 주체는 정무제2장관실과 도청, 시청, 구청이다.

문의처 : 전국의 모든 도청, 시청, 구청

5)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는 자원봉사를 통한 사랑의 사회공동체를 건설하고자 1986년 12월 13일에 설립되었다. 이 연구회는 자원봉

사자 모집·양성 : 배치와 사후관리, 자원봉사지도자 양성, 자원봉사에 관한 홍보출판, 조사연구, 국제교류사업,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사업 등을 한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의 이름으로 ‘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와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등 두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회의 특징은 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병원 등에 배치하고 재가 호스피스도 시도하고 있다.

문의처 :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목산제일빌딩 10층 5호

6) 전국자원봉사자협의회

시설문제연구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90- 36	(02)313-5701
서울정인지역육아시설활동단체협의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90- 36	(02)313-5701
전국자원활동단체협의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90- 36	(02)313-5701

7) 장애인복지 관련 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400	(02)841-1826/7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7 교통회관11층	(02)416-2596
대한정신박약자에호협회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395	(02)846-9275/7
한국농아복지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1-50	(02)556-3493
한국맹인복지협회	서울 노원구 상계6동 724-4	(02)934-7561/5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4-4	(02)324-7812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서울 노원구 상계6동 724-4	(02)933-9478
자행회	서울 중구 광희동2가 303-1 동산빌딩	(02)268-1938

8) 결연과 후원사업 주관기관

한국어린이재단	서울 중구 무교동 95 동민빌딩	(02)777-9121/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빌딩	(02)712-4814
세계기독교선명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02)783-5161/3
백만인건기운동본부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6-9	(02)393-0143
대한적십자사	서울 중구 남산동 3가 32	(02)777-9301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58-1	(02)736-9660
한국선의은행중앙회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2	(02)715-4548

9) 전화 상담기관

청소년대화의 광장	서울 중구 신당6동 292-61 흥진 5층	(02)253-3811/7
생명의 전화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507호)	(02)763-9191
사랑의 전화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5-66	(02)715-8600
대한가족계획협회 청소년상담실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52-45	(02)855-0625
서울시청소년사업관	서울 용산구 갈월동 101-5	(02)797-8081
서울YMCA청소년상담실	서울 종로구 종로2가 9	(02)735-1551
서울YMCA청소년센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35-123	(02)747-7417/9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서울 중구 수표동 27-1	(02)265-2226
씨들의 전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3(505호)	(02)784-1510
참교육상담소 따르릉선생님	서울 영등포구체국 사서함 287호	(02)325-6450
청소년상담연구소	서울 서초구 반포1동 748-2	(02)543-3275/6
나눔의 전화	서울 중구 명동2가 1 (카톨릭회관4층)	(02)752-4411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27	(02)732-3183
한국어린이보호회 신나는전화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6-9	(02)336-6233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상담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6	(02)841-9901
홍사단청소년상담실	서울 종로구 동승동 1-28	(02)744-2056
부산시청소년상담실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225-3	(051)804-5001
대구시청소년종합상담실	대구 북구 고성2가 8-3	(053)351-2000
인천시청소년상담실	인천 중구 인현동 24-14	(032)761-4247/9
광주시청소년상담실	광주 동구 대인동 154(무산빌딩4층)	(062)528-2000
대전시청소년상담실	대전 중구 문화동 1-13	(042)257-2000
경기도청소년상담실	수원시 장안구 신평동 30	(0331)251-3312
강원도청소년상담실	춘천시 효자2동 656 춘천 YMCA	(0361)56-2000
전북청소년상담실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85-44	(0652)231-2360
충북청소년상담실	충북 청주시 사직1동 908	(0431)58-2000

3.4

야외활동

개 관

청소년활동의 실체로서 야외활동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적 의의는 어떠한가. 그리고 어떻게 수행되어지는가에 대해 논의하고 야외활동의 구체적 분류로서 야영활동, 자연체험활동, 모험활동의 목적, 현황, 주요내용, 지도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외활동의 과제와 전망을 고찰하고자 한다.

주제어

야외활동, 야외교육, 야영활동, 자연체험활동, 모험활동, 야영활동의 평가준거, 자연관찰법, 생존기술, 야외환경교육

*조용하, 동아대학교 교수

1. 야외활동의 의의와 특성

1) 야외활동의 개념

야외활동은 야외에서의 제반활동을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인간과학적 노력의 총체이다. 따라서 야외활동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실체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야외활동은 인간이 자연에서 성장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서 문화창조를 추구하는 과정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자연이라는 환경은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며 생활해 나가는 가운데 필수적이다. 그것은 인간공동체의 유산이라는 문화가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서도 발견되어진다.

우리 나라에서 야외활동이라는 용어는 해방 이후 YMCA의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소개되어졌다. 그 후 Boy Scout나 Girl Scout에서도 중심적인 활동으로 행해졌는데 여기서 야외활동은 형식성을 갖춘 스포츠를 제외하고 주로 자연을 배경으로 야외 레크레이션이 행해지는 신체적 활동이다(日本野外教育研究會, 1988).

야외활동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최근에 야외교육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야외에서의 학습을 의미한다. 야외교육이란 야외에서, 야외에 관해서, 야외를 목적으로 한 교육이다.

여기서 야외에서란 교육과정의 장소를 한정하고 있으며 야외에서의 교육은 모든 계절들, 다른 기후 환경, 다른 지리적, 환경적 지역을 의미하며 교육이 야외라는 일정한 장소에서 수행됨을 강조한다. 야외에 관한 교육은 교육내용을 지시하는 것이다. 야외를 위한 교육은 총체적 이해를 위한 명시적 설명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서 야외교육은 야외에서(in), 야외에 관한(about), 야외를 위한(for) 교육으로 하나의 장소, 논제, 그리고 타당성을 의미한다.

야외활동은 야외교육의 수단으로 간주되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야외활동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이다.

2) 청소년과 야외활동의 의미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에 있어서 야외활동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배우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며 존재의미를 추구한다.

청소년들의 야외활동은 일상생활의 주기를 벗어나 스스로 활동하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공동체적인 생활을 통해 자기발견의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다. 야외활동은 삶을 위한 생활 교육이요, 여가 선용을 위한 교육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단지 오락활동의 측면에서 이해되기보다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련성에 관한 생태학적인 이해를 기르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교육방법으로서의 야외활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구체적인 활동과 현장체험의 기회와 학습의 응용이다.

둘째, 형식적이 아닌 보다 창의적 장면을 제공하고 인간관계 훈련에 기여한다.

셋째, 욕구충족이나 흥미유발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의 신장에 도움을 준다.

넷째, 자연에 친근감을 갖는 기회를 통해 여가를 유익하게 활용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

또한 레크레이션 활동으로서 야외활동은 인간형성을 위한 자기표현이나 자기창조를 위한 활동임과 동시에 자기성장을 위한 여가활동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야외활동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관점들이 하나의 틀 속에서 총체적으로 상호관련되어진 학습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의 선조들은 자연에 대한 공포나 자연의 혜택에 고마움을 통감하면서 유목과 농경으로 공동체 생활을 해왔다. 이와 같이 자연 속에

참된 인간을 발견함으로써 바람직한 공존의 모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문화적인 생활을 추구하며 참된 행복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인간으로서의 청소년들 자신의 삶이 이러한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의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그것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3) 야외활동의 특성

야외활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Donaldson, 1972).

- ① 야외활동은 야외를 이용하는 과정이다.
- ② 야외활동은 그 자체를 위한 독자적인 영역의 과목을 갖고 있지 않다.
- ③ 야외에서의 직접 경험은 환경의 이해에 불가결한 것이다.
- ④ 유효적절한 야외경험은 프로그램의 다양성만큼 다양하다.
- ⑤ 포괄적인 야외활동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 ⑥ 야외활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감각적인 체험 뿐만 아니라 탐험적인 방법을 강조한다.
- ⑦ 야외활동은 여가의 유효적절한 이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도움을 준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야외활동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배우고 자연환경에 대한 애호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연 속에서의 공존의 가능성을 직접 탐색할 수 있다.

현대인은 본질적으로 원시시대의 선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성격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들은 그들의 자연적인 성장과 발달을 구속하고 욕구불만을 일으키려고 하는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다. 야외활동은 이들 청소년들에게 대자연의 유산을 창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해 준다. 야외활동의 특성을 학습방법론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직접경험:야외활동의 관건이 되는 특징은 학습경험에 직접 접하게 되는 것이다. 즉, 대리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참가해서 경험을 하는 것이다.
- ② 발견·탐험·모험:야외에서의 탐험과 모험의 흥분은 자기 것으로 할 수가 있다. 야외에서의 뛰어난 지도는 특수한 것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과학적 방법이 취해진다.
- ③ 감각의 학습:야외활동의 지도는 학습경험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감각을 이용한다. 풍요로운 대지의 감촉과 향내는 청소년의 이해를 심화시킨다.
- ④ 자연적 활동:야외활동은 생생하고 자극적이며 감동적이기까지 하므로 청소년의 본능에 호소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어느 것이든 간에 인위적인 동기유발책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⑤ 강한 흥미:흥미는 청소년이 학습경험에 종합적으로 참가할 때에 높아지는 것이다. 야외는 대부분의 청소년에 대해서 작용하고 있으므로 자발적 참가와 강한 흥미를 확보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한 일이다.
- ⑥ 현실성:야외활동에서의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이다. 그들은 그림, 문장, 계획표와 같은 문제는 없다. 침식되는 산과 언덕은 실로 현실적인 것이다.
- ⑦ 행동성:목적을 가진 활동이 청소년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교육이론에 있어서 거의 공리로 되어 있다. 야외는 교사가 아니라 청소년을 자극하는 성질을 보유한 수많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은 학습과정에 있어서 진실로 행동적이 된다.

2. 야외활동의 분류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은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

고 있다. 가정생활이나 교육의 장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완성, 사회적 자아의 형성,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존재(well being)의 추구에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은 지식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로이 놀 수 있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생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더구나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사회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여유있는 삶의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야외활동을 통한 적응과 능력개발의 기회를 넓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우선 야외활동을 야영활동과 자연체험활동, 그리고 모험활동으로 나누어 알아보기로 하자.

1) 야영활동

(1) 개 관

야외활동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야영활동이다. 야영활동을 우리는 흔히 ‘캠프’ 내지는 ‘캠프활동’이라고 부르는데 더욱 익숙하다.

특히 캠프나 캠프활동 중에서도 우리는 조직캠프를 야영활동으로 보고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조직캠프란 무엇인가? 일본 야외활동진흥협회의 캠프지침서에 따르면 조직캠프 즉 야영활동이란

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조직이나 단체가 ② 뚜렷한 교육목적과 목표를 내걸고 ③ 그 목적과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④ 충분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⑤ 계획에서 실시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⑥ 야영활동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지도체제를 명확히 하고 ⑦ 참가자의 정확한 파악과 이해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그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보다 나은 기능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에서 살펴보면 그 개념의 구성요소로서는

- ① 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일
- ② 목적성을 가진 일

- ③ 계획에서 실시까지의 과정을 중시하는 일
- ④ 지도자가 존재하는 일
- ⑤ 참가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일 등이다.

또 다른 정의로서 미국 캠프협회가 제시하는 바로는

- ① 대자연 속에서의 활동이며
- ② 집단을 통하고
- ③ 훈련되어진 지도자와 함께 행하는 활동이며
- ④ 창의적이며 교육적인 경험을 도모하는 활동이며
- ⑤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활동이다.

위에서 제시한 바대로 야영활동은 자연과 단체(조직), 지도자, 프로그램(교육)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영활동은 대자연 가운데서 집단에 의해 행해지는 활동으로 목적과 목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교육적 의의와 사회적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개체로서의 독자성을 가진 집단활동이다. 따라서 그 활동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야영활동의 조직구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유의사항은 목적과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야영활동 조직화의 쟁점은 그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역할의 분담, 그리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며 이상적으로 그 조직이 운영되게끔 하는데 있다.

우리 나라 야영활동의 효시는 1922년 10월 당시 황성YMCA 내에 소년 척후단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전택부, 1978:157). 여기서는 주로 “사나다운 기상을 기르는 동시에 희생정신과 고상한 인격양성에 목적”이 있었다(전택부, 1978:310). 1929년 조선기독교청년회의회지인 ‘청년’의 권두사에는 그 해 7월에 일본 큐슈지방에서 열리는 소년야영대회를 소개하고 있고 그 교육적 의의를 언급하고 있다(청년, 1929.7).

그러나 야영활동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35년부터 ‘청년’이란 기판지의 여름 특집란을 통해 이론과 실천에 관한 기사가 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특집란에는 주로 주말캠프, 하이-Y캠프(고교생캠프), 캠프지도자 훈련과정, 소년캠프 등이었는데 대부분은 여름에 집중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야영활동은 학교라는 제도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보다는 YMCA와 같은 사회교육기관을 통해 소개되고 청소년을 위한 야영활동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청소년, 1938.7).

우리 나라 야영활동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수립 도약의 발전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1991년 체육청소년부(현재는 문화체육부)의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과 청소년기본법의 시행(1992년)을 통해 이루어졌다. 여기서 야영활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오늘날 야영활동은 야영장(71), 심신수련장(56), 자연학습원(9)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2) 야영활동의 프로그램과 주요내용

야영활동에서는 집에 있으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보다는 그렇지 않은 활동을 통해 배운다. 따라서 야영활동은 보통의 생활과 다른 환경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한다. 때로는 집단 내에서의 역할학습이나 공동생활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학습하기도 한다.

야영활동 프로그램의 기저에는 “행함으로써 배운다(Learning by Doing).”라는 철학이 자리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체득하고 건강관리나 유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더구나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운다. 야영활동에서는 이러한 체험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한다. 야영활동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열거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① 건강관리와 유지

야영활동의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동안 참가자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점점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 장소가 바뀔에 따른 수면 조절
- 생활환경의 변화나 화장실 상태에 따른 문제
- 취사장 등의 위생관리
- 적절한 휴식과 샤워시설
- 세탁과 건조 관련 문제
- 식단의 영양균형의 배려
- 사전 건강진단 소견서 활용

여기서 참가자는 물론 야영활동지도자들도 위의 사항에 유의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통한 건강관리와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② 안전대책

오늘날 야외에서 행해지는 모든 영역의 활동에 사고에 따른 책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대책은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각 개인의 건강상태의 파악을 기반으로 해서 사전에 충분히 답사를 하거나 기상변화에의 대응, 화상주의, 유해동식물의 유무, 장비나 도구에 대한 취급상의 유의사항 등에 관해서 세심한 주의를 하는 것은 물론 실시 직전에 재정비를 해야만 한다.

③ 자연에 대한 지식과 이해

야영활동의 장이 되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을 통해 자연을 바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자연계에 관한 지식을 풍부히 가지는 일은 야외생활에 필수적이다. 야영생활을 통해 자연과의 공존과 외경의 태도를 길러야 한다.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활동으로 야영활동은 참으로 현장교육의 실제 교육방법으로도 의미있는 활동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자연은 우리의 교사이자 교재이기 때문이다.

④ 기능의 습득

야영생활은 항상 위험이 함께 한다. 때에 따라서 생명에 관계될 만큼 위험에 부딪치는 일도 있다. 어떤 악천후의 상황 가운데서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그러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야영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기능을 올바르게 숙달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불을 사용하는 일, 야외취사방법, 로프작업, 텐트전개, 구급법, 독도법, 신호사용법 등이 있고 충분히 습득해야 한다.

⑤ 창의와 고안

야영활동에서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배운다.” 야영활동 속에서 활동상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고 무엇인가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우천 속에서 불을 피우고 취사하는 방법과 한그루의 나무에서 컵이나 젓가락을 만들어내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리하여 성취의 기쁨이나 발견 후의 감격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환언하면 가능성에로의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온다. 야영활동 프로그램을 창조나 고안을 할 수 있는 자연자원을 이용한 공작 등이 풍부히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3) 야영활동의 계획과 준비과정

야영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법·절차 등을 조리있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정보를 참고로 모든 상황을 상정하면서 활동의 일정을 합리적으로 배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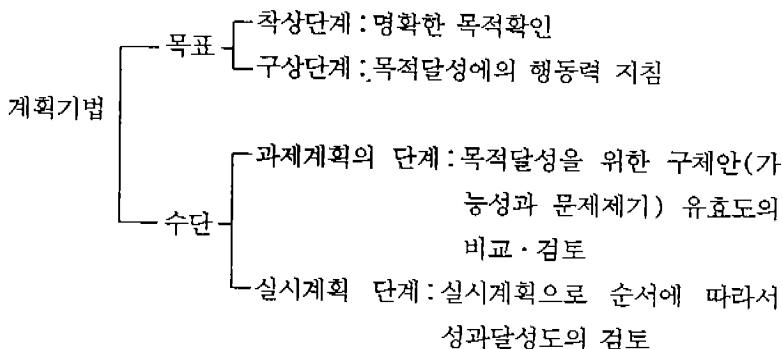
계획의 단계에는 활동의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를 시간적인 개념을 척도로 해서 그 활동의 내용을 재정, 자재, 장비, 음식물, 취사, 숙박, 수송, 광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계획은 결과를 예측하여 세워지는데 방법이 중심이 되는 과제중심과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이 있다. 야외활동에서는 이것들이 모두 동시에 고려된다.

계획기법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계획기법의 4단계



모든 요구와 필요를 기초로 대체안도 계획의 단계에서 검토되고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야영활동은 상황이 급격히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체안도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계획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야영활동의 계획과 준비과정을 재정계획에서 홍보 계획까지 나누어 설명해 보기로 하자.

① 재정계획

모든 활동이 그 재정계획에 따라 영향을 받듯이 야영활동도 예외는 아니다.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가자의 부담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금액은 적절한 것인지, 예비비와 잡비의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② 자재와 장비의 계획

야영활동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재와 장비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대상에 따라 다르고 단체나 시설부품의 유무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

첫째, 개인장비와 단체장비로 나누어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한다. 개인장비는 자칫하면 여분이 많은 경우가 있다. 경험없는 참가자는 특히 이 경향이 짙는데 단체장비에 대해서는 널리 알리고 개인비품의 참고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물재, 차용이나 매입은 신속히 준비하고 차용비품에 대해서는 수량, 반환일시,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소재자에게 연락한다. 또한 사용후 잘 점검하고 손질한 다음 반환한다. 대여한데 대한 답례를 잊어서는 안된다. 자재와 장비의 계획은 균형을 잘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

③ 음식과 취사계획

야영활동은 일상생활에 비해 활동량이 많고 에너지 소비도 많다. 야영장에서의 식사는 그러한 에너지의 보급이며 즐거운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영양과 위생 더구나 영양가 높은 것을 배분하도록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야영활동의 과정에서 식사의 특징과 유의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생활변화에서 오는 식욕의 변화나 증감
- 취사설비나 용구의 차이에 따른 변화의 예상
- 재료의 입수나 보관상의 고려
- 음식의 칼로리 양과 질에 대한 배려
- 식중독이나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

다음으로 식단 작성의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식마련이 신속히 될 수 있는 것
- 편성에 보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 영양의 균형이 유지될 것
- 수분, 염분, 당분의 보급에도 유의할 것
- 참가자의 기호도 사전에 알아서 받아 들일 것
- 비상식품, 휴대식품, 예비식품에 대해서도 생각할 것

④ 텐트설치와 숙박시설

야영활동이라 하면 텐트에서의 생활과 숙박을 우선 생각하게 되는데 반드시 텐트에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오두막이라 불리는 캐빈(cabin)이나 방갈로라고 부르는 로지(lodge)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고정된 텐트도 이용방법이나 대상자에 따라서는 야영활동

의 목적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야영활동에서의 숙박계획에 따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숙박이나 텐트설치의 배치계획을 미리 세워둔다.
- 본부, 회의장, 취사장, 의무실, 교실, 창고 등의 배치를 한다.
- 소집단 단위의 설치도 고려한다.
- 참가자의 행동이나 프로그램 운영상의 유념 그리고 물자운반의 수송경로도 고려한다.
- 안전과 위생확보에 유의한 배치계획 수립

⑤ 수송계획

구성인원이나 현지까지의 거리를 생각해서 시간·비용·교통수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계획이 필요하다. 여기서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에 귀를 기울여보면 첫째, 선발대원이나 마지막 잔류 및 정리 대원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도 좋다. 둘째, 물자나 자재를 별도로 옮기는 경우는 먼저 보낸다. 셋째,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대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⑥ 조직계획

야영활동에서는 소집단이 활동단위가 되어 공동체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음은 조직계획에 따른 유의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 가능한 한 많은 참가자가 역할을 분담함에 따라 참여의식과 책임감을 고조시킴
- 역할이나 직책마다 책임자를 두며 자발적 활동을 촉구한다.
- 본부에서는 관리나 운영으로 나누어 각각 책임자를 결정하고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한다.
- 참가자의 요구나 의사전달을 원활하게 하는 채널을 마련할 것
- 상호이해나 협력체제가 가능한 조직체계를 마련할 것
-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될 수 있게 할 것
- 상담이나 지도요원의 배치를 적절히 할 것

⑦ 홍보계획

야영활동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준비모임이나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야영활동의 목적·취지·성격·장소·일시·경비·준비물·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중매체나 인쇄매체를 통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야영활동의 기획단계에서 실시, 종료 후의 평가단계까지의 일정계획이나 준비절차 등을 정리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인식을 하고 도식화하여 야영활동의 지도자들이나 관리를 담당하는 요원에게도 자료를 배포하여 진행상황과 야영활동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항상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시 직전에는 진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계획의 진행상황 체크와 실시계획의 재확인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4) 야영활동의 평가

① 평가의 의의

평가란 일반적으로 정해진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나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야영활동에 있어서 평가는 활동의 목적이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알아보고 조사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활동과정이나 결과를 조사하고 평가는 그러한 조사에 근거하여 문제점 분석과 앞으로의 대안 마련이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지도자들은 참가자의 반응에 대해서, 프로그램 활동내용이나 상황에 대해서, 계획이나 조직운영에 대해서, 그들의 역할이나 직책은 다르지만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언제라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야영활동은 참가자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활동이며 운영이나 진행의 지도자들도 교육자로서 야영활동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지도자들은 지속적으로 참가자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그

장소에 따른 최적의 방법과 행동이 요구되며 그것을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확인해 두어야 한다. 결국 하나하나의 결과가 그 지도자 자신에 의해 평가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평가를 위해서는 야영활동프로그램 중에서 가끔 활동하고 관찰도 하며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으며, 목적달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것은 목적달성에의 적극적인 활동이 되고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야영활동은 설명 목적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적 의의는 감소하고 때로는 역기능조차 미치게 된다.

② 평가방법

야영활동의 평가를 위한 방법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 질문지(설문지)
- 평가문항들(checklist)
- 토의법(집단토의)
- 참가자의 체험기록
- 프로그램 영역의 실기테스트(test)
- 관찰기록

위의 평가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할 필요는 없겠지만 야영활동 후 참가자들의 생활과 행동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관찰해 두는 것은 야영활동의 효과를 확실히 하는데 용이한 방법임과 동시에 또한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야영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을 상대로 추수지도(follow-up)도 잊어서는 안될 사항이다.

③ 평가의 실제

야영활동의 평가에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방법은 질문지(설문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야영활동의 설문지 평가에서는 아래와 같은 영역이 자주 평가항목에서 발견된다.

—야영활동의 목적은 달성되었는가?

- 참가자는 자주성과 협력성을 높일 수 있었는가?

- 참가자의 창의력은 높아졌는가?
- 참가자의 생활태도는 달라졌는가?
- 학습의욕은 강했는가?
- 사회성의 향상은 성취되었는가?
- 야영활동의 프로그램은 좋았는가?
 - 기후는 어떠했는가?
 - 프로그램의 진행은 순조로웠는가?
 - 프로그램은 적절하였는가?
 - 장비와 도구의 문제는 없었는가?
 - 지도자들의 지도력은 어떠했는가?
- 야영활동의 시설은 어떠했는가?
 - 수용능력은 적절했는가?
 - 소그룹 편성은 적절했는가?
 - 시설에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환경, 건물(텐트), 위생설비, 취사불, 운동장, 등
불, 매점과 기타 시설)
 - 교통에 지장은 없었는가?
 - 통신에 지장은 없었는가?
 - 지원체제의 협력은 얻었는가?
 - 구급처치체제는 적당하였는가?

야영활동의 평가 기준에 대한 체계적 모형의 설정은 미국 ACA를 통하여 배울 수 있다(ACA, 1980).

첫째, 야영활동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야외생활
- 즐거움과 모험
- 사회적 적응(공동체 의식과 집단생활의 가치)
- 여러 가지의 배경을 갖는 개인 및 그룹의 이해

－건강 증진

－야외생활에 관한 기능 및 이해력

둘째, 프로그램은 야영활동의 일반목표 및 각각의 캠프가 설정하는 고유의 목표달성을 향해서 잘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하므로 이들 목표는 문서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프로그램은 자연환경 속에서 공동체 생활과 자연을 배우는 것을 중심적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범주 속에 참가자와 야영활동 지도자의 협력에 의해서 활동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 및 각 개인 스스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야영활동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연령, 능력, 흥미에 바탕을 두고 계획되어야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은 휴식과 명상시간을 위해서 개인 단위, 소그룹 단위, 전체단위의 영역 구분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프로그램의 진행 정도와 강도는 적당히 조절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서 참가자는 한가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으며 자기 자신의 의지 및 리듬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끝으로 야영활동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참가자가 다음과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야영활동은 야영생활에서 얻은 모든 경험을 통해 정서적 순화(refreshment)를 돕는 일

－소집단에서의 특별행사와 사교적 활동에 참가하는 일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

－환경의 이해를 촉진하도록 하는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환경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배우는 일

야영활동의 평가항목의 설정은 위에서 살펴본 기준을 참고로 해서 만들 수 있다.

2) 자연체험활동

(1) 개 관

배운다든가 학습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책상에 앉아 책을 읽는 것 더구나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정한 스케줄에 따라 실시되는 것을 상상하기 쉽다. 그러나 배운다는 것은 가장 넓은 범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학습능력이 높다고 할 때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이 경험에 의해 변용되어 가는 것이란 뜻이다. 즉, 다른 동물은 행동이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데 비해 인간의 경우에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들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는 측면과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문화를 본받아서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체험활동은 “자기자신이 실제로 보거나 듣거나 행동하여 아직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적아 있는 상태로 이행하는 일”이다. 따라서 자연체험활동이란 자연이라는 실제 장면에서 보거나 듣거나 행한 일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자연에 접촉하고 체험한다는 사실은 청소년 자신들의 정신적인 안정성 유지나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태도형성이나 창의력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연은 청소년의 성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연을 알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원적인 대답은 우리자신이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학의 진보가 자연의 상태에 각종 수정을 더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생명도 다른 동식물의 생명과 같이 자연에 의해 길러지고 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든지 ‘자연의 품 속에 안긴다’라고 하듯이 자연체험활동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안도하는 것은 자연이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토양이기 때문일 것이다.

자연에 그다지 접하지 않았던 청소년들도 그들 속의 자연성이 대자연에 감응하는 결과와 같이 평범한 지도 아래에서 순식간에 자연에 친숙해지고 자연을 사랑하도록 되어가는 불가사의함은 많은 사람들이 실감하고 있는 점일 것이다. 자연은 훌륭한 교사이며 교재임에 분명하며 청소년들로부터 살아있는 활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자연체험활동이란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산천초목, 화조풍월에 접촉하는 것, 우리자신도 또한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실감하고 주위의 자연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이다(坂本昇一, 1992). 자연의 순환구조를 파괴하면 인간세계도 붕괴한다는 것을 과학은 가르치고 있다. 장래 이 과학의 경고를 새기고 자연보호나 환경보전의 태도로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도시화 속의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활동을 권장해야 한다.

(2) 주요내용

학교교육에서 자연체험활동은 주로 자연학습원, 자연교실, 임간교실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자연교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풍부한 자연환경 속에서 단체생활을 통한 인간적 만남을 심화시키고 자연과 심신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이다. ‘자연교실’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대자연 속에서 일정 기간 정해진 규율과 교과과정을 통해 공동체적 생활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 중에서 자연학습원은 자연체험활동의 전용시설이다. 자연학습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연학습원 현황

관련기관 (단체)	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주요시설	수용 능력 (인)	이용대상
			부지	건물			
내무부	강원	강원도 원성군 소초면 치악산 국립공원내	47,448	1,953	숙박동, 연수동, 운동장, 캠프파이어장, 자연관찰로	144	• 학생 • 일반인
내무부	충북	괴산군 송면 속리산 국 립공원	66,116	1,522	연수동, 숙박동, 관리실 및 화장실, 자연관찰로, 등산로, 심신단련시설, 식 당, 수목원, 야영장, 운동 장, 전시실, 사위장	120	• 학생 • 청소년 및 직장단체
내무부	충남	공주군 반포면 계룡산 국립공원	56,198	1,732	연수동, 숙박동, 식당, 관 리동, 화장실, 심신수련장 시설(9종)	150	• 학생 • 청소년 및 직장단체
내무부	전북	무주군 안성면 덕유산 국립공원	69,421	2,086	연수동, 숙박동, 운동장	250	• 학생 • 청소년 및 직장단체
내무부	전남	담양군 수북면 병풍리	515,702	1,884	연수동, 숙박동, 자연관찰 로, 등산로, 심신단련시설, 운동장, 박물관, 수영장,	200	• 학생 • 청소년 및 직장단체

관련기관 (단체)	시설의 명칭	위 치	규모(㎡)		주요시설	수용 능력 (인)	이용대상
			부지	건물			
내무부	경북	구미시 남동동 금오산 도립공원	132,231	1,541	연수원, 숙박동, 자연관찰 로, 등산로, 심신수련시 설, 운동장, 박물관, 수영 장, 식물학습장	150	• 학생 • 청소년 및 직장단체 • 자인보호 회원
내무부	경남	경남 산청군	165,300	1,712	연수동, 숙박동, 야영장	100	• 학생 • 청소년 및 직장단체
내무부	제주	제주도 북제주	476,033	132	관리사, 자연관찰로 및 산 책로, 심신단련시설, 주차 장, 운동시설, 화장실, 오 물처리장	174	• 학생 • 청소년 및 직장단체

자연학습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① 자연에 대한 외경, 소박한 감정, 신비로움 등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내용
- ② 자연의 생태적 이해를 촉진시키는 내용
- ③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현상적으로 인식하고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을 꾀하는 내용
- ④ 자연환경의 오염을 줄이는 생활의 방법을 배우는 내용
- ⑤ 자연 속에서 일상생활에서는 볼 수 없는 생물을 찾거나 전체를 관찰하는 활동 등을 통해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친근감을 키우고 자연을 애호하고 또 자연과의 상호관련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내용

(3) 자연체험활동의 지도방법

자연체험활동의 지도방법에는 우선 자연관찰안내서를 청소년에게 지도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미리 자연관찰의 코스나 관찰하는 대상을 지정하고 있는 인쇄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것이다.

자연관찰안내서를 이용하게 되면 참가자 모두가 같은 일을 공통으로 체험하고 게다가 그들의 주의를 같은 방향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관찰안내서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사용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즉 과제를 준다, 흥미있는 사물을 보인다, 용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한다, 사고를 자극하고 서로 말하기 등이다.

물론 이 안내서는 단순히 지도의 보조수단이고 교사의 역할을 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안내서가 그 자연환경의 범위 안에서 바르게 사용된다면 지도의 가장 효과적인 보조수단으로서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직접체험법이 있다. 이 방법은 주로 수목이나 조류에 관해 알아볼 때 쓰는 방법이다. 수목에 대한 학습을 시작할 때에는 처음에

책에서 지식을 얻어 그로부터 자연 속으로 가는 것보다 우선 도감을 손에 들고 직접 자연 속에 나가는 직접적인 체험을 가지는 일이 중요하다.

처음은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나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나무야말로 그 이름이 알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나무에도 이름은 붙어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이름만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아는 것이다. 이 지도기술은 모르는 것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그것에 대해 가능한 많은 사실을 발견하려고 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나무의 촉감이나 색이나 모양, 꽃봉오리의 색이나 형태, 나무 전체의 형태 등 모든 것을 세밀히 관찰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조류를 발견하거나 새에 대해 자세하게 알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찰할 새를 불러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 새를 불러들이는데 성공하면 다음은 어떻게 새에 대해 배우면 좋을까. 단순히 새를 보는 것만으로는 그 새를 알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우선 새의 크기, 모양, 색깔, 형태 등에 대해 관찰을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관찰하는 체험을 통해 사물을 정확히 인식하는 힘을 몸에 익히게 되는 것이다. 새를 식별하는 방법은 새의 외형적 모습만은 아니다. 울음소리를 주의깊게 듣는 일은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들리는 대로 기록하는 일이 모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서식하는 장소나 비행방식을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다.

통찰력있는 지도교사라면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답을 가르쳐 주는 일은 매우 신중을 요하는 일이란 사실을 곧 배우게 될 것이다. 자연 속에서 배울 때는 가능한 한 스스로 관찰하고 정보를 획득하고 그리고 답을 찾아내어 가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자연 속에 있는 무수한 ‘미지의 것’에 대해 자기 나름의 답을 발견하게 된다.

(4) 자연체험활동의 유의사항

자연체험활동의 유의사항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오늘

날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연체험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발전적 내용의 체험 도입 그리고 통합적 활동의 준비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

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 사회가 급변하고 발전함에 따라 자동화와 분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나 학교에서도 또래집단의 관련이 적어진다. 예를 들면 부분활동이라는 분업화한 활동은 그냥 하지만 자신이 분담한 일 이외에는 전혀 손도 대지 않는다. 상대방과 관련하여 활동하거나 자연과 관련지어 생활하는 체험을 청소년들에게 하게 함으로써 ‘연관된 일’의 중요함을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한다. 특히 인간과 자연과의 관련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 바람직하다.

자신이 사회에 의해 다른 사람에 의해, 자연에 의해 활용되었음을 알았을 때 비로소 사회나 자연 속에서 자신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은 ‘관계된 일’ 중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② 계발적(啓發的) 내용의 체험을 도입해야 한다. 계발적 내용의 체험이란 진학을 포함해서 직업선택에 불가결한 모든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의 능력과 적성 그리고 흥미 등의 경향을 발견하고 해석하고 평가한 후 자신의 단점을 보충하고 장점을 신장시키는 것이다(田村鍾次郎, 1992, p.40). 계발적 내용의 체험은 근로관이나 직업관 형성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계발적 체험지도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탐색적 활동을 통해 각 개인에게 직업생활의 실제와 인간으로서의 바람직한 생활방식을 체험적으로 이해시킨다. 그에 따라 장래 직업생활 중에 충분한 자기실현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 등을 익히게 함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지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계발적 내용의 체험은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에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사회봉사’도 가치관 형성의 측면에서 필요가 있는 것이다.

③ 통합적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자연체험활동의 장에서 청소년들은 지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문화적 측면의 모든 인간 활동의 통합체로 활동한다. 다시 말해서 전인적인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자연체험활동은 전인적이며 개별적임과 동시에 ‘알아차리는’ 학습을 동반한다.

지도교사는 ‘가르치는’ 학습이 아니고 청소년 개개인의 ‘알아차리기’를 중요시하는 전인적이고 개별적인 활동에 유의를 해야 한다.

자연체험활동에 관한 연구보고서(坂本昇一, 1988)에 의하면 자연체험활동에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생존능력(survival skill)에 대한 자신감을 강하게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부모의 도움없이 자신의 힘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체험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귀중한 것이다.

3) 모험활동

(1) 개 관

현대는 모험상실의 시대라고 한다. 왜냐하면 현대는 고학력사회, 과잉보호, 사무직 선호경향(white color), 생활환경과 양육태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생활 중에는 모험이라고 불리워지는 행위가 있고 그것이 인간의 성장을 지탱해왔다는 것은 경험적 사실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모험활동(adventure activity)은 대자연 속에서 행해지가 때문에 불확실성과 비밀상성의 미지의 세계가 있으며 필히 모험적 혹은 탐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모험활동이란 자연환경 속에서의 위기와 긴장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거나 이용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이 용어는 아직 일반화된 용어는 아니고 탐험활동이나 탐사활동으로도 불리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존 프로그램(survival program)이라고도 한다.

야외교육의 이론가이며 실천가인 Mortlock(1978)은 모험활동을 야외교육의 중요한 일면으로 위험성을 내재한 여러 종류의 야외교육을 이용한 활동으로 이해했다. 그는 또한 모험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이 서로 의존성을 가지면서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Cousineau(1977)는 모험활동을 “자연환경에 놓여진 모험적인 활동경험과 그것에 수반되는 친밀한 소집단으로서의 활동을 통해서 인격의 성장과 발전을 꾀하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또한 모험성의 요소로서 “새로운 경험, 비밀상성, 비확실성, 위기상황, 도전하는 의욕, 신뢰, 안전 등을 들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모험활동은 자연환경 속에서 참가자들의 모험적인 행동을 통해 참가자의 자아발견, 인간관계의 이해, 환경의 인식, 야외생존기술(survival skill)의 습득을 꾀하는 교육활동이다.

(2) 교육효과

모험활동은 자연에 대한 도전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활동이요, 탐구활동이다. 최근에 야외활동의 한 영역으로서 모험활동은 한국해양소년단이나 한국보이스카웃연맹, 한국청소년연맹을 통해 실제로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모험활동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모험욕구의 충족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중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건전한 모험심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빈곤하다. 자연환경은 그 자체가 미지의 세계를 갖고 있기에 흥미나 탐구심을 유발하고 또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생겨나고 직접체험에 의해 해결되는 장이다.

② 자아발견 혹은 자기자신의 성장

모험활동의 참가자는 자기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자신의 잠재능력과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다루기 어려운 과제이면서

도 곤란한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개념의 향상에도 모험활동은 유효한 활동임에 틀림없다.

③ 인간관계의 이해

소집단에서 하루종일 함께 생활을 하다보면 협력을 필요로 하는 긴장과 모험이 뒤따르는 과제가 있게 된다. 여기서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신뢰와 친밀한 인간관계가 제기된다. 이것은 참가자 상호간만이 아니라 참가자와 지도자 사이에서도 번번히 볼 수 있다.

④ 자연환경의 이해

모험활동은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배울 수 있고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과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배울 수 있다.

⑤ 야외생존기술을 터득할 수 있다.

모험활동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 기반이 되고 야외생존기술을 비롯한 각종 야외생활 기술을 습득해야만 한다.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는 외에는 참가자는 의욕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습득해 간다.

⑥ 문제행동의 치료

모험활동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이나 정서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의 치료에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 모험활동 프로그램이 임상적으로 왜 치료효과를 거두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치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3) 지도방법

모험활동에는 대체로 위험도가 뒤따르지만 치밀한 계획과 유능한 지도자가 있으면 위험도의 수준이 낮아지고 다른 야외활동과 같이 실시할 수가 있다. 기술도 없고 미숙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험활동의 지도방법은 단계적으로 참가자의 특성에 유념해서 지도를 해야 한다.

제 1 단계 : 기초단계

모험활동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이니셔티브 게임(initiative game)을 통해 협력체제와 신뢰관계를 양성함과 동시에 긴장과 위협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체적 훈련과 정신적 훈련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 또 그 후에 모험활동에 필요한 기초기술에 대해서도 연수훈련을 받아야 하겠고 생존기술(survival skill)과 각종 모험활동의 예비적 지식을 잘 학습해야 한다.

제 2 단계 : 대응단계

소집단의 규모는 8명 내지 10명이 적당하고 여기에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에서 학습하고 훈련받은 여러 기술들을 실제에 응용함으로써 확실히 자신의 기술로 만들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숙박을 동반한 등산이나 하이킹을 떠나게 되는데 이 원정을 통해 소집단 내의 인간관계 육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원정을 계획할 때 절기, 숙박방법, 코스의 종류, 보행거리, 행동의 시간대, 장비의 분량 등에 따라 스트레스 요인을 통제하고 참가자의 수준에 맞는 원정을 할 수 있다.

제 3 단계 : 자립단계

이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개인으로서 혹은 집단으로서 독자적으로 행하게 된다. 개인으로 행하는 경우는 솔로(solo)라고 일컬어지고 최소량의 장비와 식량을 가지고 자연 속에서 혼자서 하루에서 사흘 정도를 지내는 것이다. 또 집단에서 행하는 경우에는 원정의 계획과 준비 단계에서 모두 자신들의 손으로 하고 지도자를 동행하지 않고 원정을 하는 것이다.

모험활동의 기초를 훈련하는 OBS(Outward Bound School)에서는 위의 3단계를 일반적으로 26일간의 코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은 청소년들에게 생존기술과 모험 그리고 체력단련을 강조하는 교과과정으로 강인한 정신과 인내심을 키우는데 기여하고 있다. 체력단련활동으로서 또는 모험활동을 위한 기초기술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민간차

원의 학교로서 OBS는 인명구조훈련도 빼놓을 수 없는 교과과정으로 포함하고 있다.

아직 OBS와 같은 체제를 가진 기관이나 시설이 일반적이지 않은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생각하면 일주일 정도의 원정에서 제2단계까지 행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계획작성에 있어서는 충분한 예비조사와 정보수집에 따라 자연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램 만들기를 우선으로 하고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수준의 모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취감과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다.

(4) 유의사항

모험활동을 즐기는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은 그들의 안전과 성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첫째, 설령 일시적이긴 해도 일상생활과는 다른 긴급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참가하는 각 개인이 의욕을 가지고 모험활동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선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도모하고 생존기술(survival skill)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경험이 수반되어야 한다.

3. 청소년 야외활동의 방향

최근에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야외활동의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특히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다양한 야외활동 욕구와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조직과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양적인 증가만큼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훈련된 지도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청소년 야외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발전 과제와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대사회에서 야외환경교육의 일환으로서 야외활동의 위상정립이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요컨대 야외활동이 야외에 있어서, 야외에 대한, 야외를 위한 교육활동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그것을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실천사항이 가시적이어야 한다. 또한 그것은 단지 생활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이 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야외활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여가의식을 바르게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여가산업에 대한 소비자로서 수동적인 소비에 그치고 진정한 의미의 야외활동이 싹트기가 어렵다. 야외활동은 건강증진과 정신적 안정에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야외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과 시설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야외활동의 촉진을 위해 야외활동의 교육적인 효과를 심화시키는 기능과 조직체제의 측면에서 과감한 예산배치와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야외활동은 효과적인 야외활동의 방법을 숙지하고 개발해야 한다. 요컨대 낡은 패턴과 에너지를 고집하지 말고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본문 요약

야외활동은 야외에서의 제반활동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인간과 학적 노력의 총체이다. 야외활동은 인간이 자연 속에서 성장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서 문화창조를 추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야외활동은 일상생활의 주기를 벗어나 스스로 활동하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공동체적인 생활을 통해 자기발견의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다. 뿐만 아니라 야외활동은 삶을 위한 생활교육이요, 여가선용을 위한 교육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야외환경교육으로 자연과 인간과의 관련성에 관한 생태학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포괄적인 야외활동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여가의 유효 적절한 이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준다.

먼저 야외활동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야영활동이다. 야영활동의 이론적 기저로서는 “행함으로 배운다(Learning by Doing)”는 진보주의 교육철학이 자리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체득하고 건강한 삶의 유지와 확장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더구나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게 된다.

다음으로 자연체험활동이란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산천초목, 화조풍월에 접촉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도 또한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실감하고 주위의 자연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이다. 인간이 자연의 순환구조를 파괴하면 인간세계도 붕괴한다는 것을 역사는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보호와 환경 보존의 태도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활동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험활동이란 자연환경 속에서 위기와 긴장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거나 이용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이며 탐험적 요소와 탐사적 활동요소를 가지고 있다.

모험활동은 청소년들에게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단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절박한 상황 아래에서 생존능력을 배양시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모험활동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이나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의 치료에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야외활동은 야외에 있어서, 야외에 대한, 야외를 위한 교육활동으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다.

연구과제

1. 야외활동, 야외교육, 환경교육에 관한 의미를 조사해서 비교하시오.
2. 야외활동을 위한 계획과 준비의 단계에서 중요한 점검사항 (checklist)을 작성하시오.
3.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야외활동이 가지는 교육적 의의와 기 대효과는 무엇인가?
4. 학교에서 자연체험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 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야외활동의 실태와 문제점을 토의하시 오.

참고 문헌

- 구창모 외(1992), 바들산체험활동, 서울:한국청소년연구원
- 리더스다이제스트(1990), 경이로운 대자연:자연을 관찰하고 감상 하는 방법, 서울:동아출판사
- 전국재(1988), 캠핑의 이론과 실제, 서울:도서출판 엠마오
- 조용하(1993), 야외교육활동론(개정중보판), 서울:교육과학사
- _____ (1993), “청소년 야외수련활동의 현상과 과제”, 청소년학 연 구, 제1권 제1호, 한국청소년학회
- 坂本昇一(1992), 自然體驗活動, 東京:ぎょうせい
- 日本野外教育研究會(1989), 野外活動 テキスト, 東京:杏林書院
- 田村鍾次郎(1992), 體驗學習を創る, 東京:東洋館出版
- Ford, Phyllis M(1981), *Principles and Practics of Outdoor/En-vironmental Education*, New York:John Wiley & Sons
- Hammerman, O. et. al(1985), *Teaching in the Outdoors*, Dan-ville, IL.:The Interstate Printers and Pub

3.5

인간관계수련활동

개 관

청소년기는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 누구나 거쳐야 할 시기이며, 또한 청소년지도자는 거쳤던 시기인만큼, 지금 청소년기에 돌입하고 있거나 돌입해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인간관계수련활동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가치로운 삶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그 의의를 둔다.

주제어

청소년기의 욕구와 문제, 집단역학, 집단활동, 집단에서의 경험, 집단치료, 교육적 훈련, 지금—여기, 감수성훈련, 열려진 만남, 인격적 상호의존, 의사소통, 자기노출, 관찰적 참여

* 전성민, 유네스코청소년원 교수

1. 청소년기의 특성과 인간관계수련활동

1) 청소년기의 욕구 및 문제의 특성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하고 전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칠 가치체계를 발달시키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욕구 중의 하나는 자기신뢰감과 자기존중감을 획득할 수 있는 성취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광범위한 그들의 느낌을 인지하고 체득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 느낌, 생각 그리고 신념들을 자신들에게 의미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과 어떻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감할 수 있는가를 배우고자 한다.

청소년은 그들 자신의 갈등과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외롭다는 느낌을 흔히 가지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극히 외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아직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과 그들 자신이 획득하여야만 하는 사항을 식별하는 것을 배워야만 하는 생의 한 단계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의존과 독립이라는 상태가 중심이 된다.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는 동안 다른 부분들은 보장되기를 갈망한다. 청소년들은 직업적·교육적 선택과 같이 그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결정에 대처하여야만 된다. 그들이 이러한 선택들을 폭넓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관심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 및 대학진학과 같이 구체적인 사항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성적인 갈등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性)에 맞는 행동을 위한 중요한 지침을 원할 뿐만 아니라 성역할의 정체감에 따른 문제를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경험하는 한 부분이 된다. 그들은 남성 혹은 여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남성상과 여성상은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실제적인 어

려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청소년들은 그들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출세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그들은 중요한 결정에 대한 자유가 자신에게 맡겨지기를 원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진심어린 지원과 지침 및 한계를 원한다.

청소년기의 특성중 하나는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속박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그 제한점들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흔히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심에 따른 두려움을 감추고 새롭게 느껴지는 자율성의 과시에 의해서 의존에 대한 욕구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종종 변덕스럽고, 부정적이며 반항적이다. 청소년들의 반항은 자기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서 보다는 그들 자신이 어떠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고자 원하는 가를 주장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의 경험은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영향이다. 또래집단에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수용에 대한 실제 이상의 과장된 욕구에 의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점차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미래상을 찾는 위험성을 갖게 된다. 즉, 또래집단에 의한 수용에 대한 욕구는 자존의 욕구보다 종종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경험을 탐색하거나 또는 고통스러운 느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약물이나 알콜에 의존하는 것과 같은 청소년문제를 야기시키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에 대한 것보다는 이 세상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비관적이고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때때로 그들은 사회로부터 이탈하고자 원할지도 모르지만, 평소에는 이상적으로 이 사회를 개혁하고자 노력하고 있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삶의 의미를 찾고, 무력

감을 극복하는 것과 같이 우리사회에서 기성세대가 직면하게 되는 것들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기성세대들은 행동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전에 은퇴를 강요당하고, 청소년들은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일의 세계에 합류하기 위한 본질적인 기술을 아직 습득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종종 불확실성을 나타내곤 하는 미래에 대해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청소년기는 모순이라는 단어로 특징지워지는 어려운 시기이다. 즉 그들은 친밀함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도 하고, 통제에 반발하기도 하지만 지시와 피동적이 되는 것을 원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부과되는 제한점들을 부정하고 확인하면서, 어떤 제한점들은 보호의 의미로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완전한 자율성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마치 성숙한 어른처럼 행동하기를 요구받기도 한다. 그들은 특히 높고 정리된 자기중심적·자의식적 세계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그들의 시각을 보다 넓게함으로써 자기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요구받는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수용하기를 요청받음과 동시에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의 유혹을 받는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를 충고받지만, 순간적인 삶과 쾌락적인 삶에 대한 강한 충동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극성들은 청소년기가 특히 격동적인 시기이고 두드러지게 외로움과 고립을 느끼게 되는 시기라는 것을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된다.

2) 청소년활동으로서의 인간관계수련활동

인간관계수련활동은 청소년기 고유의 고독감을 극복하고 만족할만한 삶을 성취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을 하는데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사항들은 청소년들의 발달과업을 돕기 위한 수련활동의

필요성 및 성격을 명백히 나타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특히 인간관계수련활동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요소를 확인하고 경험하며, 그들이 어려움으로 느끼는 것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가치에 대해 질문하며 그들이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들에 대해 수정하고, 또래집단과 성인들과 교감하는 것을 배우고, 지도자에 의해서 제공된 형태로부터 배워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공한 것들을 어떻게 수용하며 이에 자기 자신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적당한 수련활동이라 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느낌들을 정리하고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인간관계수련활동의 집단은 현실감을 갖고 경험하며 제한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장소를 제공한다. 인간관계수련활동의 독특한 가치는 상호간의 성장에 있어서 청소년 각자가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즉 인간관계수련활동에 있어서 집단구성원들은 자기이해를 위한 각자의 노력을 서로 돕는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집단이 청소년들에게 그들 스스로 표현하고, 경청하며, 그들의 또래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2. 인간관계수련활동의 이론과 실제

1) 인간관계수련활동의 발전

인간관계수련활동은 집단역학(group dynamics)과 같은 집단활동(group work)의 이론을 심리치료적인 목적에 응용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심리치료에 관심을 가진 많은 학자들은 집단을 활용하는 치료집단(therapeutic community)을 형성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게 함으로써, 심리치료사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치료요인으로 작용하도록 발전시켰다.

즉, W. Bion은 「집단에서의 경험(Experience in Groups, 1959)」을 통해서, M. Jones는 「집단투사법을 통한 집단치료(Group Treatment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Group Projection Methods, 1944)」라는 논문을 통하여 치료적 상황을 “의사-환자”의 관계에서 “환자-환자”의 상호작용으로 변화시키는데 공헌하였다. J. Moreno에 의해 발전된 심리극이라든가 S. H. Foulkes와 E. J. Anthony의 「집단 심리치료-심리분석적 접근(Group Psychotherapy: The Psychoanalytic Approach, 1957)」 등의 연구들은 인간관계수련활동을 위한 중요한 터전이 되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종래의 심리치료적인 입장에서 교육적 훈련에 중점을 두게 되고, 집단이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지적 학습보다는 정의적 학습에 치중하면서 행동화에 역점을 두는 인간관계수련활동의 기초가 마련된 것은 1946년 여름 코네티컷주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였다. 그 모임의 성격은 심리학자들과 연방정부의 관리들이 모여 정부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리더쉽을 발전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었으며, 이 모임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중부 유럽출신으로 게쉬탈트심리학자로 미국 심리학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Kurt Lewin, Kenneth D. Benne, Leland P. Bradford, Ronald Lippitt 등이었다. 초기에는 10명씩으로 구성된 여러 소집단 모임에서 회원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지도자들은 자체평가 모임 때마다 각 소집단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였으며 이 모임에는 소집단 중에서 대표되는 몇 사람을 함께 참석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지도자들의 개입과 구성원 상호간의 작용으로 인하여 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이와 같은 지적에 따라 지도자들은 사전에 의도되지 않은 활동을 통하여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수단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 후부터 리더쉽 연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의 핵심을 대인간의 상호작용 안에서 발생하는 「지금-여기(here and now)」라

는 학습의 장에 초점을 맞추도록 결정하였으며, 이것이 곧 인간관계수련활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인간관계수련활동의 창시자인 K. Lewin은 집단역학의 기초적 연구와 그 원리에 따른 사회적·실험적인 행동연구에 주력하였고, 이를 통하여, 협동적인 창조성 개발이외의 집단학습방법을 발견한 후 인간관계의 실험실 훈련이라는 집단훈련의 방법을 고안하여 실험적으로 이행하기에 이르렀다. 즉, 1947년도에 Maine주 Bethel에 위치한 National Training Laboratories Institute for Applied Behavioral Science에서는 자아실현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심리학자, 교육학자, 인류학자, 의사,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T-Group의 시초가 되는 실험실 방법(laboratory method)이 시도되었다. 그 이후 참만남 집단(encounter group),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 마라톤집단(marathon group), 감각적 의식증진집단(sensory awarers) 등으로 발전하였으며 다원적 사회 속에서 자유인의 책임과 민주적 참여의 개념이 결합되어 인간관계훈련(human relation training)이란 이름으로 종합되었다.

이러한 인간관계훈련과 관련된 노력들은 1960년대에 들어와 그 대상을 인간성장과 조직개발로까지 범위를 넓혔고, 동시에 동양적인 방식의 선이나 명상법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발전된 과학적 방법들을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인간의 문제해결을 촉진시키는 데에 활용하고, 이념적으로 지도력을 평가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함하여 민주적 상호교환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변화와 기술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사람들에 대한 적용과 조직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간관계수련활동이 우리 나라에 소개된 것은 1971년도의 일로, 전남 광주에서 전남카운슬러협회가 주최한 4박 5일 과정의 “국제 카운슬러 워킹숍”에서 일본카운슬러협회의 伊東博 교수 등이 Training

Group에서 발전한 Learning Group 형식의 연수를 통해서였다. 그 후 1971년 9월 한국카운슬러협회가 안양농민교육원에서 2박 3일과정의 연수를 주최하면서 점차적으로 보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인간관계수련활동의 기본명제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수련활동이 발전되어온 과정이나 그 배경을 이루는 이론적 기초는 심리학에서 출발하여 많은 인접과학의 발전에 그 터전을 두고 있으나,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인간관계수련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 가지 명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인간은 인간관계의 산물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관계의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됨」은 이러한 관계구조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H. S. Sullivan은 그의 성격이론에서 성격이란 순전히 가설적 혹은 환상으로서, 인간관계상황을 떠나서는 관찰 또는 연구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성격이란 인간관계의 장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과정의 역동적 중심이라고 하였다.

(2) 모든 참 삶은 만남이다.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을 만남의 과정으로 이해하거나 「만남」 자체로서 이해할 수도 있다. 여기서의 만남은 단순히 「스치는 관계」의 만남이 아니라 「열려진 만남」을 의미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우주의 만물과 함께 존재한다. 「모든 참 삶은 만남이다」라는 명제는 M. Buber의 것이다. 그는 「나와 너의 관계(I-thou relationship)」와 「나와 그것과의 관계(I-it relationship)」로 나누고 인간의 본질적 관계를 설명하였다. 즉, 인간은 만남의 객체가 아니라 서로 열려진 존재로서 주체적으로 만난다. 그러한 만남을 통하여 인간의 주체적 삶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3) 집단이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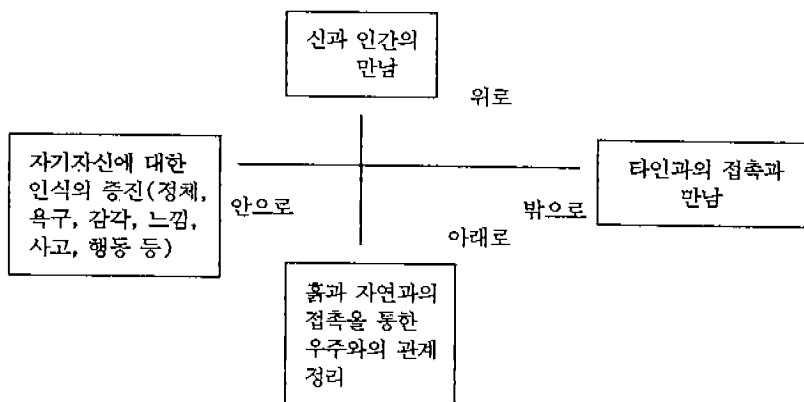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집단역학에 대한 이론은 인간의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집단이 작용하게 만들었다.

K. Lewin에 의하여 실험적으로 시도되는 집단에 대한 연구는 집단이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들어내 주었다. 결국 집단은 집단응집력과 집단과정을 통하여 독특한 집단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나름대로의 발전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집단에 속한 집단구성원은 집단 특유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영향을 주고 받게 되며 집단은 생활의 장으로 작용하게 된다.

3) 인간관계수련활동과 관련된 몇 가지 개념

(1) 인간성장

인간관계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다운 사람이 됨」에 있다. 「사람답다」는 것은 「인격적 상호의존」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관계수련활동은 인간성장에 그 목표를 두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개발하고 그 관계를 통하여 나와 세계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면서 인간의 자아실현에 접근해 보자는 것이다. 인간성장(human growth)과 관련된 차원과 범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다.



자료: Burton Giges & Edward Rosenfeld

비지시적(non-directive) 혹은 내담자 중심(client-centered)의 치료법으로 유명한 C. Rogers는 인간성장을 인간관계의 진실성에서 찾는다. 그는 이러한 진실성은 두 사람이 서로 접촉하려는 최소한의 자발성과 다른 사람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능력과 자발성 그리고 일정기간동안 계속되는 접촉을 전제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진 관계는 경험으로서의 개방, 방어성의 부재, 정확한 의식, 무조건적인 자애, 타인들과의 조화있는 관계를 통하여 완전한 기능을 하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J. Gibb은 인간성장의 여러 측면을 신뢰, 개방, 상호의존 및 자기실현으로 표현하였고 A. Maslow는 인간의 잠재력 발현으로, C. Moustakas는 자기성장과 인간관계 속의 성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을 고려하여 보면, 인간관계수련활동의 목표로서의 성장이라는 의미는 첫째,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지각과 사고와 느낌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며, 둘째,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며, 셋째, 인간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내포한다.

(2) 자기노출

자기노출(self-disclosure)은 자신을 들어내 보이는 것, 자기를 보여 주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행동이다. 인간은 자기노출을 통하여 참다운 자기발견이 가능하며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Jourard는 “인간은 자기를 타인에게 노출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참다운 자기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자기노출을 할 수 있게 되면 참 자기와의 접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이에 따라서 그러한 접촉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운명을 좀 더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자기자신에 관한 일이나 자기자신의 느낌을 조금도 꾸밈없이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타인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단

계이며 인간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요인임과 동시에, 심리적 정화작용을 가능케 하여 정신건강의 유지나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성격이 원만한 사람들도 자기노출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자기노출과 자기이해를 포함하여 인간관계의 개선과 관련하여 「Joharry의 창」은 좋은 시사를 준다.

아래의 도표를 중심으로 보면, 좋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만남은 II, III, IV의 영역을 줄이고 I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관계수련활동을 통해서 장님영역(II)과 은폐영역(III)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방영역(I)에 포함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비영역(IV)도 II 또는 III영역에 포함되어져 궁극적으로는 개방영역(I)에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

Joharry의 창

	자신에게 알려짐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음
타인에게 알려짐	너와 나에게 개방된 자유영역 I	너에게는 보여지나 나 자신은 자각하지 II 못하는 영역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음	나는 알고 있으나 너에게는 숨기고 있는 영역 III	IV 너와 나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영역

(3) 의사소통

인간관계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능하고 발전한다. 의사소통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본질적인 과정이며, 자기세계를 넓혀가는 방법이다. 인간관계수련활동에서의 의사소통은 단순히 정보의 교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호간에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서로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유의한다.

상호복합작용으로서의 의사소통은 첫째로 체계적(systematic)이다. 의사소통의 주체인 인간은 하나의 생명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내용이나 행위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상호체계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로, 의사소통은 인간의 지각작용과 관계하고 있다. 지각이란 인간이 그의 주변세계로부터 어떤 의미를 발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다. 한 개인의 지각작용은 타인들과 공유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이며 능동적이고 창조적이며 주관적이다. 인간의 의사소통은 이러한 지각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셋째로, 의사소통은 의미를 창조한다. 인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의미의 창조활동이야말로 문화창조능력의 바탕이 된다. 이러한 의미들은 언어로 반영되고 인간의 의사소통을 더욱 발전시킨다. 넷째로, 의사소통은 과정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의 의사소통은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인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공감의 영역을 발견하고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수련활동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4) 집단과정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수련활동은 집단을 기초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인위적인 집단경험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훈련하는 것이다. 통상 집단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 ① 집단응집력의 형성과 유지
- ② 집단규범(개방성/온화함/자유로운 표현)에 따른 행동
- ③ 개인지각의 차별인지
- ④ 감정표현
- ⑤ 집단의 문제인지와 해결

⑥ 역할분화와 분담

⑦ 친밀한 자기노출에의 이행

위와 같은 집단과정을 거치는 동안 집단 구성원들은 인격적 성장을 촉진하고, 자신의 느낌과 타인에의 반응, 자신에 대한 타인의 느낌과 반응에 대한 지각능력을 자극받게 된다.

4) 인간관계수련활동의 실제

(1) 목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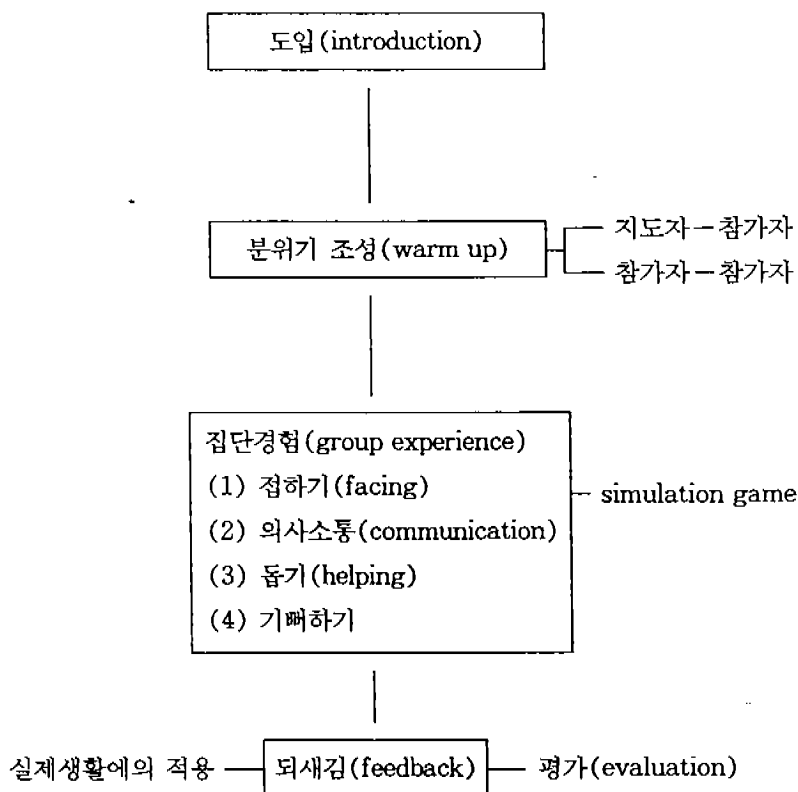
인간관계수련활동의 목표는 상호의사소통을 통한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며, 집단활동을 통한 학습과정의 경험을 통하여 학습의 방법, 즉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목표는 더욱 차원을 높혀 「인간답게 됨」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① 나눔과 협력의 공동체 의식, ② 자주와 자율의 정신, ③ 합리적 방법을 통한 갈등해소, ④ 윤리와 책임의식의 고양을 통하여 민주성에 관한 일련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며, 탐구하려는 태도의 습득과 생애성장의 안목과 의욕의 습득을 통하여 과학적 정신의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2) 필요조건

- ① 지금—여기(here & now) : 그때 그곳(there & then)으로부터의 탈피
- ② 되새김(feedback)
- ③ 해빙(infreezing)
- ④ 심리적 안정감(psychological safety)
- ⑤ 관찰적 참여(observational participation)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집단 속에서 참가자는 솔직성(authenticity), 개방성(openness), 수용성(acceptance)의 자세를 갖고 「지금—여기」의 경험에 충실하여야 한다.

(3) 절 차



(4) 특 징

경험학습으로서 인간관계수련활동의 특징을 열거해 보면

- ① 집단구성원 전원이 활동할 수 있고 또한 주인이 되는 활동이다.
- ② 진행도중 자연적으로 적극적·능동적인 학습이 태도화 되어가는 완전한 자의학습이다.
- ③ 경험할수록 참여의식이 높아진다.
- ④ 인간관계수련활동에서 각각의 장면은 각자 자기의 실제생활과 연계하여 직접 행동하면서 배우는 학습의 생활화(learning by doing)를 체험한다.

〈표 1〉 인간관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예

진전단계 전개과정	1. 나를 찾아서	2. 너와의 만남	3. 소중한 우리	4. 새로운 세계
도 입	도입과정 1) 별칭짓기. (언)	2) 아! 반갑습니다 (동)		
프로그램	도입전용 2) 나는 누구인가 (언)	12) 선물 나누기 (동)	21) 원 안에 들어가기 (동)	38) 자연과의 대화 (사)
전 개	4) 나의 위치 (언)	13) 최근에 있었던 일 (언)	22) 우리집 이야기 (언)	31)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사)
	5) 생애도표 (언)	14) 원하지 않는 만남 (언)	23) 말 전하기 (언)	32) 참문열기 (사)
	6) 숨겨진 나 (언)	15) 신뢰의 산책 (동)	24) 지팡이 학습 (동)	33) 연상화 그리기 (동)
	7) 나의 갈등 (언)	16) 정청과 대화 (언)	25) 머기위해 사는가 (사)	34) 아름다운 모습 (사)
프로그램	8) 나도 있어요 (사)	17) '나'말하기 (언)	26) 우리의 이미지를 제대로 (사)	35) 생애설계 (사)
	9) 요술삼점 (동)	18) 몸으로 · 눈으로 (동)	27)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사)	36) 창작의 세계 (동)
	10) 가치관 경매 (사)	19) 종이로 자르기 (동)	28) 역할극 (동)	37) 세계는 하나 (동)
4 과정	11) 자서전 쓰기 (사)	20) 멋있는 사람 (사)	29) 손거울 (동)	38) 2000년대의 삶 (사)
종 결				39) 내가 나에게 (언)
프로그램				40) 촛불의식 (동)
				41) 소감문 쓰기 (언)
도 달 점	나에 대한 소개 · 개방 · 이해 · 발견	상호존중 관계증진	공동체 의식 함양 협동 단결의 배양	창조력 개발 자아 정체감 확립 조화로운 삶의 탐색

- ⑤ 돕는 이(helper)도 함께 성장한다.
- ⑥ 연령·학력의 구별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 ⑦ 최소집단에서 대집단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 ⑧ 프로그램의 종류와 활동이 다양하다.
- ⑨ 어느 곳에서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3. 인간관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예*

위의 도표에서 (언)은 언어활동, (사)는 사고활동, (동)은 동작활동의 약자이며, 만남의 진전단계로 보면 「나를 찾아서」는 언어활동을 주축으로 단계가 진전됨에 따라 사고활동과 동작활동이 중심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1단계 상단 1과정으로부터 4단계 하단 4과정으로 - 대각선-진행되는 것을 보면 초보적 시각에서 고도의 심화단계로 이행되어 가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맺 음 말

인구통계학적으로 청소년기는 아동기를 벗어나 성인기로의 전환과정에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그들만의 특징적인 욕구와 문제로 인하여 폭 넓은 갈등요인을 갖게 된다. 따라서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① 성인사회와 노동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위치 및 역할에 대한 시각제공, ② 미래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결정을 위한 근거, ③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 능력 함양, ④ 현대사회에 적당한 도덕체계의 획득을 위한 근거, ⑤ 미래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배우고자 하는

*이 내용은 청소년연구원에서 발간한 청소년지도자 교재총서 중 “인간관계수련활동”에서 인용한 사항임. 보다 상세한 설명은 같은책 pp.62-72를 참고하기 바람.

태도와 의지의 발전, ⑥ 방법적으로나 효과성면에서 다양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하고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여야만 한다. 특히, 개인적으로나 사회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인력자원으로서 21세기에 대처하여야만 하는 한국의 청소년들은 ① 넓고 깊은 휴머니티, ② 세계의식과 공동체의식의 발전, ③ 물질자원에 대한 결핍의 윤리, ④ 정복과 조화, ⑤ 정보능력과 정보의식의 개발, ⑥ 경험에 대한 개방성, ⑦ 학습하는 방법 또는 능력의 학습, ⑧ 다원화, 다양화의 가치존중, ⑨ 전통과 새것의 긴장된 조화 등과 같은 의식과 생활양식을 보유하여야만 한다(황정규, 1993).

인간관계수련활동은 청소년들에게 그들 스스로 표현하고, 경청하며, 또래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지도력, 의사결정, 집단목표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 논쟁과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는 장으로써 미래에 대한 대처능력을 길러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간관계수련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적당한 수련활동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요약

이 글은 청소년의 특성과 인간관계수련활동, 인간관계수련활동의 이론과 실제, 인간관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예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청소년기의 특성과 인간관계수련활동에서는 청소년의 욕구 및 문제의 특성으로서 모순을 지적하고, 인간관계수련활동이 청소년기의 고독감을 극복하고 만족할 만한 삶을 성취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둘째, 인간관계수련활동의 이론과 실제에서는 먼저 인간관계수련활동이 창시자인 K. Lewin 이래 1960년대에는 그 대상이 확대되었고,

우리 나라에서는 1971년도에 처음 소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관계수련활동의 기본명제로서 중요시되는 것은 인간관계, 만남, 집단작용이며 인간관계수련활동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개념은 인간성장, 자기노출, 의사소통, 집단과정 등이다. 인간관계수련활동의 실제에서는 목표, 필요조건, 절차, 특징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셋째, 인간관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예에서는 언어활동, 사고활동, 동작활동에 따른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관계수련활동은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해 주며, 미래에 대한 대처능력을 길러준다.

연구 과제

1. 인간관계수련활동에 대한 주요 연구자의 시각을 비교해 본다.
2. 인간관계수련활동에서 돕는 이의 바람직한 역할을 알아본다.
3. 청소년지도 현장에서 경험한 인간관계수련활동의 성공사례를 발표해 본다.
4. 인간관계수련활동의 장점과 한계를 논의해 본다.
5. 본문에서 예시된 프로그램 이외의 것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발표해 본다.

참고 문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 강기호, 차호원(1987), 집단상담의 이론과 기술, 서울:교보문고
 김여옥(1982), 심성계발 프로그램의 실제, 서울:배영사
 김형태, 이재웅(1983), 바람직한 인간관계, 천안:명문사
 리범준(1981), 집단교육훈련, 서울:금방울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1990), 집단훈련의 이론과 실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 유네스코청년원(1993), 인간관계훈련의 이론과 실제, 한국청소년
활동 지도자 연수과정 실습자료, 서울:유네스코청년원
유재봉(1990), 생활지도론, 서울:법문사
이원구(1983), 아동심성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서울:배영사
이형득(1982), 인간관계훈련의 실제, 서울:중앙적성출판부
정원식(1982), 아동발달과 생활지도,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정태일, 이원구(1985), 인간관계교육프로그램, 서울:보진재
중앙청소년지도육성회(1981), 인간관계훈련의 기초-인카운터 그
룹, 청소년지도자료 I, 서울:중앙청소년지도육성회
한국청소년연구원(1992), 인간관계수련활동, 청소년지도자 교재총
서:서울

2. 학술논문

- 김기연(1991), 심성계발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효과, 서울: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자(1983), 여고생의 자아개념을 돕는 방안으로서의 집단상담,
서울: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희(1986), 집단상담이 자존과 타인이해에 미치는 영향,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유경(1989), 남중생의 적응강화를 위한 집단상담의 효과,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인숙(1982), 집단상담의 효과와 집단상담의 발달에 관한 연구, 서
울: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춘봉(1989), 국민학교 집단상담활동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서울: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영규(1987), 집단상담이 여고생의 생활장면 적응에 미치는 효과,
서울: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철(1983), 만남의 집단경험이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적응성발달

에 미치는 효과, 청주: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백은희(1987), 심성계발훈련이 부적응아동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효
과, 부산: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설수인(1990), 집단상담이 여학생 인성특성 및 적응성변화에 미치
는 효과, 서울: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손규홍(1988), 심성계발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건국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동인(1984), 사회성 및 적응성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원유홍(1987), 심성계발프로그램을 통한 비행학생지도, 이리:원광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웅(1985), 심성계발프로그램의 활용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서
울: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혜련(1976), 중학교 학생들의 소집단 경험학습을 통한 정의교육
에 관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정기간행물

김기희(1979), 심성계발프로그램을 통한 요선도학생지도, 서울:서
울특별시교육연구원

김여옥(1973), “집단경험학습을 통한 중학생의 심성계발”, 학생지
도, 제15호, 서울: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김용주(1974), “집단방법에 의한 상담에서의 과정과 기술”, 한국카
운셀링의 실제, 서울:서울특별시 카운슬러협회

문선모(1980), “인간관계훈련의 효과에 관한 일 연구”, 경상대학교
논문집

- 안덕자, 배승애(1978), “집단상담에 관한 일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14집, 서울: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혜성(1981), “학교에서의 집단상담”, 학생지도, 제20호, 서울: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_____(1979), “집단상담의 내용과 과정에 관한 그 운영방안”, 학생생활연구 15집, 서울: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II. 외국문헌

- C. A. Mahler(1969), *Group Counseling in the Schools*, Boston, Houghton Mifflin
- Carl R. Rogers(1974), *Encounter Groups*, Victoria, Penguin Books Ltd.
- D. C. Dinkmeyer, J. J. Muro(1979), *Group Counseling: Theory & Practice*, Itasca, F. E. Peacock Publishers
- G. M. Gazda(1971), *Group Counseling: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Allyn & Bacon
- J. B. P Shaffer, M. D. Galinsky(1974), *Models of Group Therapy and Sensitivity Training*,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J. Luft(1970), *Group Process: An Introduction to Group Dynamics*, 2nd ed., California, Mayfield Publishing Co.
- R. T. Golembiewski, A. Blumberg(eds.)(1977), *Sensitivity Training and the Laboratory Approach*(3rd Edition), Itasca, F. E. Peacock Publishers
- Fred Milson(1973), *An Introduction to Group Work Skill*,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M. Rosenbaum, A. Snadowsky(1976), *The Intensive Group Experience*, New York, The Free Press

- Marianne Schneider Corey, Gerald Corey(1992), *Groups Process*
4th ed.,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Ann Ellenson(1982), *Human Rela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D. W. Johnson, F. P. Johnson(1982), *Joining Together*,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Leslie E. This(1972), *The Small Meeting Planner*, Houston, Gulf Pub. co.

3.6

전통문화활동

개 관

1964년 문화재보호법 시행이후 많은 전통문화예술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무형문화재는 크게 음악, 연극, 무용, 놀이와 의식, 무예 등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청소년은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이끌어 갈 주역들이므로, 전통문화 예술에 대한 조기교육을 통해서 전문 연희자를 양성하고 인목있는 관객을 확보해야 한다.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의 전수방법은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봉산탈춤을 들어 설명한다. 아울러 중요무형문화재는 각 분야별로 전수회관이 있으므로 전달식 전수를 받도록 한다.

주제어

문화발전, 민족예술, 전통문화, 민족문화, 세계문화, 문화예술, 저변 확대, 전통문화의 전수, 문화의식, 민족적 공동체 의식, 민중적 의식, 놀이정신

* 김기수, 한국가면극연구회 상임이사

1. 전통문화의 특성과 의의

1) 전통문화의 개념

한 나라의 문화발전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전통문화를 토대로 하여 이를 계승·발전·심화하는데 달려 있고, 그 나라 문화의 정수는 민족예술 속에서 발현되어 왔다.

전통은 지난 세대에 이미 이루어져, 그 후로 계통을 이루어 전하는 것이다. 문화는 인류가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 놓은 정신적, 물질적인 일체의 성과를 지칭하며 보다 고차원적인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세련된 생활의 우아함과 예술적인 삶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한 인류의 가치적 소산으로서 철학, 종교, 예술, 과학 등의 총체이다.

전통은 그 민족 개개인이 지니고 있고 몸에 배어 있다.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의 생활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난 날부터 이어온 것은 무엇이든지 다 전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버려야 할 인습과는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에 대하여 냉철하고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 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러한 판단을 통해서 오늘날의 민족문화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거나 이바지하여 실현되고 있는 것만을 전통이라고 말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통문화는 폐기되어야 할 인습적인 생활습관과는 구별될 뿐더러, 단순히 보존되는 차원의 유물과도 다르다.

오늘날의 전통문화 창달과 맥이 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문화적 전통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이치에 따르는 까닭이다. 이러한 논지에서 볼 때, 고정불변의 신비로운 전통문화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들 자신이 전통문화를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난 날에는 누구나 문화적 전통의 소산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뒷날에 버림을 받

게 된 예가 수두룩하며, 도리어 지난 날에는 무관심 속에 파묻혀 있던 것이 후대에 높이 평가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결국 전통문화는 지난 날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가치있는 문화를 계승·발전·심화시키려는 우리들의 노력에 따라 구현되는 것이다.

2) 청소년과 전통문화의 의미

청소년은 다가올 시대의 주인공들이다. 청소년은 세계문화의 선두에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우뚝 세워 힘차게 이끌어 갈 주역들이다. 이제 우리는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조기교육을 통한 전문 연희자 양성과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갖게 될 청소년 관객 확보에 힘써야 한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은 연륜이 쌓이고, 그 숨씨가 몸에 배어 무르익아 나옴으로써 제 멋이 나는 고차원의 성숙도를 요구하는 분야들이 대부분임은 우리 민족문화예술의 전통이자 자랑거리이다. 우리 민족의 문화예술을 제대로 접해 본 세계인들이 입을 모아 찬탄해 마지 않는다.

문화예술적 전통을 지닌 여타 예·체능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통문화의 각 분야도 어린시절부터 지도되어야 한다. 어린시절부터 타고난 소질이 계발되어야만 해당 분야에 일가를 이루어 대성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대학가에 우리의 것을 찾고 이어받으려는 동아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당시 예능보유자들은 기대감으로 꿈이 부풀어 손수 전수를 하며 후진양성 및 저변확대에 매진하였다. 대학가의 붐을 통해 안목있는 관객의 저변확대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계속 전수로 이어져 활동하는 경우는 미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중·고등학교 이전의 어린시절부터 전수를 받았던 경우의 대부분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요즘 일찍부터 예·체능 분야로 나아갈 뜻을 세우고 전통문화 창달을 위해 중·고등학교 이전부터 전수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은 바람직한 추세라 생각된다.

청소년의 예·체능 활동과 청소년의 문화의식은 국가의 장래를 표상하는 척도이다. 현대에 접어들어 청소년문화와 전통문화예술의 접목이 이루어진 종목들이 각광을 받는 실정이며, 그 가까운 예가 우리 고유의 택견, 차전놀이, 고싸움놀이 등을 비롯하여 서양의 수중발레, 리본체조, 아이스댄싱 등이 있다.

우리 민족은 전통문화예술과 국가행사가 함께 어우러진 거족적인 국중대회 행사를 이어온 전통을 갖고 있다. 서울 올림픽의 선행조건으로 문화예술의 뒷받침이 필수적이었음은 이를 웅변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활동과 청소년문화가 실과 바늘과 같은 관계로 생활 속에 녹아들어 건실하게 승화되어야 할 분야가 바로 전통문화이다.

오늘날 청소년문제는 시대적 흐름과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으로서 조상들의 열이 담긴 찬란한 문화유산을 슬기롭게 이어나가 후대들에게 부끄럼없이 물려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방황과 고민 해결을 위한 장을 마련하여 청소년문제 해결의 일익을 담당하며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는데 앞장서야 할 때이다.

3) 전통문화의 특성

우리의 생존력과 정신을 부당하게 꺾박하는 모든 세력과 맞서서 부단히 싸우고 극복하여 문화적 공영을 실현하려는 노력에서 진정한 민족의 문화는 피어난다. 이러한 공영을 이루려는 민족적 공동체의식에

서 우리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다. 그러한 동류의식의 운동은 그 시대를 가장 진지하게 체험하고, 문화창조 세력으로서 참여한 민중적 의식의 표출들의 집합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 문화발전의 요체(要諦)는 삶의 공영을 지향하는 민중적 의식 아래 민중을 위한 것일 때 문화는 그 존재이유가 있고, 진정한 문화란 민중적 기반에서 그 생명력이 유지되고 창출되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여 민중 스스로 이루어 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확립시켜 나가는 것이 문화의 전제조건이다.

가장 민중적이라고 할 민속적인 것들이 새로운 문화이념의 요체의 하나로 파악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사회의 문화풍토에서 무자비하게 매몰되어 가는 민속적인 것이 새로운 의미에서 살아 있는 생명체로 파악되어야 하는 까닭 또한 그러한 것이다.

그러면 민속적인 것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전통문화가 민중적 기반에서 어떻게 오늘의 문화 현실에 대응하여 그 생명력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인가?

전통문화는 민중 스스로가 그들의 삶을 옹호하고 민중적 꿈을 실현하려는 민중적 의지를 가장 두드러지게 표출해왔다. 그러한 민중적 의식은 현실비판으로서의 시대정신이며, 창조행위로서의 참여의식이고, 인간적인 것의 구경(究境)으로서의 낙원사상이다. 한 마디로 환언하여 놀이정신이라 하겠다. 이 놀이정신은 공동체 사회에서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려는 민중의 동류의식과 생활의식을 집단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표현된다. 그것은 생활의 연장, 생활 그 자체로 영위되므로써 더욱 첨예화된다. 또한 전통문화는 삶을 제압하는 모든 세력과 투쟁하여 쟁취된 그 극복의 꿈과 자기실현의 표출형태이므로 해서 보다 고양된 삶과 구원의 세계를 지향하려는 민중적 의지가 응결되어 있는 것이다.

놀이 자체가 민중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집단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그것은 건강한 예술성을 가장 근원적으로 보여 주고 있기도 하

다. 생을 건강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여 인간정신의 사회적 실현을 기하는 것이 예술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전통문화는 그와 같은 기능을 극대로 실현해 왔다고 하겠다.

전통문화는 삶에 직결된 건강성이 놀이의 현장성으로 인해 더욱 삶 그 자체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문화가 새로운 차원에서 자생적인 발전을 이룬 형태로 전승되어 오늘날 문화현실에서 그 생명력을 가지므로써 전통문화의 진정한 현대적 수용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의식을 확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전통문화가 가진 정신을 호도하거나 부당하게 은폐시키는 일체의 행위는 배격되지 않을 수 없으며, 민중의 건강한 미의식(美意識)의 발현으로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 요망된다.

4)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의 전수방법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문화권 곳곳에 단층이 이루어져 있어서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전통문화의 역할은 자못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이에 부응하는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의 전수 방법은 내용 성격상 각 분야별로 나뉘어 각론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전통문화의 각 분야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전수가 이루어져서 효과적인 성과를 이루려면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우수한 전통문화예술은 면면히 계승되어 왔다. 우리 전통문화를 말살하려던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그리고 광복과 6·25사변 이후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서구문화의 홍수 속에서도 전통문화예술은 계승·발전되어 왔다. 1964년 문화재보호법 시행 이후 많은 전통문화예술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세계 여러 곳의 국제무대에서 그리고 86아시안 게임과 88서울 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에서 우리 전통문화는 세계인의 갈채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현대문화 속에서 전통문화가 오히려 소홀하게 다루어져 여타 문화예술보다 장래의 발전적인 면으로 볼 때 가장 낙후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전통문화가 현대의 문화예술 속에서 세계문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앞날을 이어갈 청소년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여 보람과 사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대를 맡고 있는 세대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의 기성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하고, 격려해야 한다. 전통예술이나 현대예술이나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전수 또는 교육받은 후의 장래에 보람과 희망이 없을 때 발전이 저해됨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지난 과거의 사회환경에 따른 기성세대들의 생각하는 바와 자라나는 세대의 행동양식의 차이에서 온 세대간의 괴리현상의 극복이 우리시대의 과제이다. 이는 진정한 전통문화가 없었다는데 한 원인이 있다. 따라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세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이와 같은 괴리현상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의 전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분화된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으나 무엇보다도 먼저 전통문화가 사회에 적극 수용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급선무이다.

2. 전통문화의 분류

현재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크게 분류하면 ① 음악, ② 연극, ③ 무용, ④ 놀이와 의식, ⑤ 무예 등이다.

1) 음 악

종묘제례악, 관소리, 진주삼천포농악, 평택농악, 이리농악, 강릉농악, 임실필봉농악, 거문고산조, 선소리산타령, 대금정악, 가야금산조

및 병창, 서도소리, 가곡, 가사, 대금산조, 대취타, 남도들노래, 경기민요, 향제줄풍류(구례향제줄풍류, 이리향제줄풍류), 농요(고성농요, 예천통명농요), 제주민요

2) 연극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동래야유, 강령탈춤, 수영야유,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발탈, 진도다시래기

3) 무용

진주검무, 승전무, 승무, 처용무, 학무, 태평무, 살풀이춤

4) 놀이와 의식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안동차전놀이, 영산쇠머리대기, 영산줄다리기, 고씨웁놀이, 한장군놀이, 줄타기, 좌수영어방놀이, 밀양백중놀이, 양주소놀이굿, 기지시줄다리기, 은산별신제, 강릉단오제, 영산제, 종묘제례, 제주칠머리당굿, 진도씻김굿, 풍어제(동해안별신굿,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위도띠뱃놀이, 남해안별신굿), 석전대제, 황해도 평산소놀이굿, 경기도 도당굿

5) 무예

택견

3. 전통문화활동의 전수사례 : 봉산탈춤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의 전수방법은 내용 성격상 각 분야별로 나누어 각론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봉산탈춤의 기본이 되는 춤을 간단히 설명한다.

봉산탈춤의 전과정은 타령, 굿거리, 염불장단으로 연희되나 기본춤은 팔목중춤의 춤사위이므로 주로 타령으로 춤을 춘다. 그리고 주로 음악(장단)은 춤을 추는 사람이 장단을 청하는데 타령조로 불림을 하며 불림사위의 춤을 추면서 청하게 된다.

예) 낙-양-동-천-이-화-정-하면 타령 장단이 연주된다. 그러면 봉산탈춤의 실기 춤사위중에서 12종류의 기본춤사위를 배우기로 한다.

○ 봉산탈춤 기본 춤사위

- ① 불림사위(낙양동천이화정)
- ② 고개잡이(좌우중앙 각 1장단)
- ③ 다리올리기 춤사위(좌우 1장단)
- ④ 옆으로 뛰기(황소걸음)
- ⑤ 불림사위
- ⑥ 외사위(홀사위)
- ⑦ 겹사위(곱사위)
- ⑧ 양사위
- ⑨ 앉아뛰기외사위
- ⑩ 앉아뛰기겹사위
- ⑪ 연풍대
- ⑫ 까치걸음

1) 불림사위

① 봉산탈춤의 기본자세는 다리를 자신의 어깨너비만큼 벌리고 서서 허리를 약간 꾸부정하게 앞으로 숙이고 두 무릎을 약간 구부린다.

② 양팔을 머리위로 올리면서 한삼을 뿌리고 팔과 몸을 좌우로 움직인다.

즉, 팔과 몸을 S형으로 한다. 한 장단이 4박자이므로 편의상 덩(하나), 닥기(둘), 덩기덕(셋), 쿵덕(넷)으로 포기하겠다. 하나에 팔을

머리위로 치켜올린다. 둘에 팔 옆으로 내리면서 몸을 S형으로 틀면서 한삼을 뿌려준다.

2) 고개잡이

① 하나에 한삼을 목에 걸어주면서 오른쪽으로 약 45도 몸을 돌리면서 허리를 머리가 오른쪽 무릎에 가깝도록 구부리며, 동시에 목도 약간 숙인다. 둘에서 허리를 약간 일으켜 세우면서 목도 정상으로 치켜올린다. 셋, 넷에서 다시 반복을 하며 하나에서 보다 허리를 약간 덜 구부린다. 넷에서는 중앙을 본다

② 왼쪽도 몸과 허리를 왼쪽방향으로 틀면서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③ 중앙은 몸을 정면으로 허리와 무릎은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즉, 엉거주춤한 자세로 하나, 둘에 오른쪽, 셋, 넷에 왼쪽으로 머리와 허리를 구부렸다 일으키면서 머리도 숙였다 일으켜 세운다.

3) 다리올리기

① 하나에 목과 몸을 오른쪽으로 약 45도 정도 틀면서 오른쪽 다리를 힘차게 90도 정도로 올린다. 둘에서 정면을 보면서 서고 셋, 넷에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② 왼쪽 방향도 오른쪽과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한다.

4) 옆으로 뛰기(황소걸음)

① 다리올리기 마지막 넷에서 오른쪽 발의 뒤축이 왼쪽 무릎 오금에 오도록 올린다. 하나에 오른쪽에 내려놓고 둘에서 왼쪽도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무릎오금에 왼발의 뒤축을 올렸다 내려 놓는다. 셋, 넷은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즉, 징검다리 건너듯 좌우로 뛰는 것인데 之(갈지)자처럼 걷는다고 해서 之(갈지)자걸음이라고 표현한다.

5) 불림사위

6) 외사위

① 하나에서 오른팔을 머리위로 올릴 때 오른쪽 귀에 닿을 정도로 올린다. 팔꿈치를 뒤에서 앞으로 틀어 돌리면서 한삼을 감아 뿌려 준다. 둘에서는 다시 선다. 이 때 같은 장단에 오른쪽 무릎을 90도로 힘차게 들어 올려 주면서 뚫다.

② 셋과 넷에 왼쪽방향으로 같은 방법으로 한다.

7) 겹사위(곱사위)

① 하나에서 오른팔의 한삼을 앞에서 뒤로 머리위로 돌리면서(감았다) 이마 앞으로 온다. 둘에 반대 방향으로 풀면서 셋에서 외사위와 같은 동작으로 풀면서 셋에서 외사위와 같은 동작으로 머리위에서 감아 돌리면서 한삼을 풀어 뿌려준다. 넷에서 원위치(기본자세)로 돌아온다. 이 때 오른쪽 무릎은 90도 정도로 힘차게 들어 올리면서 몸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바퀴 돌면서 뚫다.

② 왼쪽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8) 양사위

① 오른쪽 양사위는 두 팔을 동시에 겹사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 겹사위처럼 돌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오른쪽을 보고 뚫다.

② 왼쪽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9) 앉아뛰기외사위

① 하나에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살짝 뛰면서 앉았다가 둘에 일어서면서 오른쪽외사위를 한다. 셋에 다시 앉았다가 넷에 일어서면서 왼쪽 외사위를 하면서 왼쪽 뒤로 돈다.

② 다시 오른쪽외사위와 왼쪽외사위를 하면서 다시 돌면 원위치로 돌아온다.

10) 앉아뛰기검사위

① 하나에 양팔을 벌리고 앉았다가 돌에 일어서면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오른쪽검사위를 한다.

② 왼쪽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11) 연풍대

① 하나에 양팔을 벌리면서 한삼을 멀리 뿌려 주며 팔뚝 높이 뛰면서 앞으로 양손을 앞으로 모아서 올린다. 돌에 양손을 내리며 벌린다. 셋에 일어서면서 왼쪽외사위를 하며 왼쪽으로 돈다. 넷에 왼쪽발을 내리며 오른팔을 외사위 하듯 뿌려준다.

12) 까치걸음

① 하나에서 오른발을 올리면서 왼발을 두번 겹쳐서 뛴다(투스텝). 이 때에 오른팔은 머리뒤로 한삼을 굽혔다가 뿌려준다. 돌에 오른발을 내려놓으면서 왼발을 올리며(투스텝) 왼쪽팔을 올려 머리뒤로 한삼을 굽혔다가 뿌려준다. 셋, 넷도 같은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와 셋에 고개를 숙였다가 둘과 넷에 고개를 든다.

4.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현황

전통문화의 각 분야별로 전수회관이 있어 현재 보유 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전수회관 현황은 <표 1>과 같다. 전달식 전수 방법은 취미 또는 체질에 맞는 분야별로 선택하여 전수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단, 전통문화를 익히는데 2~3개월의 단기 전수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두었으면 한다.

(무용)

단 체 명 칭	주 소	대 표 자	전 화
진 주 검 무 보 존 회	경남 진주시 신안동15-24	성계옥	0591-41-5609
승 전 무 보 존 회	경남 창원시 동호동 230	이기숙	0557-645-2971

(놀이와 의식)

단 체 명 칭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남 사 당 놀 이 보 존 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944-22	박계순	02-557-3880
강 강 술 래 보 존 회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최소심	0632-42-4109
은 산 별 신 제 보 존 회	충북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114	차진용	0463-32-6078
강 룡 단 오 제 보 존 회	강원 강릉시 흥제동15	김진덕	0391-2-3014
안 동 차 전 놀 이 보 존 회	경북 안동시 운안동132-21	이재춘	0571-54-3030
영 산 쇠머리대기보존회	경남 창원군 영산면 동리73-1	김형권	0559-36-2326
영 산 줄 다 리 기 보 존 회	경남 창원군 영산면 서동226	서영식	0559-36-3207
고 싸 움 놀 이 보 존 회	광주 광산구 칠석동288-1	지춘상	062-92-4466
한 장 군 놀 이 보 존 회	경북 경산군 자인면 서부1동163	김도근	0541-52-2033
영 산 제 보 존 회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봉원사)1	김성월 (주지)	02-392-3008
종 묘 제 레 보 존 회	서울 종로구 와룡동 (전주리씨대동종약원)139	이재영 (이사장)	02-765-2124
좌수영어방놀이보존회	부산 남구 수영동229-1	이성기	051-752-2947
밀양백중놀이보존회	경남 밀양시 내1동431-30	김상용	0527-354-3767
양주소놀이굿보존회	경기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김인기	0351-40-2399
제주칠머리당굿보존회	제주시 오라1동1163-4야구장2층	김윤수	064-53-7812
진도씻김굿보존회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43	채규만	0632-42-4717
기지사줄다리기보존회	충남 당진군 송악면 기지사리202	이우영	0457-355-6024
동해안별신굿보존회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444-58	김석출	051-552-2771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381-12	김금화	032-423-3797
위도띠땀놀이보존회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188	이수영	0683-83-3924

단 제 명 칭	주 소	대표자	전 화
남해안별신굿보존회	경남 창원시 동호동230-1	유동주	0557-645-2971
석전대제보존회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3가57	김경수	02-765-0501
황해도평산소놀이굿보존회	인천시 동구 화수동 132	이선비	032-72-4331
경기도도당굿보존회	서울 구로구 오류1동 9-48	조한춘	02-612-4359

* 대악회 : 종목 : 종묘제례악, 가사, 가곡, 승무, 학무, 처용무, 대취타, 경기민요

- 대표자 : 김천홍
- 주 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4-22
- 전 화 : 국립국악원(02)585-3151
전수회관 (02)566-4769

* 한국의 탈춤 총괄 문의

한국가면극연구회

- 대표자 : 이두현
- 주 소 : 서울 성동구 성수1가 2동 13-442
- 전 화 : (02)466-2174
- 팩 스 : (02)468-6200

지도자들이 자신의 소질, 재량, 취미, 체질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종목을 찾아서 최저 1년 이상 전수 받아야 전달식 전수가 가능하다고 본다.

본문 요약

전통문화의 특성과 의의, 분류 그리고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통문화는 가치있는 문화를 계승·발전·심화시키려는 우리들의 노력에 따라 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이의 주역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중·고등학생들의 예·체능활동과 대학생들의 전통문화활동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우리 전통문화에 녹아 들어 있는 조상들의 건강한 미의식을 느낄 수 있다.

전통문화의 전수방법은 각 분야별로 나뉘어져 다루어져야 하며, 청

소년들을 위한 전통문화 전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문화가 사회에 적극 수용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선결 요건이다. 현재 이러한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연구과제

1. 전통문화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전통문화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2. 학교에서 전통문화를 익힐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본다.
3. 지역사회에서 전통문화를 가르치는 기관이나 단체(예컨대, 향교, 문화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전통문화의 동호인회 등)를 견학하고, 그 기관이나 단체의 운영실태를 보고서로 작성해 본다.
4. 전통문화중 대표적인 장르(예컨대, 국악, 봉산탈춤, 풍물 등)를 한 두 가지씩 익혀보자.
5. 중요 무형문화재의 공연을 정기적으로 관람하여 보자.

3.7

예절활동

개 관

예절의 개념과 의의를 알아보고, 예절의 종류와 기본적인 생활예절을 알아본다. 아울러 예절의 습관화 지도를 위해서 개발된 몇 가지 사례를 예시한다.

예절은 사람들이 약속해 놓은 사회규범이고, 생활예절은 생활하는 방식을 약속해 놓은 것이다. 예절의 기본은 스스로 사람다워지려는 자기관리(수기)와 남과 어울려 함께 사는 대인관계(치인)이다. 예절은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청소년들에게 예절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예절습관화 지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예법지도, 그리고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개발한 명절쇠기 예절활동을 소개한다.**

주제어

예절, 전통예절, 생활예절, 자기관리, 대인관계, 바른 몸가짐, 인사, 구사, 구용, 방문과 영접예절, 예절습관화, 예법지도, 명절쇠기 예절활동

* 이윤교,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 이글은 여의도고등학교의 신상철 선생님이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예절에 관한 선행연구와 예절활동의 지도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1. 예절의 의의와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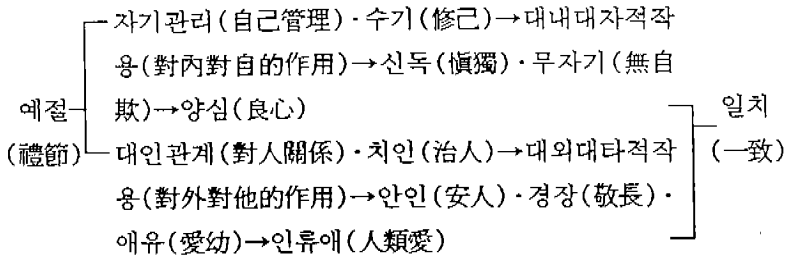
예절이란 무엇인가? 한국전례연구원 김득중 원장은 “한국인의 예의 문화”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예절이란 무리지어 사는 사람들이 약속해 놓은 생활방식이다. 따라서 예절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예(禮)란 관행성 사회계약적 사회규범이다. 생활예절은 생활하는 방식을 약속해 놓은 것이고, 가정의례는 가정에서 행하는 의식절차를 약속해 놓은 것이다.

사람은 남과 더불어 함께 산다. 남과의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려면 서로 약속해 놓은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인관계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다. 때문에 자기가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사람다워지려는 노력을 자기관리라 한다. 예절은 인간으로서의 자기관리와 사회인으로서의 대인관계를 원만히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스스로 사람다워지려는 자기관리는 수기(修己)이고, 남과 어울려 함께 사는 대인관계는 치인(治人)이다. 수기하는 예절은 자기의 안에 있으면서 자기자신에게 작용하는 기능을 가지는데 그 때의 본질은 정성스러움이고, 치인하는 예절은 자기의 밖으로 나아가 남에게 활용되는 기능을 가지는데 그 때의 본질은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관리의 요령은 홀로 있을 때도 삼가는 신독이고, 대인관계의 요령은 남을 편안하게 하는 안인이다. 정성이란 자기를 속임이 없는 양심이고, 공경과 사랑이란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인류애이다. 안에 있는 예절의 마음과 밖으로 나타나는 예절의 언동이 일치해야 참 예절이라 할 것이다.

예절은 마음만 있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말과 행동이 따라야 한다. 서로가 자기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의사소통이라 하는데 의사소통 수단인 말과 행동은 미리 약속해 놓은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약속해 놓은 몸놀림



이 행동의 격식이다. 즉 예절의 실체는 의사의 형태로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예절의 격식은 그 의사를 남에게 인식시키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예절은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바른 예절을 배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① 마음가짐 : 항상 사람이 되고 사람노릇을 해서 사람대접을 받으며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는다.

② 본 받는다 : 남이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 일이면 자기도 그렇게 본받는다.

③ 경계한다 : 남이 하는 일이 미워보이거나 나쁘다고 생각되면 경계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④ 잘 듣는다 : 어른, 선생님, 선배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경륜을 자기의 것으로 한다.

⑤ 친구를 고른다 : 남에게 칭찬받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귈다.

⑥ 예절 책을 읽는다 : 예절에 대한 책을 항상 옆에 두고 읽으며 참고한다.

⑦ 지도를 받는다 : 예절을 가르치는 곳에 가서 모르는 것을 물어 열심히 배운다.

예절을 아는 것은 좋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절을 몰라서 못하면 용서 받을 수 있지만 알면서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만 못하

다. 예절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리, 대인관계, 공중생활에 항상 힘써야 한다.

① 자기관리 : 개성을 지나치게 돋보이려고 하지 말고, 남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② 대인관계 : 자기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타인과 약속한 방식으로 한다. 언제든지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공손함이 있어야 한다.

③ 공중생활 : 사생활을 주장하지 말고 항상 남을 의식해야 한다.

예절생활의 근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절바른 행동에 만족하고 타인의 무례한 행동에 불만족하기 때문이다.

2. 예절활동의 영역

예절의 종류는 그 분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없이 나눌 수 있다.

예절의 주체와 대상에 따라서 혼자하는 예절(개인예절), 남에게 하는 예절(대인예절), 함께하는 예절(공중도덕 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① 혼자하는 예절 : 스스로 사람다워지려는 자기관리를 하는 개인예절이다.

② 남에게 하는 예절 : 남과 어울려 함께 사는 대인관계를 영위하는 의사소통예절이다.

③ 함께하는 예절 :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예절로 조직생활, 단체생활, 공중도덕과 같은 예절이다.

예절이 행해지는 범위에 따라서 기본예절, 생활예절, 가정의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기본예절 : 모든 분야에 통용되는 공통예절이다.

② 생활예절: 생활환경에 따라 개인예절, 가정예절, 학교예절, 직장예절, 사회예절, 국민예절, 국제예절 등이 있다.

③ 가정의례: 가정에서 행하는 의식절차로서 성년례, 혼인례, 상장례, 제의례, 수연례 등이 있다.

청소년에게 예절을 지도할 때는 전통예절보다는 생활예절을 강조하게 되는데, 생활예절은 다시 생활공간에 따라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의 예절로 세분할 수 있고, 또한 중요한 일상생활인 언어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등에서의 예절 등이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예절활동을 지도할 때에는 보다 구체적인 분류가 필요할 것이다.

한 가지 예로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1992)에서는 예절생활을 예의 바른 인사, 단정한 몸가짐, 굽고 상냥한 말씨, 부모님에 대한 예절, 손님맞이 예절, 이웃에 대한 예절, 전화예절, 선생님에 대한 예절, 실내에서 지킬 예절, 외국인에 대한 예절 등으로 나누어서 지도하고 있다.

3. 기초적인 생활예절

현대생활에서 기초적인 예절활동은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활동으로 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 인사예절, 방문과 영접예절을 예시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이영숙 외, 1992: 56-81).

1) 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

예절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스스로 움직일 때에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었어도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그릇되면 아름답게 보일 까닭이 없다.

동양의 고전인 소학은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데에는 아홉가지의 생각(九思)과 아홉가지의 행동(九容)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컬

어왔다. 구사와 구용은 이율곡의 「격몽요결」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그 중 “아홉 가지 몸가짐”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두용직(頭容直) : 머리가짐을 곧게. 해야 하며
- 목용단(目容端) : 눈의 모습을 단정하게 하며
- 구용지(口容止) : 입의 움직임은 그친 듯 하며
- 색용장(色容莊) : 얼굴빛은 씩씩하게 해야 하며
- 성용정(聲容靜) : 소리는 고요하게 해야 하며
- 기용숙(氣容肅) : 기상가짐은 엄숙하게 해야 하며
- 수용공(手容恭) : 손의 움직임은 공손하게 하며
- 족용중(足容重) : 발의 움직임이 무거워야 하며
- 입용덕(立容德) : 서있는 모습은 덕성스럽게 한다.

이 아홉 가지가 모두 몸가짐의 기초이나 이를 기초로 하여 서 있을 때, 걸을 때, 앉을 때, 일을 할 때에도 바르고 자연스럽게 자기 몸을 가져야 한다.

2) 인사예절

절이란 ‘몸을 굽혀 경의를 표하는 인사’라는 뜻을 지닌다. 따라서 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인사라는 말과 상통한다. 인사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반가움의 표현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므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같은 뜻으로 행하여 지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지역에 따라 생활습관이 다르고 의복차림에 따라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절의 종류에는 크게 선절과 앉은 절이 있다. 선절은 정중예, 보통예, 목례, 악수, 거수경례 등이 있다.

- 정중예 : 졸업식, 결혼식, 시상식과 같은 의식에서, 그리고 평소예 영전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법
- 보통예 : 일상생활 중에 많이 행해지는 가벼운 인사
- 목례 : 자주 대할 때나 선 자세, 앉은 자세, 걷는 자세에서 자연

스럽게 고개를 약간 숙이거나 즐거운 표정의 미소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방법

○악 수 : 서구적인 인사방법인데, 윗 사람이나 동격일 때는 여성이 먼저 청해야 하며 오른손을 마주 잡고 인사말을 나눈다.

○거수경례 : 군대식 경례로서 단체생활에서 행한다.

앓은 절은 좌식문화가 바탕을 이룬 우리 나라에서 하는 인사방법이다. 어른에게 드리는 세배절이나 문안절은 평절로 하고 결혼식, 회갑, 상례, 제례 때에는 큰절을 한다. 특히 결혼식 때 신랑신부가 하는 절은 대례절이라고 한다. 절을 받을 때는 대상에 따라 답례절을 해야 한다. 앓은 절의 특징은 좌식에서만 할 수 있고 절을 하고 난 후 다시 앓아서 인사말을 나누는 것이 예의다. 절은 “예”의 근본으로서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이 충분히 표현되도록 한다.

전통예절에서 절의 회수는 절하는 사람의 성별과 의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최소 양수인 1회가 기본이다.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최소 음수인 2회가 기본회수이다. 평상시 어른에게는 남자는 1배, 여자는 재배가 원칙이나 절의 종류와 회수는 절을 받으실 어른의 명에 따른다. 각종 의식행사에서는 남자는 재배, 여자는 4배한다. 근친이 아닌 남의 절에 대해서는 절하는 사람이 20세 이상이면 답배 또는 맞절을 해야 한다.

3) 방문 및 영접예절

사람의 생활은 만남으로 시작이 되고 차 한잔 마시고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서 정이 깊어진다. 우리의 생활이 점차 기계화, 조직화 되어짐에 따라 사람과 따뜻한 인정의 교류가 아쉬울 때가 많다. 이런 가운데 크게 폐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방문을 하고 방문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먼저 방문예절을 보면, 방문전후와 방문중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예고없이 찾아가는 일은 결례가 되므로 방문전에 전화로 방문시간

을 미리 알린다. 방문시에는 약속시간보다 늦는 것도 실례지만 너무 일찍 가는 것도 폐가 되므로 시간조절을 잘 해야 한다.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작은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방문할 곳에도 도착하면 벨을 누른 다음 주인이 나오면 안내를 받고 들어간다.

여자는 코트, 머플러, 숄, 장갑 등을 벗고 남자는 모자까지 벗어 들고 있다가 응접실에서 안내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주인이 들어오면 일어나 인사하고 권하는 적당한 자리에 앉는다. 다만 웃어른을 찾아 뵈을 때는 권하는 대로 상좌에 앉지 말고 사양해야 한다. 그리고 출입문 가까이 앉아서 주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적당한 시간안에 돌아온다. 현관에서 지나치게 인사말을 나누면 실례가 된다. 방문후 집으로 돌아와서의 인사는 생략하는 것이 좋으나 특별한 초대였다면 전화를 통해서 정중하게 감사의 인사를 한다.

손님을 영접할 때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손님이 오시면 우선 정중하게 맞아 돌리고 웃음을 띤 얼굴로 인사를 나눈 다음 손님의 소지품을 적당한 곳에 받아 정리한 후 방으로 안내한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곳에 안내하여 땀을 닦도록 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곳에 안내하여 몸을 녹이게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너무 격식을 차려 딱딱한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아끼지 말고 마음을 쓰도록 한다. 그리고 손님이 예고없이 방문했을 때는 마침 누가 놀러 왔으면 하던 참이라고 상대방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는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 또한 집안 정리가 잘 되지 않았더라도 허둥대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침착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

손님이 돌아가실 때는 바쁜 중에 찾아주어 고맙다는 인사말을 정중히 전하고 돌아가는 차편이나 교통관계를 염려하는 마음도 중요하다. 따뜻한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공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방문하게 되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4. 예절활동의 실제

1) 학교에서 예절생활 습관화 지도

서울 이수중학교에서는 도덕적 인간교육을 위해서 학교에서의 예절교육이 절실하다고 보고, 중학생 수준에 맞는 예절생활 습관화 지도를 위해서 훈화와 명상교육자료를 활용하였다(이수중학교, 1992: 305-332).

예절생활지도를 위해서 먼저 중학교 교육과정과 기본생활습관 지도 자료 등에서 지도 요소를 국가의 교육목적과 일치, 우리의 전통적 윤리관, 인류 공영의 이념, 선진문화의 민주시민적 소양요소, 자율생활 중심의 행동 등으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예절을 생활영역별로 학교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일반생활로 나누고 각 소영역별로 지도요소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생활영역별 예절을 지도하기 위해서 예절훈화지도자료를 월별, 주별로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즉,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국기 및 국가에 대한 예절(3월), 인사예절(4-5월), 대화예절(5-7월), 식사·방문·접대의 예절(8-9월), 공중도덕(9-11월), 전통예절(11-2월) 등 6가지 주제로 나눈 후에 다시 세부내용을 다룬다. 예컨대 대화예절의 경우 대화예절에 대한 훈화, 말할 때와 들을 때의 바른 태도, 상호소개예절, 축하와 위문의 인사말, 좋은 화제, 바른말 고운말, 회의할 때의 대화예절 등을 주별로 나누어서 지도했다. 아울러 화·수·목·금요일의 아침시간에는 5분간 명상시간을 갖고, “오늘의 명상”이란 노트를 쓰도록 했다. 또한 예절생활 습관교육을 교과지도, 특별활동, 생활지도, 각종행사와 연계하여 실천했다.

이러한 시도는 다른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예절지도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예절이란 생활습관으로 체득되어야

함으로 한해동안 꾸준히 예절을 지도한다는 점은 의의있는 접근방법이다. 예절생활 습관화지도에 대해서 학생들은 예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는 긍정적이었지만, “명상노트”를 쓰는 것은 별도움이 되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표 1〉 예절생활지도의 영역별 지도 요소

소영역	지도요소
학교생활 예절	• 선생님에 대한 인사 예절 • 교우관계에 대한 예절 • 학교 방문 손님에 대한 예절 • 학습할 때의 예절
사회생활 예절	• 회의할 때의 예절 • 교무실 출입할 때의 예절 • 수업 시작·끝날 때의 예절 • 각종 회의 운영 및 참가 예절
가정생활 예절	• 가족, 친척, 이웃간의 예절 • 방문, 초대, 축하와 위문시의 예절 • 국기, 국가 원수에 대한 예절
일반생활 예절	• 인사말 예절 • 전화 걸고 받을 때의 예절 • 혼사, 상사, 제사 참례 예절 • 개인 예절(마음가짐, 몸가짐) • 바른말씨(고운말 쓰기, 언어순화) • 가훈 실천을 통한 예절 • 명상의 시간(명상록, 훈화록 작성)

2)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예절활동의 지도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인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예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복지관은 구로공단이 인접한 광명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복지관의 주된 이용자인 근로청소년의 70% 이상이 부모와 가정을

떠나서 자취나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즉 예법교실은 객지에서의 사회생활을 함으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부족한 근로청소년들에게 예절과 가정관 및 성가치관의 확립 등 가정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한국청소년연맹, 1992: 82-86).

예법교육은 처음에 “신부교실”로 시작되어 “예비부모과정”과 “숙녀과정”이 증설되었다. 신부과정은 한국여성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몸가짐과 전통예절을 익히기 위하여, 8주의 교육과정 동안 한복을 입고 한식으로 꾸며진 예법실에서 수업에 임한다. 이 과정은 때와 장소에 맞는 절의 종류와 방법 등을 배우고, 관혼상제의 이론과 실재를 접하며 다도실습, 일상생활예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예절활동은 근로청소년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신부과정을 수료한 결혼 적령기의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서 겪을 절의 절차나 예법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도 한다. 다만 “신부과정”에 상응하는 “신랑과정”이 없다는 점이 아쉬움인데, “예비부모과정”은 소수이지만 남성들도 참여하고 있다.

3) 명절식기 예절활동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명절의 예절을 몸에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8가지 명절식기 활동을 고안하였다. 이 8가지 단위활동은 차례지내기, 인사예절, 한복예절, 바른 몸가짐, 방문 및 영접예절, 다과예절, 친족관계도 그리기, 예절을 주제로 한 즉흥연기 등이다(이영숙 외, 1992: 187-191).

명절식기 수련거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예절활동에 속하는 단위활동이다. 그런데 예절활동은 대체로 상당한 정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활동에 비하여 청소년들의 선호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너무 여러 가지의 예절활동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절활동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위활동간의 선수학습관계를 고려

〈표 2〉

신부과정 교육내용

번호	제 목	교 육 내 용
1	개 강 식 및 강 의	정감있는 여성, 현대인의 에티켓과 매너
2	생 활 예 절 1	우리웃 입는법, 예의기본(몸가짐, 마음가짐), 자세(걸음걸이, 선자세, 앉은자세)
3	생 활 예 절 2	절의 종류와 절하는 방법, 선절, 앉은절, 절 받는 자세
4	바람직한혼수계획	혼례절차, 혼수계획
5	생 활 예 절 3	방문과 영접, 소개의 인사법, 관혼상제에 따른 인사법, 호칭과 칭호
6	생 활 예 절 4	식탁예절, 차 생활예절, 다과상 차림
7	다 도 1	전통차, 생활 다례 실기
8	다 도 2	다례 실기, 차 마시기, 차 만들기
9	바람직한인간관계	부부심리, 시댁과의 인간관계
10	수 료 식	수료기념 발표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수학습관계란 한 단위활동이 다른 단위활동을 시작하는데 전제가 되고 있어서 앞선 단위활동을 먼저 실시해야만 다음 단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차례지내기 활동은 인사예절을 먼저 실시한 다음이라야 시작할 수 있다.

예절활동은 대체로 참가대상의 연령이나 성별, 실시시기 등에 약간의 제약이 따른다. 차례지내기 활동은 설이나 한가위와 비슷한 시기에 적합한 활동이 될 수 있고 봄이나 여름에는 인사예절이나 손님접대 등의 활동을 선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또 친족관계도 만들기 활동은 친척들 간의 촌수 및 호칭을 익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아직 촌수와 호칭을 잘 알지 못하는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적절하다.

예절활동은 그 대상과 시기에 알맞게 단위활동의 내용과 시간배분을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차례지내기 활동을 실

〈표 3〉 명절시기 예절활동의 실시대상, 시기 및 참고사항

단위활동	대 상	시 기	참 고 사 항
차례지내기	중학생이상	설·한가위	- 특히 남자 청소년에게 중요 -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차례지내는 순서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이론지도
인사예절	모든 청소년	관계없음	- 큰절과 평절을 중점지도 - 다른 부분은 간략한 이론지도 - 국민학생—특히 평절을 중점지도 - 근로청소년—평절, 큰절 모두 중점지도
한복예절	모든 청소년	관계없음 *	- 고교생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특히 고름 매는 법과 대님매는 법을 집중지도 - 근로청소년에게는 속옷입기 버선신기 등까지 상세히 지도
바른 몸가짐	모든 청소년	관계없음	- 특히 고교생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중요 - 국민학생—걷기, 앉기, 서기 중점지도 - 고등학생 이상—걷기, 앉기, 서기 이외에 문열고 들어오고 나가는 법, 어른이 들어오실 때 반절하고 다시 앉기 등 첨가
방문 및 영접예절	모든 청소년	관계없음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지도안의 대화내용을 성인들 간의 대화로 바꿈 - 직장에서의 방문 및 영접예절도 가능
다과예절	모든 청소년	관계없음	근로청소년에게는 과일쥬는 방법과 차 끓이는 방법을 별도로 지도할 수도 있음
친족관계도 만들기	고등학생이하	관계없음	국민학생에게는 5촌 이하의 친족관계를 중점지도
예절을 주제로 한 즉흥연기	모든 청소년	관계없음	- 실시시기 및 대상에 알맞게 상황을 설정 - 예의에 어긋나게 행동하기 쉬운 상황을 설정

시할 경우, 차례상 차리는 방법과 차례지내는 절차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는 것이 좋다. 각 예절활동 별로 적절한 실시대상, 시기, 참고사항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본문 요약

예절은 사람들이 약속해 놓은 사회규범이다. 생활예절은 생활하는 방식을 약속해 놓은 것이고, 가정의례는 가정에서 행하는 의식절차를 약속해 놓은 것이다. 스스로 사람다워지려는 자기관리를 수기(修己)라 하고, 남과 어울려 함께 사는 대인관계를 치인(治人)이라 한다. 자기관리의 기본은 홀로 있을 때도 삼가는 신독이고, 대인관계의 요령은 남을 편안하게 하는 안인이다. 안에 있는 예절의 마음과 밖으로 나타나는 예절의 언동이 일치해야 참 예절이라 할 것이다.

예절은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예절을 아는 것은 좋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절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리, 대인관계, 공중생활에 항상 힘써야 한다.

예절의 주체와 대상에 따라서 혼자하는 예절(개인예절), 남에게 하는 예절(대인예절), 함께 하는 예절(공중도덕 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예절이 행해지는 범위에 따라서 기본예절, 생활예절, 가정의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대생활에서 기초적인 예절활동은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활동으로 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 인사예절, 방문과 영접예절을 예시하였다.

동양의 고전인 소학은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데에는 아홉가지의 생각(九思)과 아홉가지의 행동(九容)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컬어왔다.

인사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반가움의 표현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므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같은 뜻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예절의 종류에는 크게 선절과 앓은 절이 있다. 선절은 정중예, 보통예, 목례, 악수, 거수경례 등이 있다. 앓은 절은 죄식문화가 바탕을 이룬 우리 나라에서 하는 인사방법인데 큰절, 평절, 반절 등이 있다.

청소년들에게 예절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예절습관화 지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예법지도, 그리고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개발한 명절쇠기 예절활동을 소개하였다.

한 중학교는 도덕적 인간교육을 위해서 학교에서의 예절교육이 절실하다고 보고, 중학생 수준에 맞는 예절생활 습관화 지도를 위해서 훈화와 명상교육자료를 활용하였다. 일년동안 매주 화·수·목·금요일의 아침시간에는 5분간 명상시간을 가졌다. 이에 대해서 학생들은 예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는 긍정적이었지만, “명상노트”를 쓰는 것은 별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 근로자청소년회관에서는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8주간(하루 2시간가량)의 “예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예법교실은 객지에서의 사회생활을 함으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부족한 근로청소년들에게 예절과 가정관 및 성가치관의 확립 등 가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은 한복을 입고 때와 장소에 맞는 절의 종류와 방법 등을 배우고, 관혼상제의 이론과 실재를 접하며, 다도실습, 일상생활예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결혼을 앞둔 여성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명절의 예절을 몸에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차례지내기, 인사예절, 한복예절, 바른 몸가짐, 방문 및 영접예절, 다과예절, 친족관계도 그리기, 예절을 주제로 한 즉흥연기 등 여덟 가지 단위활동을 개발했다. 예절활동은 대체로 참가대상의 연령이나 성별, 실시시기 등에 따라서 약간의 변용을 해서 실시할 수 있다.

연구과제

1. 각자 일상생활 속에서 결례한 사례를 발표하여 본다.
2. 친족간의 호칭중 흔히 쓰고 있지만 바르지 못한 것을 알아본다.
3. 전통예절중에서 지키기 어려운 것이나 고쳐져야 할 것을 토론하여 본다.
4. 친구간에 지켜야 할 예절은 무엇이지 토론한다.
5. 예절활동 관련 기관과 단체을 견학하여 프로그램을 학습한다.
6. 전통 예절에 관한 책을 읽거나 비디오를 보고 토론한다.

참고문헌

- 김득중 외(1991), 우리의 전통예절, 문화재보호협회
- 김옥희 외(1991), 생활예절, 양서원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동작교육구청(1984), 예절교본
-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1992), 바른 마음 바른 행동
- 이수중학교(1992), “훈화와 명상교육을 통한 예절생활 습관화 지도”,
교육부지정 기본생활습관교육 시범교육청 공개발표학교 실
천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 이영숙 외(1992), 명절쇠기활동, 한국청소년연구원
- 전례연구위원회(1992), 우리의 생활예절, 성균관
- 제철학원(1990), 바른가정교육
- 한국청소년연맹(1992), 서울특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10년사

[자료]

예절활동 관련 기관과 단체 목록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활 동 내 용
근로자종합복지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740	02-685-4941-4	전통공예실시, 탈춤강습 예법교실, 전통문화공연
목동청소년회관	서울시 양천구 목동918	02-646-0181-5	생활예절, 다과예절, 한복바르게 입기
문화재보호협회 전통문화학교	서울시 중구 필동2가80-2	02-266-6938	인사법, 호칭법, 다례, 생 활예절, 전통공예실시
서울여자학생생활 교육원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45	02-408-8231-3	
서울청소년지도 육성회	서울시 중구 수표동27-1	02-266-8247	민속마을캠프, 탈춤강연, 사물놀이, 우리얼 찾기등
성균관어린이 예절학교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3가53	02-744-9833	한복바르게 입기와 절하 기, 차례지내기, 생활예절
예지원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산5-19	02-253-2211	전통공예 및 예절강좌
제주도학생예절관	제주시 삼도1동305-8	064-56-5473	생활예절, 한복바르게 입 기, 바른 몸가짐 등
청년여성교육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657-87	02-796-6644-6	바른언어쓰기, 인사예절 한복바르게 입기 등
한국어린이문화 예술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2- 5 중앙보훈회관703호	02-784-8902-3	바른가정교육
한국어린이보호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386-9	02-336-5242	생활예절, 민요배우기, 공 예품, 음식만들기 등
한국예절문화원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277-96	02-342-4117	인사예절, 복식예절, 호칭 법 배우기
한국전례연구원	서울시 중구 을지로4가54 보 은빌딩601호	02-279-8242	전통예절 연구 및 보급 예 절교실 등

자료 : 이영숙 외(1992), 명절쇠기활동

3.8

탐 구 활 동

개 관

청소년은 삶의 격변을 맞고 있다. 이러한 격변 속에서도 청소년들은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분석이나 창조적 문제해결능력, 탐구능력 등이 절실하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의 대응능력 함양의 한 전제조건으로서의 탐구활동에 관한 서술을 하고자 한다.

주제어

탐구능력, 창조적인 사고, 문제의 인식, 관찰활동, 분류활동, 측정활동, 예상활동, 추리활동, 변인조절, 가설설정, 실험활동, 탐구의 세계, 평가

1. 탐구활동의 필요성과 개념

1) 탐구활동의 필요성

청소년교육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교육보다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식·정보의 팽창으로 오늘날의 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1세기의 미래사회는 국제화, 다양화, 정보화 사회로 특징지어지는 과학·기술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청소년들이 맞닥뜨리는 문제나 상황은 단순한 기존 지식이나 고정된 가치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정보의 수집과 분석·처리, 창조적인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력과 의사결정 능력, 탐구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즉, 사회·자연적 현상과 도덕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려면 사회 및 자연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관찰·탐구·판단 능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런 능력들은 탐구활동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것이다.

2) 탐구의 개념

그러면 탐구(inquiry, research)란 무엇인가? 탐구에 대한 일반화된 정의는 찾아내기 힘들다. 이것은 결국 탐구의 성격 자체의 다양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탐구는 어떤 때는 문제에 대한 접근, 또 어떤 때는 해결방법, 또 흔히 어떤 문제해결의 전략 등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때로는 반성적 사고, 비평적 사고, 귀납적 사고, 연역적 사고, 발견적 사고 등의 동의어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또 어떤 때는 사고의 방향, 교수의 방향이 되기도 한다.

근래에 이르러 특히 학교의 과학교육에서 결과 중심교육을 비판하고

과정중심 교육을 제창하면서 ‘과학적 탐구’가 과학교육의 중심구호로 등장하게 된다. 여기에서의 과학적 탐구는 과학자들의 연구활동 내지는 과학적 방법과 관련되거나 연유된 것이고 어느면에 있어서는 그것을 지향하여 모방하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협의의 개념이다.

넓은 의미의 탐구는 우주의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고 조정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의도적 활동이다. 이 활동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여러 방책을 궁리하며 자료와 정보를 추구하고 분석하며 판단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탐구활동이야말로 교육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교과목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요, 어떤 분야의 과학이나 어떤 연구활동에서도 핵심적으로 행하여지는 과정이라 하겠다.

2. 탐구활동의 대상

여기에서는 광의의 탐구활동을 다루려고 한다. 따라서 그 대상은 광범위하다. 왜냐하면, 과학교과에 관련된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교과학습이나 일상생활을 통하여 궁금하였거나 해결하고 싶었던 사물과 현상의 실상이나 변화 등을 탐구해 보는 활동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자연의 사물과 현상에 대한 관찰, 실험, 실습, 재배, 사육 등의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문화재, 유적지 또는 언어 등에 대한 조사활동과 여러 가지 실태 혹은 상관관계를 밝히거나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연구활동 등을 모두 탐구활동의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 분야는 물론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모두 망라하는 것이다.

탐구활동의 주제로 몇 가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텔레비전 광고에 나타난 외국 문화의 영향 연구
- ② 따개비의 분포를 결정하는 환경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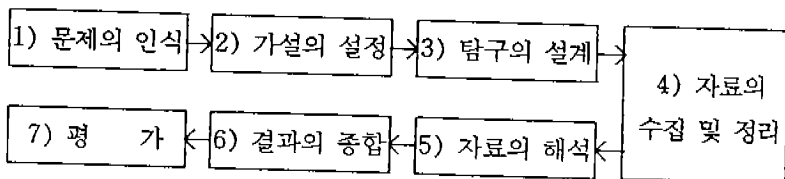
- ③ 민들레 씨앗 조사하기
- ④ 우리 고장 지명의 유래 연구
- ⑤ 액체 분자들 사이의 당기는 힘에 관한 연구
- ⑥ 배추흰나비의 우화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 ⑦ 승용차의 색깔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
- ⑧ computer virus 의 현황과 그 대책
- ⑨ 우리 가족 혈액 가계 조사

3. 과학적 탐구의 과정

과학적 탐구 그 자체는 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예술 또는 기술이라고도 하지만, 과학적 탐구의 과정이나 방법이 그 어떤 한 가지의 경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중요하게 행하는 활동범주를 관찰할 수 있고 중요한 단계를 모형화 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탐구활동 모형은 일련의 과정이 차례 차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일부분이 생략되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자연과학 분야의 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의 탐구활동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그림 1〉 탐구활동 모형

1) 문제의 인식

자연현상, 인위적 현상, 기본자료 등이 제시되었을 때 과학적 문제를 발상하거나 인식한다. 이것은 관계되는 과학적 개념의 이해를 수반한다.

2) 가설의 설정

구체적인 탐구과제가 결정되면 그 탐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세우는데 이것을 가설설정이라 한다. 즉, 가설은 탐구를 인도하는 잠정적인 아이디어로 구성되며, 반드시 경험적 또는 실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또, 가설 속에는 어떠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분석되는 과정까지의 개략적인 계획과 결론에 대한 예상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탐구의 설계

탐구 문제에 대한 임시적이고 주관적인 답을 가설이라고 하면, 이러한 가설의 진위 여부를 관찰 실험적 자료를 근거로 검증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탐구의 설계이다.

이 때, 변인을 통제하고 조사·실험과정을 고안한다.

또, 가설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기구 및 재료를 선정하고 설치방법을 고안하며, 가설검증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결정 및 수집 방법을 강구한다.

4)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실험 과정이 설계되면, 실험의 내용, 방법, 성격에 맞는 실험 기구나 재료가 선정되어야 하며, 실험 장치를 구성하고 그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찰, 측정, 분류 활동이 주로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가장 중심이

되는 활동이다.

실험을 통한 측정치들은 적절한 형태로 기록되는데, 주로 표로 기록되는 일이 많으나, 실험의 성격에 따라 Vector-Diagram, 그래프(직선, 막대), 파이-Chart, 천기도, 지형도, 도형, 그림 또는 언어 등으로 기록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실험 목적에 따라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유용하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다.

5) 자료의 해석

자료의 해석을 위해 내삽, 외삽과 같은 추리활동과 예상활동이 이루어지며,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결정한다.

6) 결과의 종합

데이터로부터 핵심되는 모든 정보를 추출하고, 실험 사실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또, 특정 실험 데이터의 범위를 초월하여 보다 넓은 영역과 적용 범위를 갖는 일반법칙 또는 자연법칙까지 확장하여 일반화시킨다.

7) 평 가

과학탐구활동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가치 특성에 관하여 비판적인 판단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평가에서는 적절성, 정밀성, 타당성, 신뢰성, 적용성, 포괄성, 정보의 한계성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진다.

4. 여러 가지 탐구활동과 지도방법

다음에 제시하는 활동들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탐구활동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주제를 탐구해 가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탐구활동

의 일부분 또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들의 훈련을 통하여 탐구능력이 신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도방법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1) 관찰활동

관찰이란 목적적 의도적인 자각으로서 오관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이는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가장 초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이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관찰은 대상을 아무 주관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찰함에 있어서 관찰자의 주관이 엄격히 배제되고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도가 유용할 수 있다.

- ① 학생들이 제시하는 대답이나 생각이 틀리거나 옳을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한다. 즉, 학생들이 관찰하여 얻은 것이면, 그것은 모두 가치있는 것임을 알려 준다.
- ② 가능한한 오관(눈, 귀, 코, 입, 피부)중 많은 기관을 이용하여 관찰 대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특징들을 가능한 한 많이 있는 그대로 얻어 기록하게 한다. 자세하게 결과를 기록하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
- ③ 정성적인 관찰로부터 시작하여 정량적인 관찰을 하도록 한다.
- ④ 관찰 대상의 변화를 주의깊게 관찰한 다음, 그 결과를 기록하게 한다.

2) 분류활동

분류는 자연현상이나 사물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에 비추어 무리짓는 활동으로 의사 전달을 위한 기본 기능일 뿐 아니라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도록 하는 활동이다. 분류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과정을 따르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 ① 교사가 분류 기준을 세워 그 기준에 따라 분류하게 한다.
- ② 교사가 미리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보고 공통점을 찾게 한다.
- ③ 관찰결과를 정리하여 공통점을 찾게 한다. 가능한 한 여러 가지의 공통점을 찾도록 한다.
- ④ 각자가 찾아 낸 공통점에 따라 분류하게 한다. 분류된 한조를 다시 여러 단계로 분류하게 한다.

3) 측정활동

측정은 관찰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정량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게 하는 과학탐구에 있어서 기본적인 활동으로 도구를 이용하여 양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 능력은 다음과 같이 기를 수 있다.

- ① 양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측정 도구를 선택하게 한다.
- ② 기본적인 양(길이, 질량, 시간, 온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단위를 사용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게 한다.
- ③ 두 가지 이상의 측정치에 규칙을 적용, 계산하여 원하는 양을 얻게 한다.
- ④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한 측정 도구의 선택, 읽는 법 등을 지도하고, 실제로 대상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게 한다.
- ⑤ 대상 물체의 양을 어렵으로 알아보게 한다.

4) 예상활동

예상은 관찰된 결과를 바탕으로 관찰되지 않은 속성을 찾아내게 하는 활동으로 외삽과 내삽이 예상에 포함된다. 내삽은 관찰 결과 사이의 속성을, 외삽은 관찰을 넘어선 영역에서의 속성을 찾아내는 것인데, 그래프를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훈련시키면 좋다.

- ① 관찰결과를 순서에 따라 정리하게 한다.
- ② 관찰결과 사이의 값을 추정하게 하고 근거를 제시하게 한다.
- ③ 관찰을 넘어서는 영역에서의 값을 추정하게 하고 근거를 제시하게 한다.
- ④ 관찰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게 할 수 있도록 급간을 적절히 정하게 하고 그에 따라 그래프를 그리게 한다.
- ⑤ 그래프를 보고 예상을 하게 한다.

5) 추리활동

추리는 관찰한 결과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적인 관찰 결과를 뛰어 넘어 이를 예상하고 관찰한 사건을 설명하는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훈련시킨다.

- ①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사건에 대해 추리하게 하고 그 근거를 말하게 한다.
- ② 일련의 관찰 결과를 보고 특정 사건에 대해 추리하게 하여 그 근거를 말하게 한다.
- ③ 교사가 의도적으로 조직한 대상을 관찰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특정 사건에 대해 추리하게 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게 한다.
- ④ 추리 결과를 더욱 신뢰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관찰을 하게 하여 그 결과를 수정하게 한다.

6) 변인조절

변인이란 어떤 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변인조절에서는 변인의 확인, 변인의 통제 등에 대한 활동으로 다음과 같이 훈련시킨다.

- ① 특정 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있는 대로 열거한다.
- ② 변인 중 한 가지만을 변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제시하게 한다.

- ③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정시켜야 할 변인과 변화시켜야 할 변인을 찾게 한다.
- ④ 변인을 조절하여 실험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게 한다.

7) 가설설정

가설설정은 문제를 인식한 뒤 관찰 결과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훈련과정이 효과적일 수 있다.

- ① 관찰 결과를 일반화하게 한다.
- ② 그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과정을 쓰게 한다.
- ③ 실험 결과를 그 가설을 지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게 한다.
- ④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을 수정하게 하고 다시 검증하게 한다.

8) 실험활동

자연과학의 탐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은 거의 대부분 실험이라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특징에 있다. 이는 자연과학의 연구가 실험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실험에 의해 나타난 현상은 관찰을 통하여 알게 되므로 결국 실험은 관찰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며, 탐구활동은 실험이라는 일련의 절차에 따를 때에만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실험은 문제인식→가설 설정→실험 설계→실험→가설 평가→일반화의 단계를 거치는 탐구과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활동으로 가능한 모든 활동들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일반화된 개념을 얻는 과정이다.

이 실험과정의 훈련에서는 변인을 추출하고 고정시켜야 할 변인, 변

화시켜야 할 변인 등을 찾아내고 가설을 세워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실험 설계를 하여 그에 따라 실험하여 얻은 결과로 가설을 평가한 뒤 가설을 수정하거나 수용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얻도록 한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요리책을 보고 실습하듯이 실험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실험은 탐구능력 또는 탐구사고력의 신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5. 탐구활동의 실제

1) 탐구계획 세우기

(1) 탐구(연구)주제를 정한다.(이하에서는 연구 = 탐구의 뜻으로 쓰임)

- ① 탐구해 보고 싶은 문제를 교과내용이나 특별활동 또는 생활주변의 사태나 자연현상 등에서 찾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한다.
- ② 자료수집이 쉽고 명확한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좋다.
- ③ 탐구주제는 자신의 수준에서 알고 있는 평이한 내용으로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어야 한다.

(2) 연구를 하게 된 동기를 밝힌다.

- ① 연구문제로서 선정하게 된 이유나 취지를 사실적으로 진술한다.
- ② 연구를 하게 된 동기를 바꾸어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등으로 내용과 방법에 따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

(3) 연구내용을 생각한다.

- ① 탐구를 통하여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몇 가지 생각하여 정한다.
- ② 연구문제를 정의하고 연구문제의 성격이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나타낸다.
- ③ 구체적으로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사하거나 실험할 때의 방

법을 나타낸다.

(4) 연구 방법을 밝힌다.

- ①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방법을 생각해 낸다. 여기에 특별한 창의성이 요구된다.
- ② 연구방법으로 실험, 관찰, 조사, 분류, 질문지 등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 ③ 실험·관찰연구에서는 조건 통제를, 조사·분류에서는 연구 범위(연구의 제한점)를 밝힌다.

(5) 연구 기간을 정한다.

- ① 탐구활동의 방법과 차례를 생각하고 탐구추진 계획을 세워 탐구를 끝낼 때까지의 기간을 정한다.

(6) 준비물

- ① 기구 또는 참고자료 등 탐구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생각한다.

(7) 예상되는 결론과 의견

- ① 탐구의 결과 어떤 결론이 맺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

2) 탐구활동 보고서 작성

탐구활동 보고서 작성은 그동안 연구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실험, 관찰, 조사 기록한 내용물을 다시 요약하여 논리적인 체계에 맞추어 기록하여야 하는데, 대체로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I. 연구주제

II. 연구동기

III. 연구절차와 기간

IV. 연구내용

V. 연구결과

VI. 결론 및 의견

* 참고문헌 및 자료

6. 맺 음 말

이 글에서는 탐구활동의 필요성과 개념, 탐구활동의 대상, 과학적 탐구의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탐구활동과 지도방법에 대해 알아본 다음, 탐구 계획을 세우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어떤 한 주제를 선정하고 과학적 탐구과정에 따라 탐구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탐구활동의 지도방법에 따른 교사의 지도 및 안내가 따른다면 훌륭한 탐구활동이 될 것이다.

이 때, 탐구결과가 성공적이나 아니냐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왜냐 하면 청소년들은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과 보다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여러 가지 탐구활동 요소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탐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탐구능력을 신장시키는 지도과정에는 학생들을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하고 항상 생각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사의 지도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다.

- ① 학생에게 생각할 여유를 준다.
- ② 기상 천외한 생각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다.
- ③ 널리 받아 들여지고 있는 설명이나 개념에도 모순이 있을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 ④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치가 있음을 알려 준다.
- ⑤ 사물을 예리하게 통찰하게 한다.
- ⑥ 다른 사람이 눈여겨 보지 않는 성질, 사물 또는 관계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 ⑦ 어떤 결론이 얻어진 과정을 분석해 보고 가설 자체도 눈여겨 보게 한다.
- ⑧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을 제시하게 한다.

- ⑨ 이상한 일에 설명을 붙여 보게 한다.
- ⑩ 흔히 생각하는 방법과 반대로 생각하게 한다.
- ⑪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게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것은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한 가지에 불과할 뿐이며, 또한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교사의 성실한 노력임을 부언하는 바이다.

본문 요약

탐구활동의 필요성 및 개념, 탐구활동의 대상, 과학적 탐구의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탐구활동과 지도방법 나아가 탐구계획을 세우고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광의의 탐구활동은 창조적인 사고방식과 여러 방책의 궁리 그리고 자료와 정보를 추구하고 분석하며 판단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회, 자연적 현상과 도덕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탐구활동의 대상은 자연에 관한 관찰, 실험, 실습, 재배, 사육 등의 과학활동과 지역사회, 문화재, 유적지 또는 언어 등에 대한 조사활동 그리고 연구활동 등을 포함하므로 광범위하다.

탐구의 과정은 문제의 인식, 가설의 설정, 탐구의 설계,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자료의 해석, 결과의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탐구활동에는 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활동과 변인조절, 가설설정, 실험활동 등이 있다. 그리고 탐구활동의 실제에서는 먼저 탐구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동안 연구한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한 탐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과제

1. 관찰자의 주관을 엄격히 배제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논의한다.
2. 자기가 살고 있는 지명의 유래를 조사하고 발표한다.
3. 광고에 등장하는 청소년의 역할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본다.
4. 학생들에게 탐구생활을 지도하기에 적합한 기관들을 견학하고, 각 기관의 특징을 보고서로 작성한다.
5. 탐구활동에서 지도자의 바람직한 역할을 의논해 본다.

참고문헌

- 권재술(1988), 탐구능력의 신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대수(1993), 과학적 탐구능력 신장을 위한 기초 활동 프로그램, 과학교육 9월호
- 김상철(1993), 관찰학습을 통한 과학적 사고력 신장, 과학교육 9월호
- 김종서(1969), 교육연구의 방법, 배영사
- 김종서(1974), 현장 연구법의 이론과 실제, 익문사
- 김창식(1991), 실험·실습 교육의 강화 방안, 과학교육 6월호
- 박승재 외(1985), 과학교육, 교육과학사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연구소(1986), 탐구력 신장을 위한 과학교육,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1988), 탐구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1985), 학생 탐구발표 우수 사례집, 동양문화인쇄사

- 신희명(1989), 과학과 교육 II, 서울대 출판부
- 장남기 외(1987), 탐구과학 교육론, 교육과학사
- 정세구(1991), 탐구수업, 배영사
- 조희영(1988), 과학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이론적 배경과 미래의 과학교육에 대한 시사점, 과학교육학회지
- 최돈형 역(1989), 과학과 학습모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한안진(1987), 현대탐구과학교육, 서울교육과학사
- 한종하 외(1982), 중·고등학교 학생의 과학적 사고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허명(1987), 과학교육, 시창각 교육사
- Novak, J. & Gowin, D.(1984), *Learning How to Learn*, Cambridge Univ. Press
- Screen, P.(1986), "Introduction to Process Science", *Warwick Process Science*, Great Britain by Ashford Press

[자료]

관련기관 및 현장 견학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경희대 자연사 박물관	동대문구 회기동	965-8000
광릉 임업시험장	경기 포천군 소흘면 직동리	(0357)32-1448
국립 서울과학관	종로구 외룡동 2	762-5208
국립 중앙과학관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32-1	042-861-2524
국립 중앙도서관	서초구 반포2동 산 60-1	535-4142
국립 중앙박물관	종로구 세종로 1가	738-3800
금성정밀 펄택공장	평택군 팽성 송하 385	(0333)53-4680
금성통신 안양공장	안양시 호계동 1-600	(0343)52-6161
기상청	종로구 송월동 1	735-6973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광명시 소하동 1781	803-6101
남부교육청 교재원	영등포구 당산동 121-190	679-3556
남산공원 자연학습장	중구 회현동 1-100	753-2563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인천시 북구 청청동 199	(032)520-2277
삼성전자 수원공장	수원시 매탄 314	(033)30-1821~3
서울과학교육원	중구 회현동1가 100-177	773-1583
서울 대공원 식물원	성동구 능동 18	503-6920
어린이 대공원	성동구 능동	445-7054
어린이 회관	성동구 능동 산 3-39	446-6061
이화여대 자연사 박물관	서대문구 대현동 11-1	360-3155
임업연구원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	962-0234
한국과학기술원	성북구 하월곡동 39-7	967-7987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강남구 대치동 960-12	555-0838

3.9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개 관

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은 여가에 담겨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은 여가선용의 차원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덕목과 규율을 익히도록 하는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놀이지도자의 자질, 레크리에이션 지도법,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관한 예들을 몇가지 소개한다.

주제어

여가시간, 노동시간,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놀이 지도자의 자질, 레크리에이션 지도법, 준비단계, 진행단계, 평가단계,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예시

* 전국재,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 소장

1. 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의 이해

J. K. Galbraith는 그의 저서 “풍요로운 사회”에서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변화하는 세 가지 노동현상을 노동 시간의 단축, 노동 시간에 주어지는 노동량의 약화, 그리고 노동인구의 축소라고 지적하였다. 그가 명쾌하게 지적하였듯이 오늘날 사회는 과거, 일 중심의 문화권에서 이미 이탈하여 여가시간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갈수록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가치 창조적으로 선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과 기계화, 이를 통한 경제적 풍요는 결국 인간들에게 더 많은 여가시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 확실하므로 여가의 건설적인 관리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 가리라고 본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여가시간에 대한 가치 창조적 이해와 대책이 없는 한 늘어나는 여가시간은 축복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엄청난 재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가를 여하히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한 인생 뿐만 아니라 사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여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이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가를 생업(노동)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왔다. 이는 종래 일 중심의 사회에서 비롯된 개념으로써 여가를 노동을 한 후에 남는 자투리 시간으로 보았던 것이다.

일(노동)과 여가생활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는 여가는 단지 효과적인 노동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낳게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여가를 노동을 위한 시녀로 보는 시각은 일 중심의 사회가 낳은 부산물이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여

가시간이 급속히 확장되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설득력이 없다. 과거 일 중심의 사회에서 가졌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는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적 문란, 퇴폐·향락 문화, 물질 만능주의, 청소년비행과 일탈로 드러나고 있는 사회병리현상의 원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급격히 발전하는 경제 성장에 사회 윤리가 뒤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 원인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날로 증가하는 여가를 가치 창조적으로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함으로 해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로 보는 시각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하고 실천적인 여가선용의 지혜는 갈수록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여가를 분리하여 2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불가능하며, 여가의 본원적 의미 즉 '여가의 질'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인생을 총체적으로 생각할 때에 가능하다고 본다.

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은 여가에 담겨지는 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생업과 가정,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에 자발적으로 즐기는 의미있는 행위이며 가치창조적 행위와 내용인 것이다. 레크리에이션은 첫째, 생계를 위한 노동과 의무에서 해방된 자유시간에 가지는 자발적인 활동이며, 둘째, 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은 그 자체가 동기가 되어 이루어지는 즐거운(fun)활동이며, 셋째, 자기 발전과 건전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지는 가치창조적 활동인 것이다.

레크리에이션을 오락행위나 게임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극히 편협하고 왜곡된 생각이다. 오락이나 게임은 레크리에이션의 극히 작은 분야일 뿐 그것이 놀이나 레크리에이션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류 역사를 주도해 온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철학자, 종교인, 그리고 장인들은 한결같이 생계를 위한 노동인으로서 산 것이 아니라 일 자체를 즐기며 진리를 추구하였던 자유인이었다. 일하기를 놀이하듯 한 이들

의 삶에서 우리는 진정한 여가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놀이와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편협한 사고와 편견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오락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소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가는 텅 빈 공간과도 같다. 이 공간에 어떤 내용을 담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어지며, 개인과 사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점을 진지하게 되새김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방향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쟁과 긴장 속에서 묻혀 살아가야 하는 세대가 오늘의 우리 청소년들이다. 오늘의 교육현실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을 갖춘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보다는 오히려 장애 요소들이 더 많아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들이 이들의 놀이 현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는 이러한 반교육적인 상황에 편승해서는 안된다. 지도자는 뚜렷한 가치관과 교육철학,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는 값싼 웃음을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하여 이들이 온전한 인간(wholistic person)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의 거룩한 사명임을 기억해 두자. 오늘날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의 문제는 외부에 있다기 보다는 지도자 스스로에게 있다고 본다. 지도자 자신이 교육자라는 자부심을 상실하고 스스로 그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는 데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다음은 청소년활동에서 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리해 본다.

첫째, 비경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끊임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은 경쟁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이들이 즐기는 놀이들이 대부분 경쟁적인 것임을 볼 때 서글픈 생각마저 든다. 경쟁 놀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의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비경쟁·협동놀이를 통하여 사공과 나눔의 의미를 전해줄 필요가 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이 승부를 떠나 즐거운 놀이를 통해 동료들과 협동하고 나눔의 의미와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놀이를 개발한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놀이는 무의미하다. 즐거운 놀이가 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는 것은 즐거움은 결코 외부에서 강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도자는 참가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그들 스스로가 즐길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직접 참여하기를 원하지 방관자(spectator)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지도자는 놀이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되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놀이를 통하여 즐기고 의미있는 모임이 되어지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도우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 규칙과 시간을 엄수한다.

놀이에서 규칙과 시간 엄수는 사회의 법과 같은 것이다. 법이 없는 사회를 생각할 수 없듯이 놀이에서는 규칙과 자기에게 부여된 시간을 엄수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요행과 편법이 난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작금의 놀이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놀이나 스포츠에서 선(line)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어진 선을 엄격히 준수하는 운동경기에서 청소년들은 절제심, 질서의식, 준법정신, 그리고 권위에 대해 존경할 줄 아는 성품을 익히게 되는 것이다. 시간 관리 역시 놀이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소중한 덕목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건강한 시민의 첫걸음이다. 놀이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남의 시간을 침

해하지 않음으로써 나와 너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넷째, 공동체의식을 개발한다.

이기적이고 개인적 성향이 짙은 청소년들에게 공동체놀이는 매우 중요하다. 집단 놀이에서 친구들과 협동하여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우정이 싹트게 되고, 이웃과의 만남, 더 나아가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시민의식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다섯째, 자유시간은 엄연한 정규 프로그램이다.

자유시간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쉬기도 하고 맘껏 즐길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된다. 자유시간을 정규 단위프로그램 사이의 자투리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아닌 것이다. 필자가 미국 청소년들과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캠프에서 함께 생활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두드러진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자유시간을 활용하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우리 나라의 청소년교육이 청소년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기보다는 통제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어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를 편안히 즐길 수가 없는 것이다. 자유시간이 교육 활동으로 승화될 수 있는 비결은 매우 간단하다. 즉 자유시간에 청소년들이 무언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해 놓음으로써 이들이 스스로 창조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듯해 보이지만 이제는 더이상 자유시간의 교육적인 가치를 외면하지 말아야겠다.

여섯째, 민속놀이를 발굴, 계승하자.

우리 나라 민속놀이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우리 나라 민속놀이는 혼자 하는 놀이 보다는 마을 단위로 행해지는 공동체놀이가 많이 발달되었다는 점과 둘째, 놀이 안에 종교의식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놀이 자체가 종교의식이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뒤엉켜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미국에서 행해지는 축제(festival)는 세계 각처에서 몰려든 떠돌이들에게 축제를

통하여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어야 하는 필요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개발된 것인데 반해 우리 나라의 공동체 놀이는 가치 내생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토박이말인 ‘놀이’는 내용상 영어의 PLAY로는 그 의미가 설명되어질 수 없다고 본다. 선조들의 이처럼 훌륭한 놀이문화를 오늘 이 시대에 계승·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3. 놀이지도자의 자질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성숙한 인격을 갖춘 자로서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겸비한 인물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도 소홀해서도 안되겠지만,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지도자로서의 품격 보다는 특별한 기능이 더 강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훌륭한 인격자가 참된 웃음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런 지도자만이 다른 사람들과 진솔한 웃음과 건전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지도자와 참가자들이 공유하게 되는 것은 놀이 그 자체가 아니라 지도자의 사상과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이다. 지도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소중한 자유와 즐거움일지라도 이것을 남에게 주입시키거나 강요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자유와 즐거움은 개개인의 마음이 자의적으로 움직여서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맺히게 되는 열매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와 즐거움은 각자 소유하고 있어서 함께 나눌 수는 있는 것이어도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참가자들이 스스로 해보고, 스스로 느끼는 가운데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의 본연의 임무인 것이다. 이는 지도자가 진심으로 참가자 개개인을 소중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만나질 때에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참된 즐거움은 전염성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레크리에이션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가운데 참된 자유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현장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레크리에이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를 정리해 본다.

- ① 지도자의 궁극적인 관심은 활동보다는 사람(참가자)들에 있어야 한다. 곧 프로그램 목표들(참가자의 수, 활동 달성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가에 있지 않고, 참가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성격의 즐거움이었는가에 두어야 한다.
- ② 지도자는 참가자 개개인을 이해, 후원, 그리고 격려받아야 하는 소중한 인격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레크리에이션 그룹활동은 이러한 신념을 활동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건설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 ③ 지도자는 그룹의 조직과 진행과정에 대해 명확한 통찰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룹 구성원들이 스스로 지도력을 개발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개입 여부를 결정한다.
- ④ 개개인은 흥미, 배경, 욕구, 성격, 그리고 행동양태가 각기 다른 인격체라는 점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도자는 전문 심리학자가 아니더라도 참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적대감, 위축, 적대적인 행위, 그리고 이와 유사한 행동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
- ⑤ 지도자는 그룹 구성원들이 어디에 있든지(그들의 태도, 기능, 그리고 행동 양태와 관련하여) 그들이 이해하고 수긍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

이상 다섯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지도자 나름의 개인적인 목표를 세워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① 그룹 구성원들이 새롭고 의미있는 흥미, 기술,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과 같은 개인 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도록 돕는다. ⑥ 그룹 구성원들이 사회성 개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수용, 상호간의 관계형성에 필요한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자세를 개발하도록 돕는다. ⑦ 그룹 구성원들이 그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Kraus, 1966 : 61-62).

결국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는 프로그램의 준비, 기획, 진행, 평가과정을 총괄하는 주체자로서 만이 아니라 그룹 구성원들이 자신과 이웃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성숙하도록 돕는 도움자(helper) 또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인격과 지도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지도자는 그룹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도력을 기꺼이 이전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4. 레크리에이션 지도법

1) 준비 단계

- ① 지도자는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집단의 규모, 참가자들의 연령층과 수준, 성별, 장소(실내, 실외, 규모 등), 시간, 모임의 성격, 주제, 날씨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가능한 한 모임 장소는 사전에 답사해 두도록 한다.
- ② 단위 프로그램과 순서가 결정되면 소도구 준비, 장식, 홍보방법, 보조지도자들을 선정한다. 필요한 소도구들은 미리 확인해 두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의 도구를 준비해 둔다.
- ③ 미리 모임 장소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두어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진행 단계

- ① 지도자는 참가자들이 모두 편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한다. 원대형일 경우에는 지도자가 원 중앙에 서지 않도록 한다.

- ②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수준과 규모에 맞아야 한다. 맨 처음에 진행하는 게임은 쉽고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것이 좋다. 기대효과를 상승시키고 참가자들 사이에 만남과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것들을 진행한다.
- ③ 프로그램은 정적, 동적인 내용을 적절히 혼합하여 참가자들이 쉽게 피로를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④ 지도자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진행 방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암기하고 있더라도 쪽지에 간단히 적어서 소지하고 있다.
- ⑤ 지도자는 프로그램의 규칙을 간결·명확하게 설명하며, 규칙을 반복하여 설명하기 보다는 한번의 '시범'이 효과적이다.
- ⑥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 ⑦ 프로그램(또는 게임)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마치도록 하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연결한다.
- ⑧ 지도자 자신이 프로그램에 몰두하여 즐겁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⑨ 비상시를 대비하여 항상 여분의 게임과 우천시를 대비한 예비 프로그램을 준비해 둔다.
- ⑩ 무언가 아쉬움이 남을 때가 프로그램을 마감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참가자들이 지루한 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마감 시간을 이미 놓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3) 평가 단계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평가는 프로그램의 준비와 실시만큼 중요하다. 체계적이고 냉철한 평가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가장 필수적인 과정이다. 평가는 프로그램의 성패를 관결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재창조 과정인 것이다.

- ① 프로그램 작성의 욕구(needs)와 흥미(interests) 결정

- ② 지도자의 기능, 임무, 역할분담, 그리고 실행
- ③ 시설, 장비, 그리고 지형지물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보 수집
- ④ 참가자들에 대한 평가: 참가인원, 참가자들의 유형, 활동 진행시의 태도, 참가자의 만족도
- ⑤ 프로그램 평가: 단위 행사, 특별 봉사,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의 검토

평가 방법들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음의 방법들이 있다. ① 설문지 또는 면접을 통한 조사, ② 면접, ③ 사례 연구, ④ 각기 다른 프로그램이나 기법으로 진행한 그룹들을 비교해 보는 실험 연구, ⑤ 신체적 활동 검사, ⑥ 심리검사 또는 여론 조사, ⑦ 역사적 자료 분석, ⑧ 논증 실험이나 ‘파일럿’ 연구, ⑨ 체계적인 관찰 (Kraus, 1966 : 417).

5.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예시

앞서 언급한 청소년 놀이의 여섯 가지 방향성 즉 비경쟁·협동,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규칙과 시간 엄수, 공동체 의식 개발, 자유시간, 민속놀이에 관련된 간단한 예시들을 소개한다.

예 1

이 게임에서는 지도자가 사전에 문제지를 작성해 두는 것 외에 게임 진행 시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이 게임이 지도자의 아무런 개입 없이도 참가자들이 열띤 분위기에서 즐기게 되는 이유는 극히 간단하다. 즉 이 게임은 지도자가 인쇄물을 준비한 것 외에, 실시과정에서 참가자들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도록 고안된 게임이라는 점에 있다.

* 방법:

이 게임은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깨고 참가자들이 서로 쉽게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맨처음에 진행하는 도입게

임(Mixer 또는 Ice Breaker)의 한 예이다. 참가자들에게 인쇄물을 한 장씩 나누어 주는데 뒷면을 접어 주어서 미리 보지 못하도록 한다. 지도자가 시작 신호를 알리면 참가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인쇄물에 적힌대로 실시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오도록 한다. 이때 가장 먼저 작성한 사람은 지도자에게 제출하도록 알려줌으로써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어째 줌 난처하네요

1. 남의 신발을 벗겨서 다시 거꾸로 신기십시오.
2.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남자의 머리카락 2개를 구해 오십시오.
3. 남자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강제로 팔굽혀 펴기 10번을 시키십시오.
4. 바지를 입고 있는 사람의 바지 한쪽을 무릎 위로 걷어 올리십시오.
5. 다른 사람의 등에 올라타고 매미가 되어 “매엠 맴” 하고 열번 울어 보세요.
6. 남자는 여자의, 여자는 남자의 손을 붙잡고 한쪽 무릎을 굽힌 채 “나는 처음 본 순간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운명인가요?”하고 고백(?)하고 사인을 받아 오십시오.
7.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20번 한 다음 다른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오십시오.
8. 셔츠를 입은 사람의 단추를 풀고 한 칸씩 단추를 잘못 끼워 주십시오.
9. 남자의 머리를 고무줄이나 머리핀을 이용하여 여자처럼 치장해 주십시오.
10. 남자의 입술에 루즈를 예쁘게 바르세요.
11. 손톱에 때가 낀 사람을 찾아 오세요
12. 아직 인사를 나누지 못한 10사람을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십시오.

예 2

다음의 역할 연극(role play)은 원래 필자가 청소년활동 지도자 교육을 위해 고안해낸 것으로 준비, 진행에서 평가의 전 과정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도 역시 지도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진행과정에서 정보제공을 위한 개입 정도로 간여할 뿐 참가자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 방법:

- ① 참가자들을 4-6명 단위의 소그룹으로 나눈다.
- ② 지도자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안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을 참가자들이 직접 정리해 보고 이를 토대로 역할연극을 해보는 프로그램임을 소개한다.
- ③ 각 그룹이 한 가족단위가 되며, 따라서 그룹 구성원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이 될 것인가를 의논하여 자유롭게 정한다(5명 이상일 경우에는 2남 1녀 또는 1남 3녀 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④ 지도자(또는 참가자 중 한사람)의 사회로 브레인 스토밍(brain storming)을 통해 가족 구성원별 문제점들을 10-12가지씩 모은다(예: 매일 밤 술 취해서 들어오시는 아버지, 의처증 환자, 아들만 편애하는 아버지 등). 기록자 한 사람을 정하여 참가자들에 의해 제안된 내용을 기록해 둔다.
- ⑤ 가족 구성원 별로 각각 10-12가지의 문제점들을 적은 내용을 메모 용지에 한 가지씩 적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분리하여 종이 상자(또는 대롱투) 4개에 각각 넣어둔다. 종이 상자에는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적어 놓도록 한다.
- ⑥ 정해진 역할별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의 순서로 한 사람씩 나와서 상자에서 한 장씩 꺼낸다.
- ⑦ 결국 그룹별로 천태만상의 희한한 가정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지도자는 시간(20분 정도)을 정해주고 그룹별로 의논과 연습과정

을 통하여 역할 연극(존극 분위기)을 준비하도록 한다.

- ⑧ 참가자들이 너무 심각하지 않고 시사성이 있으면서도 즐겁고 해학적으로 준비하도록 당부하자.
- ⑨ 발표시간은 4-5분이 적당하며 발표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배정된 시간을 너무 초과할 때는 지도자가 중도에라도 중지시킬 수 있다.

* 정리 및 평가: 발표를 모두 마친 후에 지도자의 사회로 사례연구를 하는 식으로 참가자들과 토론시간을 갖는다. 지도자는 성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을 개인적으로 관찰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결론을 내린다거나 훈계를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 변형: 이 프로그램은 토론하고자 하는 목표와 내용에 따라 가족구성원 대신에 학교에서의 친구 또는 선생님 관계, 클럽 등의 구성원들을 도입할 수 있으며, 구성원 중에 상담자를 개입시킬 수 있다. 한번 실시함으로써 성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호응도가 높으면 좀더 진지한 내용으로 다시 할 수 있다.

예 3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보급되어지고 있는 야외 모험활동 중에서 ABC(Adventure Based Counseling)가 있다(Shoel, 1988). 모험활동을 통하여 자가치료가 이루어지도록 고안된 이 활동은 1971년 Jerry Pieh에 의해 시작되었는 바, 이 프로그램은 특히 청소년의 사회성 개발에 매우 효과적이다. 소그룹으로 진행되어지는 ABC는 그룹 상호간의 경쟁을 지양하고 그룹내의 성원들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난하기 보다는 이를 상호간에 서로 인정, 이해하고 이를 수용, 보완, 협력함으로써 그룹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차례로 풀어나가도록 고안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별한 전문지도자 없이 성원 각자가 자아개념의 향상(improvement of self-concept)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이다. 그 중에 몇 가지 코스를 소개한다.

* 고압선 장벽 탈출

개요: 몸과 통나무 한개 만을 이용하여 성원들이 고압선을 넘어서 빠른 시간내에 전원이 탈출을 하는 코스이다.

규칙:

- ① 참가자가 고압선(로우프)을 건드리면 그 즉시 감전되어 죽는다.
- ② 통나무가 고압선에 닿을 경우 그 통나무는 전도성이 있으므로 통나무를 잡고 있는 사람들도 감전이 되어 모두 죽는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고압선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
- ③ 고압선 아래에도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으므로 고압선 아래로 통과할 수가 없다.
- ④ 버팀목에도 전기가 흐르므로 역시 만질 수 없다.

설치방법:

- ① 고압선은 로우프를 사용하고 버팀목은 4그루의 나무기둥(또는 3, 4개의 말뚝)에 지상에서 1.2m 높이에 연결하여 설치한다. 높이는 지상에서 1.2m가 적당하다.
- ② 통나무(직경 10-15cm, 길이 1.5-2m)

진행:

전원이 로우프 안쪽에 들어가고 시작이 되면 동료의 몸과 통나무 만을 이용하여 로우프를 넘어서 탈출해야 한다. 로우프나 나무(말뚝)를 건드린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재시도해야 한다. 전원이 탈출할 때까지 계속하며 이 때까지의 시간을 기록한다.

* 거미줄 통과

개요: 거미줄을 건드린 사람은 독거미에 물려 죽는다고 가정하고 두 그루의 나무 사이에 나일론 끈으로 엮은 거미줄 사이로 거미줄을 건드리지 않고 전원이 통과한다.

규칙:

- ① 참가자 전원이 거미줄을 통과하도록 하는데 마지막 사람을 제외하고는 맨 아래 부분에 뚫린 거미줄 사이를 통과할 수 없다.

- ② 한번 통과한 거미줄의 공간은 다시 통과할 수 없다.
- ③ 사람의 몸 외에는 다른 도구들을 일체 사용할 수 없다.
- ④ 이미 통과한 사람은 통과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 ⑤ 거미줄에 걸린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재시도 한다.

설치 :

- ① 거미줄을 설치하는 두 나무 사이의 거리는 3.0—3.5m가 적당하다.
- ② 거미줄은 직경 3—5mm의 나일론 끈을 사용한다.
- ③ 거미줄 곳곳에 총을 매달아 두면 사람이 거미줄에 닿을 경우 종이 울리게 되므로 보다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예 4

다음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예이다. 이 행사는 중학생(배재중학교, 씨스푸마 클럽)들과 지역사회 주부들이 아파트 단지(서울, 고덕지구)에서 불우이웃 돕기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다.

놀이마당

개요 : 놀이마당은 준비한 놀거리들을 지역주민들에게 판매하는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들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지불한 회비의 전액을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성금으로 활용하는 놀이를 겸한 모금행사이다.

목적 :

- ①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
- ② 지역주민들에게 이웃간에 만남과 교제의 기회를 제공
- ③ 놀이문화운동을 겸한 불우이웃돕기 사업 전개

내용 :

- ① 해당 지역사회 주민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내의 시설(학교운동장, 체육관등) 사용협조를 얻는다.

- ② 자원봉사자들이 제작한 놀이기구(15-20가지)들을 행사장에 배치한다.
- ③ 가족 단위 또는 어린이들은 놀이마당에 참여할 때에 입장권(쿠폰: 10장)을 구입한다.
- ④ 참가자들은 놀이마당에 분산 배치된 놀이들을 찾아다니며 쿠폰 한장씩을 내고 원하는 놀이에 참여한다.
- ⑤ 입장권 판매로 얻은 수익은 전액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본 행사는 매년 어린이날 청소년(중학생)들이 클럽활동의 일환으로 전개하였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지역주민들의 이름으로 청소년들이 대표로 전액 인근 장애인시설이나 양로원에 전달하였다. 관할 경찰서, 아파트 관리실, 부녀회, 노인정에 대한 협조와 공문은 청소년 클럽 소속 기관인 서울YMCA 고덕센터에서 담당하였으며, 그 외의 제반 준비와 진행은 담당 지도자의 지도감독(supervision)을 받아 청소년 클럽(씨스푸마) 회원들이 직접 담당하였다.

예 5

거북이 힘내기

돌이 하는 줄다리기다. 선조들이 즐기던 이 놀이는 협동의 의미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훌륭한 놀이이다. 10m 정도의 굵은 밧줄 양끝을 단단히 묶어서 둥근 밧줄을 만든다. 중앙에 선을 긋고 밧줄 양 끝을 목덜미에 걸고 배 밑 사타구니 사이로 빼서 네 손, 발로 기어가며 시작 신호와 함께 서로 반대방향으로 끌고가 자기 편으로 더 많이 끌고 간 사람이 이긴다. 두 마리의 염소 그림을 통해 협동과 나눔의 지혜를 생각해 보자(전국재, 1990).

본문 요약

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은 여가에 포함되고, 생업과 가정,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에 자발적으로 즐기는 의미있는 행위이며, 가치창조적 행위와 내용이다.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방향성은 ① 비경쟁 프로그램 개발, ②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놀이 개발, ③ 규칙과 시간 엄수, ④ 공동체의식 개발, ⑤ 자유시간은 엄연한 정규 프로그램, ⑥ 민속놀이 발굴·계승 등이다.

놀이지도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성숙한 인격을 갖춘 자로서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겸비한 인물이어야 하는데, 이들은 주체자, 도움자, 촉진자로서의 인격과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

레크리에이션 지도법에서는 먼저 준비단계, 진행단계, 평가단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활동 중 5가지를 예시하고 있다.

연구과제

1.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의 전통이 어우러진 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을 개발하도록 한다.
2. 놀이지도자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3. 청소년지도에 적용한 바 있는 한 가지 레크리에이션의 준비에서 평가까지 사례연구를 하여본다.
4. 지역사회 단위로 레크리에이션 경연대회를 개최한다면, 어떻게 기획하여야 할까?
5. 집 안에서 청소년과 그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을 개발하여 본다.

참 고 문 헌

전국재(1990), 하나님·자연·사람, 도서출판 엠마오

전국재(1992), 실내게임 200, 평화출판사

전국재(1992), 야외게임 200, 평화출판사

Kraus, Richard(1966), *Recreation Today*, Appleton-Century-Crofts

Shoel, Jim(1988), *Islands of Healing*, Project Adventure, Inc.

청소년활동 전개의 방향과 과제

개 관

청소년활동은 학교에서의 교과수업활동과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교육활동이다. 여기서는 지나친 교과중심교육 의존현상으로 인한 체험중심 청소년활동의 위축실태와 원인을 고찰하고 우리 나라 실정에 적용가능한 청소년활동의 전개방향과 과제를 논의한다.

주제어

청소년활동, 전인적 성장, 교과의 활동, 체험중심활동, 신체적 활동, 특별활동, 동아리활동, 임의여가활동, 단체활동, 학교내 자율활동체계(I.M. 체계), 지역공동체의식, 프로그램 조정자(P.C.)

* 김정명, 명지대학교 교수

1. 서 론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체험은 측량하기 어려운 전인교육적 효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아무리 진보적 교육환경이 조성되더라도 학교교육만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활동체험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외 체험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예를 들면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영연방 국가들에서 실시되어온 에딘버러 포상계획(Edinburgh's Award Skeme), 완벽한 활동시설의 마련을 위한 국가 계획인 독일의 황금계획(Golden Plan), 학교 내의 교과외 체험활동 강화방안인 미국과 캐나다의 교내자율활동제도(intramurals)등이 그것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교육만으로는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와 같이 임시위주의 교육으로 시달리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1980년대 말에 문부성 내에 생애학습국을 주무부서로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교과외 활동에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한편, 1988년부터 문부성 내에 '학교외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협력자 모임'을 구성하여 매년 청소년의 교과외 활동에 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최근에는 각급학교 주휴 이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조직적인 청소년활동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최근들어 전인교육적 차원에서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어 체육청소년부(현, 문화체육부)의 주도 하에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마련되고 종래의 청소년육성법을 보다 강력한 행정구속력을 갖는 청소년기본법으로 대체하면서 청소년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청소년들의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에서도 입학시험에서 내신의 비중을 의무화하면서까지

청소년기에 필요한 다양한 교과를 청소년들이 편중없이 학습하도록 하고, 중등학교의 특별활동과 교과외 활동을 활성화하여 풍부한 실천활동과 생활체험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보편적 인식과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청소년활동이 좀체로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 학교공부에 바쁜 대다수의 청소년들에게는 조직적이든 비조직적이든 자발적인 활동체험의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행사를 통해 동원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진지하게 체험해 보지도 못한 채 ‘공부’라는 오직 한 가지 ‘바람직한’ 활동의 사슬에 묶여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마련 이전에 그 활동 자체를 ‘공부’ 다음의 부차적인 것 혹은 시간낭비 쯤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원인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 청소년활동이 실제로 어느 정도 위축되어 있는지 진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론에서는 먼저 우리 나라 청소년활동의 위축실태와 그 원인을 살펴본 후 실현가능한 청소년활동의 전개방향과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청소년활동의 위축실태와 그 원인

청소년활동이 얼마만큼 위축되어 있는지 또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청소년활동(youth activity)이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과 한계를 규정하는 일이다.

청소년활동이란 인간의 경험적 측면을 가르키는 말로서 어떠한 활동을 지칭한다는 면에서 볼 때에는 실제적, 실용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개념정의를 내려지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

서는 청소년활동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알려주는 작업방향의 지시문 정도의 수준에서 그 개념과 범주를 규정해 보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활동을 자발적인 교과외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y)이다. 청소년활동을 문자대로 개념화할 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갖가지 교과수업활동(curricular activity)이나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청소년의 근로활동도 청소년활동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으나 실제로 청소년활동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이유는 교과활동은 하나의 활동이면서 체험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구속력 있는 일(work)의 성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활동’의 경우 자발성에 기인한 여가활동의 성격보다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불가피한 직업활동으로 구분되는 연유에서 일 것이다(김정명 외, 1991).

둘째, 청소년활동은 실천적 생활체험활동이다. 구미에서 청소년활동이란 학교, 가정, 사회의 실생활권에서 요구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중심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Youth Sector Training Council, 1990). 여기서 체험중심 활동이란 몸으로 느끼면서 실제적 감각을 익히는 지식의 통합과정(Integrated process)이며 결국 아는 바를 행위로써 완성시키는 실천활동을 의미한다. 즉, 각종 봉사활동이나 탐험·탐사활동, 스포츠활동, 취미활동, 자연체험활동 등으로 대표되는 청소년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론적 차원을 떠나 피부 깊숙히 체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설정에는 그(신체 동반의)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다소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으나, 신체적 활동욕구가 왕성한 청소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인 만큼 신체의 움직임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신체적 활동(physical activity)이 강조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검토해 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학교생활의 범주 안에서 청소년활동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으로 특별활동, 동아리활동(혹은 서클활동), 그리고 학교 안에서 특별활동

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단체활동 등이 있고 사회생활의 범주에서는 각종 청소년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주관하는 단체활동, 지역 동호인 모임인 동아리활동 그리고 비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임의 여가활동 등이 해당될 수 있다.

1) 특별활동

특별활동을 청소년활동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즉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발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이다. 그러나 특별활동이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면 그것을 청소년활동의 범주에 넣는 데에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함종규(1983)는 우리 나라의 특별활동을 광복이후 종래에 과외활동이라고 불리어 오던 청소년활동이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오면서 특별활동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현재 제도적으로 교육과정상의 보호를 받고 있을 뿐이지 역사적으로 학생들의 임의여가활동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실천적 체험중심활동으로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자율적 집단활동을 통하여 흥미와 자질을 계발하고 사회성과 실천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상의 목표가 이미 설정된 청소년활동의 전인교육적 개념과 다를 바가 없어 그 의도와 형식에서 만큼은 우리 나라 청소년활동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특별활동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즉 중학교는 34.8%가 고등학교에서는 42.7%가 특별활동시간을 교과수업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보다는 인문계가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특별활동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김정명 외, 1990).

과행운영의 방법도 다양하여 학과수업 이외에 자습시간, 휴식시간으로 활동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행사로서 대체되는 사례도 발견된다.

이러한 과행운영과 함께 특별활동의 위축을 나타내는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는 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청소년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한국교육개발원, 1987).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크게 입시위주의 교육환경과 같은 활동 외적 환경요인과 활동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예산부족 등과 같은 활동 내적 환경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러한 저해요인들은 각각 별개로 정상적인 특별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기 보다는 서로간에 인과관계를 형성하면서 총체적으로 활동의 소중한 전인교육적 의의를 희석시키고 있다.

<표 1> 특별활동 위축요인 - 델파이 조사결과

위 축 요 인	응답수	평 균	응답순위
입시과열 - 학생의 무관심	26	1.38	1
특별활동에 대한 학교장 및 교육당국의 인식과 배려부족	23	2.26	2
운영예산 부족	20	2.15	3
여가 교육관 부재	12	1.75	4
지도교사 자질 및 열의 부족	10	2.10	5
교재 및 프로그램 부족	8	2.25	6
학부모의 인식과 관심부족	6	2.16	7
학생수 과다	3	2.00	8

자료 : 한국청소년연구원(1991)

2) 동아리활동

1980년대 이전에 서클활동이라고 불려오던 동아리활동은 학교나 사회에서 취미나 소질, 가치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생성된 자치적 집단활동이다. 한때에는 동아리활동이 불량한 집단활동으로 취급되기도 하였지만, 자발성에 기인하여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활동의 기본적 성격으로 보아 가장 이상적인 청소년 활동의 하나로 분류되기도 한다. 따라서 오늘날 동아리활동의 전개양상은 두 가지로 대별되어 나타난다.

하나는 학교에서 그것을 불량집단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자체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회 자치조직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우리 나라 중고등학교의 대부분은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활동 자체가 음성화하여 본래 모임의 취지와는 달리 활동이 불량적으로 흘러가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최근들어 대부분의 대학과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과감히 동아리활동을 양성화하여 학생들의 자치능력향상과 활동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보다는 획일성, 체험활동보다는 주지교과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우리 나라 교육문화 영향으로 중고등학교에서의 동아리활동은 아직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고 대부분 일부 청소년에 의해 지도자 부재의 상태에서 음성적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3) 단체활동

단체활동은 우리 나라 학교의 청소년활동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서 고도의 집단경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아리활동과 그 맥을 같이한다. 또한 단체라는 조직체에 의해 움직임으로써 시설, 지도자 등이 확보되어 있고 제도적 보장을 받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특별활동과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동아리활동이나 특별활동이 또래집단으

로 구성되어 자치 원리를 활동의 골간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단체활동은 선후배라는 다른 연령집단 계통적 교류를 통하여 활동의 질을 수준 높게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31개 청소년단체가 법인 형태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등록되어 있고 대개가 행정부처와 연관을 맺고 조직의 운영을 위한 지원경로를 구축해 놓고 있다.

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된 31개 단체이외에도 약 50여개 단체에서 청소년들에게 집단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 단체들은 외국과 같이 학교 밖의 청소년활동 센터의 구실을 하고 있다기 보다는 주로 학교 내로 파고들어가 회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그것도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된 수의 단체만이 교육과정상에 있는 특별활동반의 하나로서 상시 청소년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행사성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종합적인 집단활동 프로그램을 연중 몇 차례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교회나 사원 등에서 포교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수련회 형태의 단체활동은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개의 경우 정기적 교리학습과 함께 다양한 레크레이션 등으로 회원간의 친목과 연대감을 도모하고 있고 종교적 사명감을 가진 지도자를 중심으로 심신을 단련할 기회를 갖는다. 또한 종교단체소속 활동이 이렇게 활발한 이유로는 학부모가 대개 이를 용인하고 있고 청소년이 자신의 생활 반경 안에서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단체소속 활동도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부모의 권유나 청소년들 스스로에 의해 포기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단체활동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위축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앞의 특별활동 장애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청소년(단체)활동 위축요인 - 델파이 조사 결과

위 축 요 인	응답수	평 균	응답순위
상급학교 진학준비로 인한 부담감	29	1.07	1
활동시간의 절대부족	20	1.95	2
활동시설의 부족	17	2.35	3
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	19	2.63	4
훈련된 지도자 부족	11	2.91	5
성인 위주의 퇴폐적 위락시설	5	1.60	6
테크놀로지 오락의 만연	4	2.00	7

자료 : 한국청소년연구원(1991)

4) 임의여가활동

비록 비조직적인 활동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교과외 활동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이 모여서 임의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집단활동도 청소년활동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과다한 학교수업시간 이외에도 과외공부, 학원수강 그리고 독서실에서 과중한 학습을 해야 하는 대다수 청소년들에게는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유있는 청소년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는 일, 삼삼오오 때를 지어 캠핑이나 여행을 하거나 부모 몰래 디스크장이나 롤러스케이트장에서 강렬한 음악에 맞추어 자기표현의 기회를 갖는 일, 방송국 스튜디오나 경기장, 행사장, 그리고 소위 문화의 거리 등에 구경거리를 찾아 물러 다니는 일 따위와 같은 임의적인 여가활동도 청소년들에게는 체계적인 집단활동 못지 않게 의미있는 체험활동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여가활동 조차도 탈선의 가능성 때문에 제약당하기 일쑤라는 점에 있다. 즉 이러한 식의 여가활동을 하고자 할 때 우선 부모로부터 허락을 얻어 내기가 쉽지 않고, 사실 활동욕구가 충만

한 청소년들이 부모의 눈을 속여가며 또래그룹과 어울려 놀거리를 찾아 거리를 방황하다 보면 유해문화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이러한 활동을 막기 위해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정책당국에서는 입장불가의 규제적 논리로서 이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적 조치만으로 청소년들의 활동욕구가 해소될 리 없다. 오히려 이렇게 억압당한 활동욕구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억압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 곳곳에 청소년 클리닉이 생겨나고 있는 현상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간섭받지 않는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단순한 욕구에 기인한 가출, 비행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은 단지 청소년들을 묶어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3. 청소년활동 전개와 방향과 과제

우리 나라의 청소년활동은 더 이상 방치하였다가는 대다수 청소년들의 전인격적인 성장에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있다. 그 주된 저해요인 또한 상급학교 진학 문제나 체험중심 활동에 대한 상대적 경시감 등과 같이 활동을 근본적으로 위축시키는 내재적 장애요인과 시설, 조직, 지도자의 부족 등과 같이 활동운영상의 외재적 장애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좀체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령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많이 마련하더라도 입시공부 때문에 활동자체를 포기하는 청소년이 많다면 시설활용률이 낮아 시설운영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청소년들에게 활동의 여유가 많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청소년들을 태만하게 만들거나 불건전한 놀이문화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여기서는 교육행정의 측면에서 학교내 청소년활동의 전개 방향을 먼저 모색하고, 청소년행정의 측면에서 학교의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1) 학교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우리 나라 학생들의 교과외 체험활동인 특별활동과 동아리활동은 매우 위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인교육적 취지에 부합하는 청소년활동 본래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1994년도 대학 입학시험에 내신의 비중을 40%로 묶어 중등학교 교육정상화를 추구하는 한편 국민학교 저학년의 시험을 없애는 등 청소년들의 전인적 육성을 향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것을 수용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할 때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부작용만을 발생시켜 왔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충수업 시간을 없애면 학원이나 과외공부 등 소위 입시산업이 기승을 부리고, 학교에서 배운 범위 즉 교과서 내에서만 쉽게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학생 선발의 변별력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특별활동을 포함하는 교내외 봉사활동과 청소년수련활동을 1994년도 입시부터 내신에 반영시켜 그러한 생활체험, 활동체험을 활성화하려는 발표가 있는 후에는 그것의 객관성, 타당성 시비가 그치지 않다가 결국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본래의 취지를 희석시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학교내 자율활동 체계가 정비되기 전에는 어떠한 정책적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기 쉽고 특별활동이나 동아리활동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의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교내 자율활동의 개념과 특색

교내 자율활동(I.M. : Intramurals)이란 각급 학교내에서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이면서 활동 그 자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라틴어인 인트라(Intra)는 내부, 안쪽을 뜻하고 있고 뮤럴(mural)은 벽 혹은 체계나 조직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무루스(murus)에서 파생된 말로서 I.M.은 서구에서 학교나 직장, 군대 등의 기관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갖가지 친목활동, 스포츠활동, 야외활동, 창작활동 등을 총칭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에 I.M.은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 속에 있는 특별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을 개념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I.M.은 그 프로그램 참여 형태에 있어서 경쟁이라는 참여동기 유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활동이나 동아리활동과 차이가 있다. 학교내 스포츠의 리그나 토너먼트 형식으로부터 출발한 이 제도는 그 주요활동이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인 까닭에 체육의 한 분야로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즉 체육을 신체활동을 통한 전인교육이라고 할 때 I.M.은 주로 신체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교육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체육(instructional physical education), 운동부(varsity athletics)와 더불어 체육의 3대 형태로 분류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스포츠활동 이외에 비경쟁적인 활동이 그 안에 많이 포함되면서 그의 경쟁적 의미는 다소 퇴색하였지만 여전히 다양한 활동동기 유인을 통하여 학교 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진행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매년초에 I.M.사무실에서는 학기별 연간 I.M.프로그램 안내서를 제작, 학생과 교사(혹은 교수)에게 배포한다.
- ② 학생들은 그 안내서의 이벤트 스케줄을 보고 해당 학기에 자신이 참여하고 싶은 활동종목을 선택하여 단체로 혹은 개인적으로 I.M.사무실에 등록한다. 이 때에 일정기한 내에 등록한 것만이 유효하다.
- ③ I.M.사무실에서는 각 활동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게시한다.
- ④ 이벤트가 일어날 시간과 장소에는 심판진이나 리더 - 주로 해당 활동 분야에 관한 특별한 관리능력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

학생 1가 배치된다.

⑤ 각 활동의 결과가 매학기말 포상 혹은 표창되고 개개인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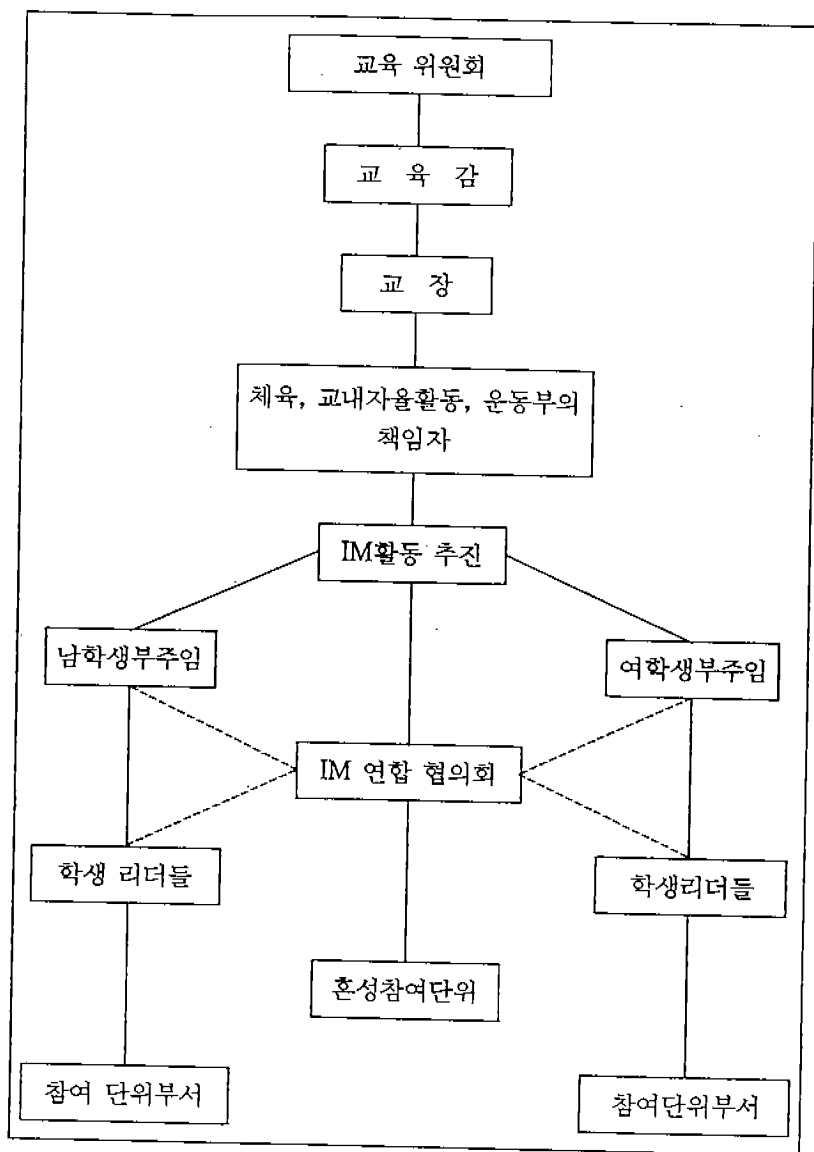
이러한 I.M. 시스템의 장점은 시설의 활용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고 학생들이 I.M. 관리조직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자신의 활동참여 기록이 유지됨에 따라 성의있고 진지한 태도로 활동에 임하게 된다.

(2) 교내 자율활동의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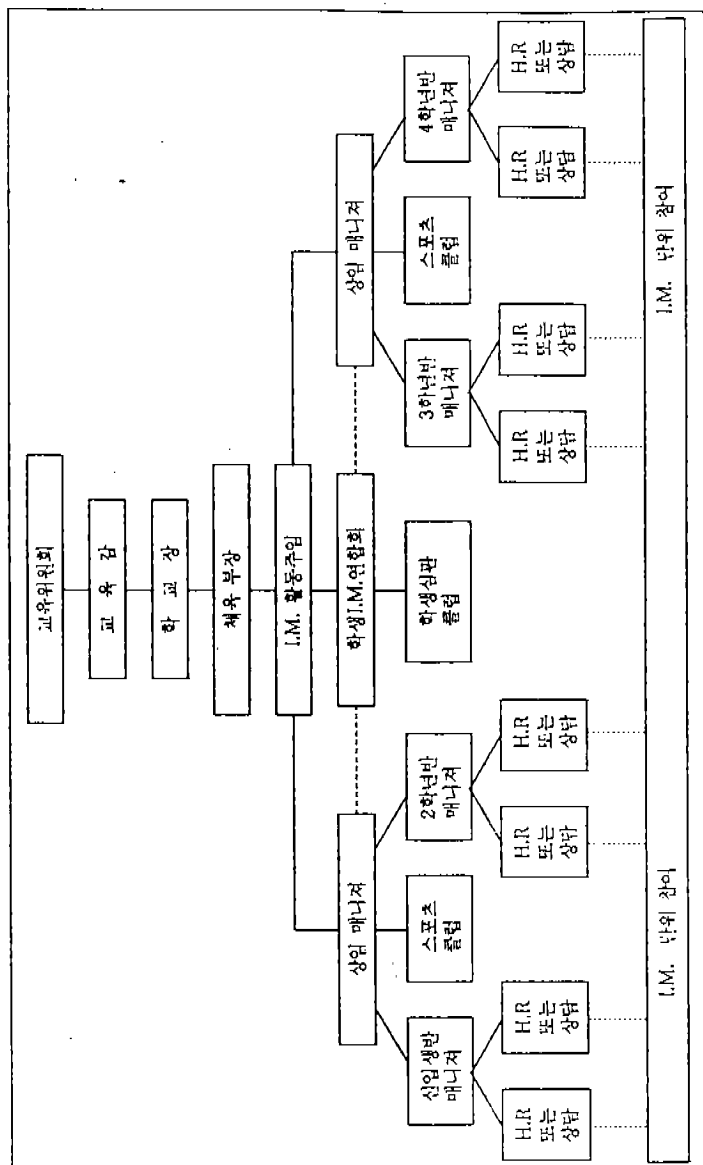
I.M.활동이 교내 청소년 자율활동으로서 뿌리를 내리게 된 데에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고유의 행정관리체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물론 교과교육 행정체제와는 별도의 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책임자는 학생들의 자율활동에 관한 제반사항—프로그램, 재정, 시설 등—을 감독하고 주지교과교육에 편중되기 쉬운 학교 분위기를 견제한다. 초·중·고등학교 I.M.은 체험활동이 중심이 되는 관계로 체육교사나 코치가 조직의 책임을 지게 된다. 특별한 경우에는 체육분야 이외의 사람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스포츠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많아야 한다.

I.M.이 가장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 미국의 경우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과 기업체까지도 이 제도가 자리잡고 있는데, 그 조직의 틀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육담당자가 I.M.활동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활동의 성격이나 시설의 종류에 있어서 I.M.은 신체활동과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M.의 운영을 다른 체육활동의 유형—교과체육과 엘리트체육—과 같은 선에서 이해해서는 안된다. I.M.은 자의의 선택과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활동수준도 다양하여 초보자 반에서부터 때로는 중급, 고급반으로 구분·운영하면서 참여학생의 흥미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성적이나 메달 등 특



〈그림 1〉 중학교 I.M. 프로그램



(그림 2) 고등학교 IM.그로그림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성적이나 메달 등 특정한 활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교과수업활동이나 운동부활동과는 다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3) I.M.활동 전개를 위한 과제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I.M.체제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없다. 그 이유는 활동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I.M.이 이루어지는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운영방법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체육수업이나 운동부활동에만도 부족한 시설에 어떻게 I.M.체제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의 시설이라도 이벤트의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용 스케줄을 만든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결국 I.M.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첫번째 과제는 각 학교에 I.M.체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지도자가 적어도 1인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상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체육교사나 코치 혹은 체육활동에 관심이 많은 교직원을 특별연수하여 I.M.체제를 보급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지 I.M.조직 책임자가 이해하고 있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조직, 인사 및 자원봉사관리
- ② 재무관리 및 시설과 장비관리
- ③ 활동단위로의 그룹핑(참여 단위수의 조정)
- ④ 활동프로그램의 내용
- ⑤ 시설사용 스케줄 (언제, 어떻게)
- ⑥ 토너먼트 편성법
- ⑦ 활동참여 결과의 기록과 포인트시스템
- ⑧ 프로그램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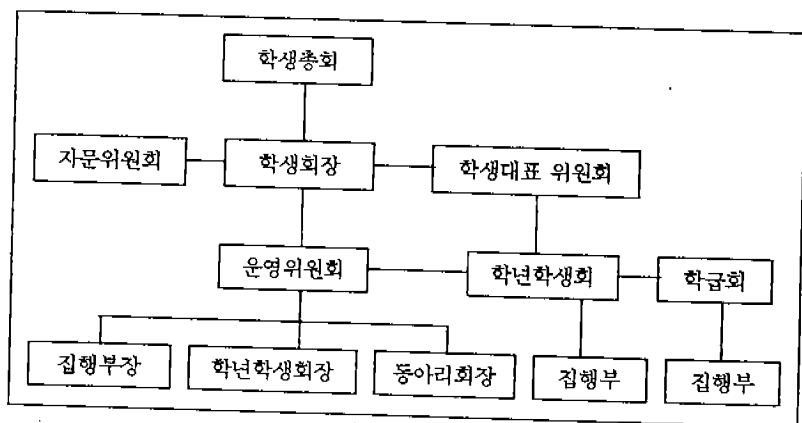
이렇게 I.M.의 원리와 운영방법을 이해하는 전문지도자가 학교에 마련되면 두번째로 그에게 I.M.활동을 보장하는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특별활동은 그 책임과 권한을 교

사와 학생들이 위임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형식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교장이 전인교육에 관심이 높은 경우에는 특별활동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침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로는 특별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을 I.M.체제로 흡수·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특별활동에는 클럽활동과 체육대회와 같은 학교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I.M.은 결국 이러한 특별활동을 ‘특별한’ 이벤트로부터 학생들의 생활 속에 자리잡는 상시활동으로 만드는 계획적인 체계일 뿐이다. 따라서 기존의 특별활동 조직 자체를 I.M.체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동아리활동의 경우도 그 자체를 양성화하여 I.M.체계 속에 끌어들임으로써 동아리 성격에 맞는 자원지도자를 가질 수 있고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평가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 현재 대학교나 중고등학교의 동아리는 형식적인 지도교수나 교사가 있을 뿐이고 단순한 학생들 자치활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림 4〉는 고등학교의 학생자치 조직에 동아리를 끌어들임으로써



자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사업국(1990)

〈그림 4〉 고등학교의 학생자치조직과 동아리

그 양성화에 성공한 예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동아리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관리체계 부분이 배제되어 있어 그 지도기능이 형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렇듯이 체험중심 활동의 경우도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양식이 필요하다. 다음 〈그림 5〉는 I.M.중스포츠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양식의 한 예이다.

I.M.프로그램 평가	
활동명 :	시작일
참여방식 :	마침일
토너먼트의 형태 :	
홍보수단 :	우승자(팀)
사용시설 :	차점자(팀)
.....	
기 록 요 약	
참여가능 학생수	참여 팀의 수
실제참여 학생수	게임 수
참여 율	팀당 게임수
계획된 게임수	심판학생수
몰수게임수	공식항의수
실제 진행된 게임의 %	부상자수
.....	
진행상의 문제점 :	
개선을 위한 건의 :	
평가일 :	평가자 서명 :

〈그림 5〉 I.M. 활동 평가양식(스포츠활동 예)

2) 학교외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학교외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문화 속에는 학교교육에 대한 과중한 기대가 자리잡고 있었고, 그리하여 학교외 청소년지도의 역할은 단지 학교교육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일부 청소년을 위한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적어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 학교의 지도 하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와서 이러한 학교교육에 대한 지나친 의존현상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즉 학교교육만으로는 인간의 전인적 발달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것이다(이영덕, 1983). 결국 지금과 같은 주지교과 위주의 학교교육 안에서는 인간관계가 희박해지고 의식이나 행동이 소극적이고 이기적으로 되는 경향을 무시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과도한 간접정보의 습득·요구로 인한 직접 체험의 부족현상에 대한 우려가 일게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학교외 청소년활동 강화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학교교육 의존현상에 대한 하나의 대안임과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가정과 사회에서의 직접체험 즉 산교육의 기회를 더욱 많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외의 청소년활동이 학교교육과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오히려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상호보완적 관계로 형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학교교육에서 이루기 어려운 것들로 구성되고 접근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 학교교육과 학교외 활동

학교교육은 개인으로서 또한 시민으로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학급이라는 틀에서 또래집단의 동료들과 함께 계통적이면서 계획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그 특색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은 청소년들의 학교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평상시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접촉하는 갖가지 현상들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각 교과 학습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습득되는 한편, 학교에서 얻은 기초적이고 원리적인 내용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갖가지 직접 체험활동들—친구들과의 놀이, 자연체험활동, 사회체험활동, 문화활동, 스포츠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실감있게 재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학교교육과 학교외 활동의 이러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해한다면 학교외 청소년활동이 결코 학교교육과 별개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과의 관계에서 그 활동의 전개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학교교육과 학교외 활동의 경향

	학교 교육	학교외 활동
중 심	이론·교과중심	생활·체험중심
학습내용	기초·원리적	응용·실천적
접근방식	제통·주입식	자발·탐구식
집단형태	또래집단	다른 연령 집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학교외 활동 행태를 살펴보면 학교교육과의 이러한 대조적이고 상호보완적 측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소위 ‘과외공부’라고 하는 학교교육의 단순한 연장·심화활동 만이 우리 청소년의 바람직한 학교외 활동이 되어 왔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청소년단체 활동의 경우도 그 내용이나 접근방식 등이 학교교육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의 경우도 TV시청, 전자오락등의 순위가 높고 몇 가지 스포츠활동을 제외하면 활동성의 저하경향을 쉽게 관찰

할 수 있다(김정명 외, 1990).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와 청소년단체 활동이 강화됨과 동시에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청소년활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의 강화

오늘날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흔히 그들의 공동체의식 부재현상이 회자한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루어 나가는 여가활동의 양태를 보면 그 같은 현상을 엿볼 수 있다. 즉 능동적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활동보다는 테크놀로지 오락활동과 같이 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나 T.V 시청 등과 같이 수동적 여가활동이 청소년들을 붙잡아 놓고 있고, 스포츠활동의 성향도 팀스포츠에서 개인스포츠로, 축구와 농구의 경우도 개개인마다 공을 들고 나와 혼자서 놀다가 들어가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방치해 온 것이 주 원인일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 과정을 겪었던 선진국들의 경우 지역사회 속의 조직적인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하여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예를 들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은 학교교육과 더불어 공동체의식 함양은 물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근년에와서 청소년들을 위한 장기계획이 수립되고 구체적인 청소년활동 진흥책이 마련되고 있다.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시설의 보강, 지도자육성, 단체의 육성, 그리고 활동동기부여 방안의 5대과제를 중심으로 학교의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이 국가적 장기계획은 그 취지와 전개방향에서 거시적이고 종합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의욕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교육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심화돼 있

는 학교교육 의존현상이 이러한 국가정책적 노력만을 통하여 완화되리라 하는 기대는 성급한 감이 있다. 그 보다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듯이 지역사회 자체에서 청소년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먼저 성숙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제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소년단체는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의 강화보다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려 회원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활동을 벌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외국의 대부분 사례에서 보면 청소년단체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청소년들의 지역공동체 활동 기반을 형성해 놓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의 청소년단체들은 자체조직의 강화를 위해 학교로 들어가 활동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나마 학교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청소년단체들은 빈약한 재정으로 자체조직의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단체들이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활동의 기반을 구축해 놓아야만이 청소년들이 공동체 내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공헌하는 통로가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단체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참여는 청소년들의 불런티어 활동의 시작이며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청소년활동 활성화 위한 과제이다. 성장기의 청소년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며 보람된 일인지 깨닫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생적 지역사회 동아리활동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각 시·군·구 단위에 청소년 동아리활동 정보센터가 마련되어 상시모임의 경우 활동장소 및 활동 전문지도자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활동 정보센터는 군민회관이나 구민회관 등의 마을회관 내에 자리잡는 것이 좋고 정기적으로 지역 동아리 연합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활동정보센터에는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내의 모든 활동 시설의 가용여부 및 시간대를 파악하는 전산연락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활동 전문지도자 연락망(Leader's Bank)을 운영하여 청소년 활동의 전개를 위한 신속한 시설·인력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 활동정보센터에는 이러한 대응체계를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프로그램 조정자(P.C. : program coordinator)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활동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는 활동 전문지도자가 프로그램 조정자 역할을 겸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활동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반행정관리인은 프로그램 조정업무를 피하는 편이 좋다.

셋째,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내용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제화·개방화나 환경문제, 가정문제와 같이 빠른 시대의 흐름 때문에 기초적이고 계통적인 학교교육이 미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거나 체험중심의 성향 때문에 학교의 활동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프로그램들은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활동을 비롯하여 타문화를 접하는 태도, 국제적 소양을 연마하는 갖가지 활동이 포함되며 스포츠나 예술교류, 국제캠프, 국외여행, 외국인 초대하기 등이 프로그램의 골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인식이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일반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강조되면서 학교교육과정 안에도 이 문제가 첨부되었지만 강의식 강좌방식으로는 실감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실에서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청소년들의 야외활동을 통하여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만큼 효과적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실천의 주체로 변하는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최근 YMCA에서 청소년 생태환경 조사캠프를 벌여 녹색청소년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사

레는 지역사회를 위한 청소년단체 활동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대한 YMCA연맹, 1993).

끝으로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의 내용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가족구성원 결속프로그램이다. 우리 나라에는 가정구조의 변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전통적 가정체계로부터 핵가족화, 부모의 맞벌이 등의 현상을 말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문제의 원인은 이러한 급격한 가정구조의 변화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학업문제나 이성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직장이나 자기 생활에 바쁜 부모는 깊은 관심을 쏟기가 쉽지 않으며 가정에서는 세대간의 피상적인 대화만이 존재하기 쉽다. 가족 단위로 캠프 등을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가정을 위해서는 청소년단체나 지역사회단체 등에서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세대간 결속을 다지고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문 요약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 청소년활동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한 원인은 활동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의 두 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외재적 원인이란 학력위주의 인력선발풍토, 전인적 여가관의 부재 등과 같이 활동의 전개와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청소년활동을 근본적으로 위축시키는 문화적, 제도적 토양을 말하고 내재적 원인은 활동을 전개하는데 직접적으로 장애가 되는 예산이나 지도자, 시설의 부족, 프로그램의 부족 등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활동 저해요인들이 각각 별개로 작용하고 있다기 보다는 서로간의 인과관계를 형성하면서 총체적으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저해요인 한, 두 가지를 제거하는 방안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체계적이며 지속적

인 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먼저 학교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교내 자율활동 체계가 제안되는데, 그것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갖가지 자율적 친목활동, 스포츠활동, 창작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여기에는 '경쟁이라는 참여동기유인이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량의 우수성을 가려내는 콘테스트와는 달리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갖가지 요인에 의해 위축상태에 있는 특별활동과 동아리 활동도 이 체계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 체계의 핵심은 I.M.조직 스텝으로서 그는 자원봉사인력·시설관리, 단위프로그램 조직 편성법, 활동평가체계에 정통하여야 한다.

학교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교육과의 연계 즉 그 상호보완적 역할이 논의되었다. 학교교육이 이론·교과 중심이고 그 내용이 기초적, 원리적인 면을 참고하여 학교의 활동은 생활·체험 중심으로 응용·실천적인 면을 강조해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교육이 그 접근방식에 있어서 계통·주입식이 되고 주로 또래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면을 고려하여 학교의 활동은 자발·탐구적으로 다른 연령집단이 함께 섞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학교의 청소년활동은 결국 지역사회단체 활동의 강화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음이 지적된다. 이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청소년의 지역공동체 의식의 상실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 가지 구체적 과제가 제안된다. 그 첫째는 청소년단체들이 학교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활동센터를 마을회관 안에 설치하여 활동시설이나 지도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지원업무를 담당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센터의 핵심은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프로그램 조정자가 될 것이고 그 임무와 역할은 교내 자율활동의 I.M.조직 스텝과 같이 체험활동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관리·운영하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사회 청

소년활동의 강화를 위해서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내용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국제화·개방화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이나 환경교육 프로그램, 가족결속 프로그램 등과 같이 기초적이고 계통적인 학교교육이 미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거나 체험중심의 성향 때문에 학교외 활동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가 포함된다.

연구과제

1. 학교교육과 대비되는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한다.
2. LM. 조직 책임자나 프로그램 조정자(P.C.)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한다.
3. 청소년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구·군민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 본다.
4.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된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해 보자.

참고문헌

- 김정명 외(1991), 청소년활동 동기부여 방안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김정명 외(1990), 청소년 놀이마당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이영덕(1983), 평생교육개념에 대한 교육체제 대안탐색,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최상덕(1993), “청소년 생태환경 조사캠프”, 한국YMCA소식(7.8), 대한 YMCA연맹
 한국청소년연구원(1990), 외국 청소년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국청소년연구원(1992), 청소년지도론, 한국청소년연구원
- 황옥성(1989), 한국 평생교육의 발전적 과제와 청소년단체의 역할, 제 11회 한·일 지도자회의에 제출된 보고서
- 文部省(1992), 休日の擴大等に對應した青少年の學校外活動の充實について, 文部省生涯學習局
- Mueller, Pat(1971), *Intramurals: Programming and Administration*, New York : The Ronald Company
- Y.S.T.C.(Youth Sector Training Council)(1991), *A.C.T. Youth Sector Policy Statement : Youth Worker Education and Training*